

KLPGA members

Korea Ladies Professional Golf Association / Summer 2025



BLUE

홍정민, 진짜 골프를 향한 새로운 여정

2025 SPONSORS & PARTNERS

KLPGA TOUR 정규투어 타이틀 스폰서



DREAM TOUR · JUMP TOUR · CHAMPIONS TOUR

드림 · 점프 · 챔피언스투어 타이틀 스폰서



MARKETING PARTNERS 마케팅 파트너



CONTENTS

2025 . S U M M E R

- 04 INTERVIEW**
우승은 비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홍정민, 진짜 골프를 향한 새로운 여정
- 10 INSTRUCTION**
구질과 감각, 두 축의 리셋
홍정민의 샷과 퍼트 교정 노트
- 12 DATA REPORT**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는
2025시즌 KLPGA투어 상반기
- 14 REVIEW**
숫자로 보면 더 재밌는 KLPGA 대회 리뷰
- 18 PLAYERS**
첫 우승 이후 꾸준히 상승세인 선수들
- 24 COLUMN**
한국 선수의 해외 진출과
KLPGA의 국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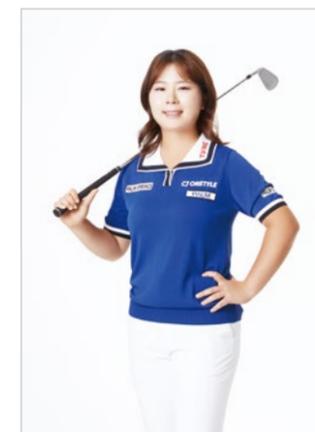
SPECIAL THEME

- 26 BLUE**
- 28 INTERVIEW**
더위가 나를 살린다
'여름이 나의 체질' 고지우
- 30 INTERVIEW**
여름이면 더 빛나는 선수, 서어진
- 32 INTERVIEW**
더위도 이긴 집중력, 임진영의 새로운 도전
- 34 COOLING TIPS**
선수들의 더위를 피하는 방법
- 36 MENTAL CARE**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나만의 극복 노하우
- 38 KLPGA NEW CHANGE**
2025 KLPGA투어, 이렇게 바뀐다!

- 40 INTERVIEW**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
- 44 GLORY**
KLPGA K-10클럽 그 영광의 얼굴들
두 번째 주인공, 박지영
- 46 COURSES**
골프장 소개
- 52 NOW AND THEN**
선수로 성장하기까지,
한눈에 보는 방신실의 변천사
- 54 SNS**
PLAYER'S SNS
- 56 ADVICE**
건강하게 투어생활 하는 노하우
- 58 CHALLENGER**
르완다에서 온 스포츠 샷별 3인방의
KLPGA 도전기

- 60 TRAVEL**
골프장 주변 즐길 만한 곳
- 64 GOOD TASTE**
육포 그 이상의 가치
항진축산
- 68 WINE TIME**
나만의 와인 버틀러,
퍼플독
- 72 FAN**
켈피크루 3기, 상반기를 돌아보다
- 73 PROGRAM**
켈피TV 가이드

- 74 KLPGA TOUR SCHEDULE**
정규투어
드림투어/점프투어/챔피언스투어
- 78 K-RANKING**
25주 차 2025 K-RANKING
2025시즌 투어 주요 순위
- 82 KLPGA TOUR NEWS**
- 88 회원맞춤형교육 공지문**
- 90 MEMBER'S SERVICE**
KLPGA 회원을 위한 혜택
2025 MEMBER'S SERVICE
- 96 EVENT**
퀴즈 이벤트 <빈칸을 채워라>



COVER STORY

2025시즌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KLPGA 선수들은 최고의 플레이를 선보이기 위해 열정과 노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KLPGA members> 여름호에서는 지난 2022시즌 이후 2년 1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홍정민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홍정민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발행일 2025년 7월 3일 발행인 김순희 발행처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21 KLPGA빌딩 3, 4층 TEL 02.587.2929
FAX 02.539.6003 홈페이지 www.klpga.co.kr 기획·디자인 매경골프(02.2000.2967)

EMBARKS ON
A NEW CHAPTER
IN HER GOLF JOURNEY

HONG
JUNG
MIN

PROFILE | 홍정민

생년월일 2002년 1월 22일

입회 연도 2020년 7월

2025 크리스토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 우승

2022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우승



우승은 비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홍정민, 진짜 골프를 향한 새로운 여정

기다림은 언제나 간절하다. 그리고 간절함은 때로 기대를 접는 순간 가장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홍정민이 2년 11개월 만에 우승 트로피를 다시 들어 올렸다. 스트로크 플레이 첫 우승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이번 승리는 마음을 비우고 체력에 집중하며 만든 결과다. 묵묵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걸어온 시간, 홍정민은 다시 자신만의 골프를 시작한다. 글·신정희 | 사진·임한수

마음 비우자 찾아온 우승

KLPGA투어 '크리스토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에서 홍정민이 우승을 차지했다. 2021년 정규투어 데뷔 첫해 '2022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첫승을 기록한 이후 2년 11개월 만의 우승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오른 정상. 그 감회는 남달랐다.

"정말 오랜만의 우승이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첫 우승 때와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첫 우승 후 준우승을 다섯 번이나 했는데, 점점 '나는 우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기대를 내려놓게 됐고, 이번 우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 더 기뻐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거둔 첫 우승이라 더욱 특별했다. "매치플레이는 하루하루 올라가는 방식이라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이지 않지만, 스트로크 플레이는 하루라도 흐름이 무너지면 전체 경기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이 컸어요. 아마 그 압박감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아요."

우승의 비결을 묻자 홍정민은 "비결이라기보단 마음을 비운 게 컸던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지난해 성적이 좋지 않았던 만큼 오히려 '잘 하자는 욕심보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해보자'는 각오로 시즌을 준비했다. 그 편안한 마음가짐이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16번 홀에서 5.7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했을 때 '이제 진짜 우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워낙 강풍이 심한 날이라 끝까지 방심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날은 정말 강풍 속에서 경기를 했는데, 최근 몇 년간 경험한 바람 중에 가장 썰어요. 그래서 마음을 더 비울 수 있었고, 그게 도움이 됐죠."

Letting Go to Win

At the 47th KLPGA Championship sponsored by Creas F&C, Hong Jung Min clinched her long-awaited second tour victory. Her first win came during a match play event in her 2021 rookie season. Nearly three years later, she finally returned to the winner's circle.

"It's been such a long time since my last win, so it felt just like my very first victory. I had finished runner-up five times, and I started to wonder if I could ever win again. Eventually, I let go of those expectations. That's why this unexpected win felt even sweeter."

This was also her first win in a stroke play event, which made it more meaningful. "In match play, you can recover from a mistake the next day. But in stroke play, one bad day can ruin your whole tournament. That pressure weighed on me for a while."

“
 지금은 우승보다 제 골프를 지키고
 싶어요. 체력과 멘털, 전략까지
 모두 조율하면서 장기적으로 골프를
 즐기고 싶어요. 지금의 우승은 과정
 중 하나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제 방식대로, 즐기면서 꾸준하게
 걸어나갈 생각입니다.”

When asked about the key to her success, Hong simply said, “Rather than a secret, I think it was just about letting go.” After a tough previous season, she entered this one not focused on results but with a fresh mindset. That mental clarity made a difference.

“When I made a 57-meter birdie putt on the 16th hole, I finally thought, ‘Maybe I can win this.’ But the wind was brutal that day, probably the strongest I’ve experienced in years. Ironically, that made it easier to let go and just focus on each shot.”

A Strategic Shift: Saving Energy Over Aggression

Hong’s latest win wasn’t just about skill. It was the result of deliberate changes in her strategy, especially her focus on physical fitness. During off-season training, she prioritized endurance over short game work.

“This year, I put a lot more effort into building stamina. I never skipped cardio, even in the rain or



공격 대신 체력 분배, 전략의 변화

이번 우승은 단순한 경기력만의 결과는 아니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체력에 집중한 시즌 준비’다. 홍정민은 이번 시즌 전지훈련에서 쇼트게임보다 체력 강화에 방점을 뒀다.

“이번 시즌에는 전보다 체력 훈련을 많이 했어요. 유산소 운동도 아침저녁으로 빠짐없이 했고요. 비 오는 날도 뛰었고, 정말 일어나기 싫은 날도 운동했죠. 그렇게 체력을 끌어올려 시즌 내내 지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모든 전략은 체력을 기준으로 다시 짜였다. 체력 안배를 고려해 홀별 공략 스타일도 달라졌고, 연습량도 조절했다. 특히 경기 중에는 어머니와 함께 정한 공략을 따르며 체력 소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플레이했다.

“전에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 체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체력 비축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때와 안 할 때를 나눴죠. 그런 변화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요.”

3라운드까지 5타 차 선두였지만, 마지막 날 강풍과 잦은 실수로 1타 차까지 쫓기기도 했다. 그러나 홍정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실 4라운드 경기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도 우승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나는 꼭 해야 해, 이런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우승은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공격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체력의 균형을 맞추는 조화로운 골프가 가능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냈다. 동시에 단단한 정신력 없이 결승선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도 다시금 확인했다.

불안과의 싸움, 그리고 새로운 평정

사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홍정민은 다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까지 했었다. 2023년부터 찾아온 알레르기와 자율신경계 이상, 공황장애 증상은 컨디션을 급격히 떨어뜨렸고, 선수 생활 자체를 놓고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다.

“2023년 초부터 몸에 이상을 느꼈고, 그해 여름부터 성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했어요. 2023시즌 7~8월에 열렸던 경기들은 컷 탈락을 하거나 순위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원래

when I didn’t feel like getting up, I wanted to stay strong and consistent throughout the season.”

Her entire game plan shifted around conserving energy. From hole strategy to training volume, every detail was rethought. She played more conservatively, sticking to strategies she planned with her mother, aiming to manage her energy wisely.

“Before, I was always aggressive, but that would wear me out and create more stress. Now I focus on saving strength, balancing offense and defense. That change really paid off.”

Although she led by five strokes going into the final round, gusty winds and a few missteps allowed her lead to shrink to just one shot. Yet Hong remained calm.

“Honestly, I wasn’t happy with my third-round play. At one point, I even thought, ‘Maybe I won’t win this.’ But that helped me relax. Without the pressure of ‘I must win,’ I played with a clearer mind.”

This win was more than a trophy. It marked a new phase in her career—one grounded in smarter strategy, stamina management, and mental toughness.

From Anxiety to Equilibrium

Heading into the 2025 season, Hong had serious doubts about continuing her career. In 2023, she was plagued by allergies, nervous system issues, and panic attacks that severely affected her performance.



는 경기 끝나면 연습장에 가는 게 루틴이었는데, 그 루틴을 과감히 바꾸고 휴식도 골프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연습을 줄이는 것에 대한 불안이었다. 하지만 그 불안을 견디는 연습부터 다시 시작했다.

“전에는 공식 연습일에도 거의 18홀을 돌 정도였는데 지금은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해요. 연습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연습을 덜 해도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지금은 오히려 루틴의 유연함이 장점이 되었다. 좋은 컨디션과 함께 정신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기를 즐기게 되었고, 결과 역시 따라왔다.

진짜 골프는 지금부터

이번 시즌 홍정민의 행보는 꾸준했다. 2025시즌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 2위, ‘202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2위, ‘제17회 두산 매치플레이’ 4위, ‘Sh수협은행 MBN 여자 오픈’ 공동 10위 등 상반기 5차례 톱텐 입성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홍정민은 더 이상 성적에 연연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골프’를 향한 긴 호흡의 여정을 택했다.

“지금은 우승보다는 제 골프를 지키고 싶어요. 체력과 멘탈, 전략까지 모두 조율하면서 장기적으로 골프를 즐기고 싶어요. 지금의 우승은 과정 중 하나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제 방식대로, 즐기면서 꾸준히 걸어 나갈 생각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우승. 하지만 홍정민은 여전히 담담하다. 이제 그녀는 골프라는 여정의 진짜 재미를 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끝엔 또 다른 가능성의 문이 열릴 것이다. ◆

“I first noticed something was wrong at the start of 2023. By summer, it was impacting my game. I even missed cuts around the Korean Women’s Open. I used to go straight to the range after rounds, but I started embracing rest as a necessary part of my routine.”

Her biggest challenge? Accepting that less practice could still lead to success. “I used to play nearly 19 holes even on practice days. Now I listen to my body. I’ve learned that practicing less doesn’t mean playing worse. That shift gave me confidence.”

Flexibility has become her strength. With better physical and emotional balance, she enjoys the game more—and that joy is translating into results.

The Real Journey Starts Now

Hong’s 2025 season has been impressively consistent. She placed second at both the Doosan E&C We’ve Championship and the NH Investment & Securities Ladies Championship, fourth at the Doosan Match Play, and tied for 10th at the Sh Suhyup Bank MBN Women’s Open. Five top-10 finishes were no coincidence.

But rather than chasing wins, she’s now focused on sustainable golf.

“More than anything, I want to protect my game. Managing my stamina, mindset, and strategy all together—that’s what matters most. Winning is just one part of the journey. I plan to keep playing my way, steadily and joyfully.”

After a long wait, Hong Jung Min returned to the top. But she remains composed. For her, the real thrill of golf lies ahead—in the journey, not just the outcome. ◆

홍정민의 data

2

[상금 순위] 2위
(583,340,000)

3

[평균 버디] 3위
(4.0000)

3

[위메이드
대상포인트] 3위
(226)

60%

(점프 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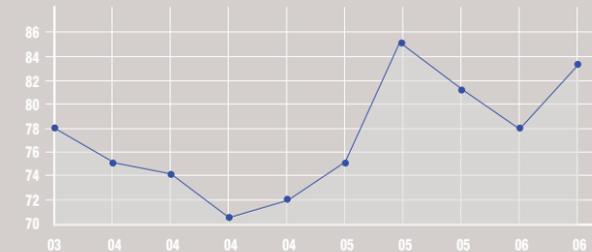
[투어별 우승]
총 5회

40%

(정규 2회)

[그린 적중률]

76.3441^{5위}



주요 성적(2024~2025)

2025 크리스에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	우승
2025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	2위
202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2위
2025 제17회 두산 매치플레이	4위
2024 한화 클래식 2024	공동 3위
2024 롯데 오픈	공동 4위
2024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	공동 4위

※ 2025 셀트리온 링크스 마스터즈* 종료 기준

구질과 감각, 두 축의 리셋

홍정민의 샷과 퍼트 교정 노트

홍정민의 올 시즌 상승세는 경기력 전반의 조율에서 비롯됐다. 특히 아이언샷의 구질 변화와 퍼터 그립의 교정은 그의 플레이에 새로운 리듬을 가져다주었다. 구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셋업 및 테이크백의 미세한 조정, 그리고 손목 움직임을 줄인 퍼터 세팅은 일관성과 안정감을 만들어냈다.

TAKE BACK



BEFORE 드로 구질 테이크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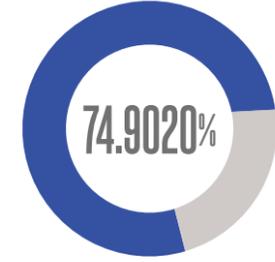
2023 시즌 초반까지 홍정민은 자연스러운 드로 구질을 구사했다. 인-아웃 스윙 궤도에서 출발해 클럽이 다소 뒤로 빠지는 형태였고, 이로 인해 공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탄도를 그렸다. 테이크백 시 손과 팔이 몸 뒤로 빠지며 헤드가 열리는 구조였고, 결과적으로 구질은 드로로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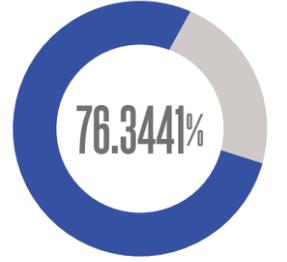
AFTER 페이드 구질 테이크백

핀 주변에서 더 공격적인 샷을 구사하기 위해, 홍정민은 페이드 구질을 다시 몸에 익히기로 했다. 클럽이 뒤로 빠지는 드로 특유의 경로를 줄이기 위해 테이크백부터 궤도를 바꾸었다. 손과 팔을 몸 앞쪽에서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가져가면서 클럽의 헤드를 조금 더 바깥쪽, 플레인 위에 올려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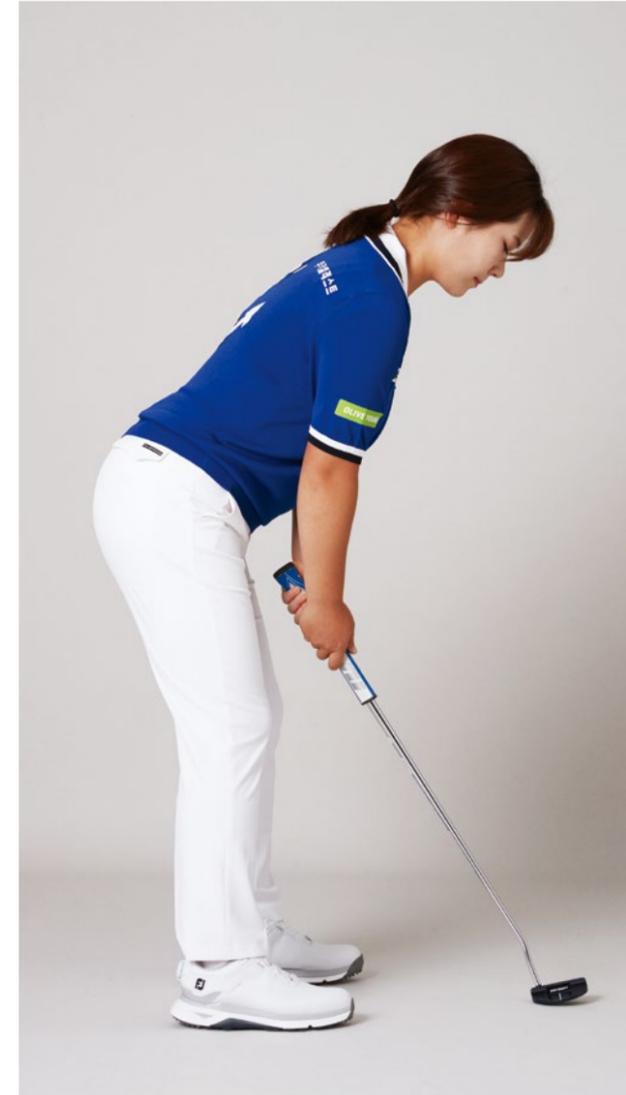
[2024년 그린 적중률]



[2025년 그린 적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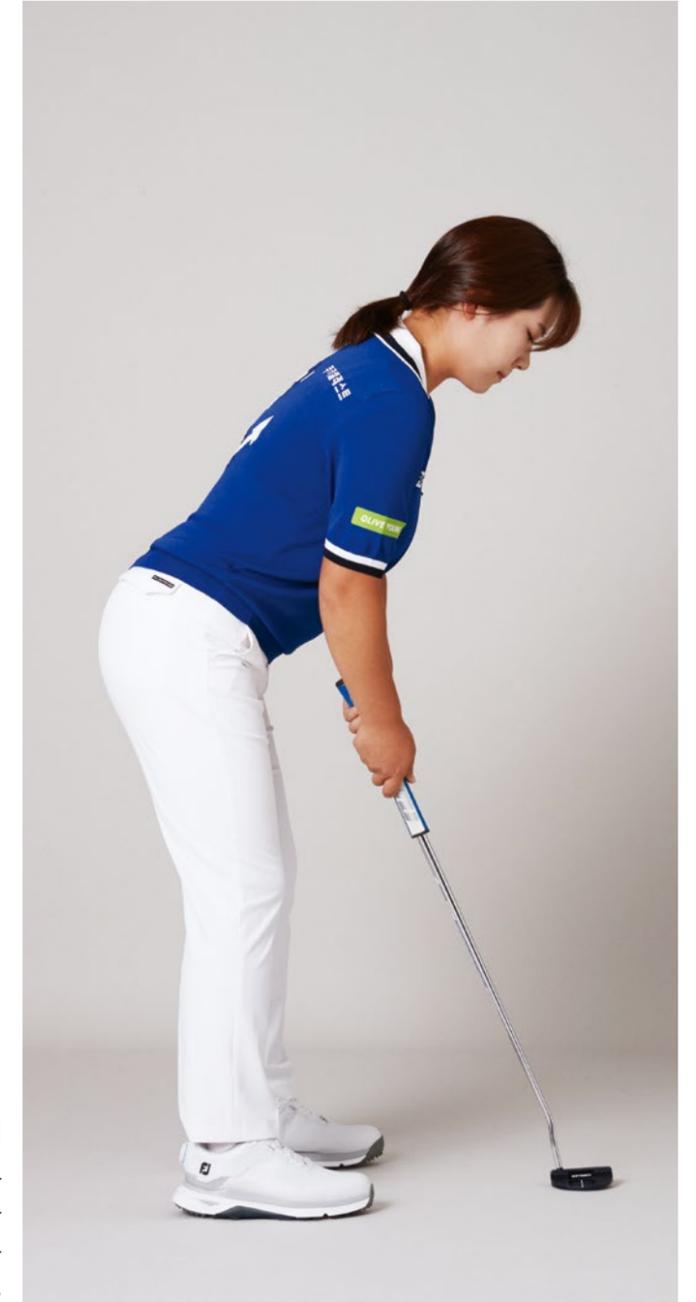


PUTTING



BEFORE 손목을 사용하는 퍼터 그립

그동안 홍정민은 비교적 손목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퍼터 그립을 사용해왔다. 손목의 유연함을 활용한 감각적인 스트로크는 때로 절묘한 거리감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컨디션에 따라 기복이 생긴다는 단점도 있었다.



AFTER 손목 고정형 퍼터 그립

기복을 줄이고 퍼트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홍정민은 손목을 최대한 고정하는 형태로 그립을 바꿨다. 그립감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팔 전체가 스트로크에 관여하도록 바꿨고, 손목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형태로 세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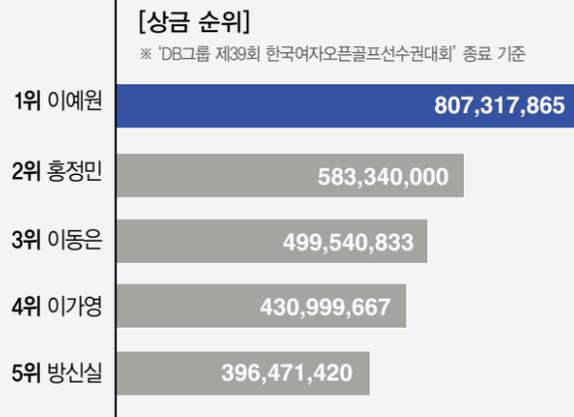


이예원

홍정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는 2025시즌 KLPGA투어 상반기

선수들의 상반기 활약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알아보았다. KLPGA 데이터 센터의 수치를 통해 선수들의
활약상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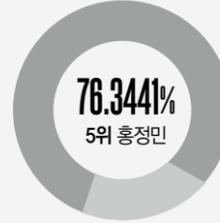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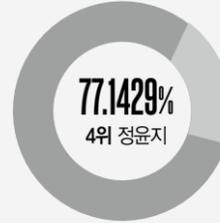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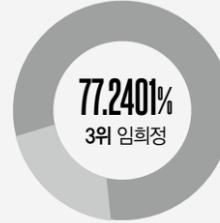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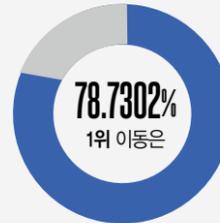


2025시즌 KLPGA투어가 중반을 향해 가는 가운데 신예와 베테랑의 경쟁이 함께 어우러지며 다채로운 우승자들이 탄생했다.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부터 'DB그룹 제39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까지 총 12개 대회에서 10명의 우승자가 탄생했다.

이 중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는 이예원이다. 이예원은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202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제17회 두산 매치플레이'에서 우승을 거두며 시즌 3승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평균 타수(70.0294타) 1위, 60타대 라운드 획득률(47.0588%) 1위, 톱텐 피니시율(63.6364%) 1위에 올랐다. 또한 상금과 대상포인트 모두 1위를 지키며 전 부문 독보적 존재감을 과시했다. 'DB그룹 제39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상금 1170만 원을 보태며 시즌 상금도 8억731만 7865원으로 8억 원을 넘어섰다.

다음으로 박현경은 '제13회 E1 채리티 오픈'에서 시즌 첫 승을 노보기 플레이로 달성하며 통산 8승 고지를 찍었다. 우승 상금 1억8000만 원 전액을 기부해 화제를 모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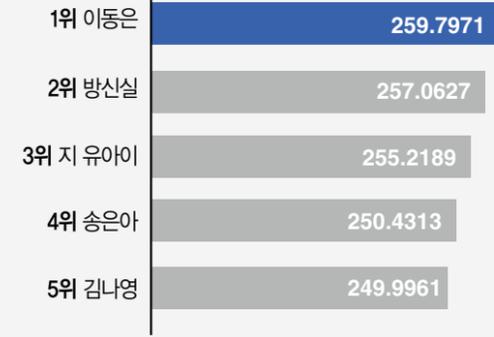
[그린 적중률]



※ 'DB그룹 제39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종료 기준

[드라이브 거리]

※ 'DB그룹 제39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종료 기준



고, 이 대회의 노보기 우승은 KLPGA투어 역대 12번째 기록이다. 박현경은 상금 7위, 대상포인트 2위(246점)를 기록했으며 평균 타수 4위(70.4722), 톱텐 피니시율 4위(54.5455%)로 고른 활약을 펼쳤다.

홍정민은 '크리에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에서 메이저 우승을 따내며 이번 상반기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하나다. 상금 순위 2위를 기록 중이며, 대상포인트 3위(226점), 평균 버디 4.0000로 3위, 파4 평균 버디율 20.9677%로 역시 2위에 올라 있다.

신인 돌풍의 중심에 선 이동은은 'DB그룹 제39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생애 첫 메이저 우승을 이뤄냈다. 이동은은 평균 드라이브 거리 259.7971야드, 그린 적중률 78.7302%로 각각 시즌 1위를 기록하며 장타와 정교함을 모두 보여줬다.

장타 경쟁도 매우 치열했다. 이동은(259.7971야드), 방신실(257.0627야드), 지유아이(255.2189야드)가 드라이브 거리 1~3위를 차지하며 막강 장타력을 자랑했다.

그린 적중률 부문에서는 이동은(78.7302%), 서교림(77.5926%), 임희정(77.2401%)이 최상위 3인으로 꼽혔다.

톱텐 피니시율에서는 이예원(63.6364%), 유현조(60.0000%), 고지우(58.3333%), 박현경(54.5455%)이 상위권에 자리했다. ◆



이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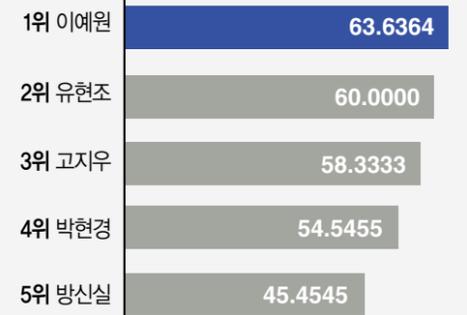


박현경



방신실

[톱텐 피니시율]



※ 'DB그룹 제39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종료 기준



숫자로 보면 더 재밌는 — KLPGA 대회 리뷰

KLPGA 선수들의 열정적인 플레이는 숫자로 쓰인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이번 상반기 대회들의 의미 있는 숫자들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았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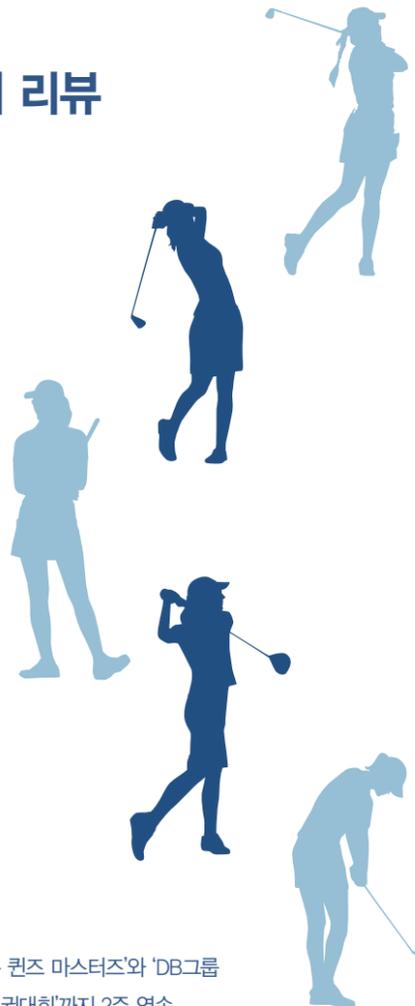
이가영이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2022, 2024시즌에 1승씩 올렸던 이가영은 11개월 만에 우승을 추가해 감격을 누렸다. 대회 첫날부터 사흘 내내 선두를 달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한 이가영은 한진선, 김시현과 함께 연장전을 벌였지만 연장 두 번째 홀인 18번 홀에서 버디를 잡으며 승리를 확정했다.

2

루키 김시현이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와 'DB그룹 제39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까지 2주 연속 준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내며 신인왕 경쟁에서도 단독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주간 신인왕 포인트 390점을 적립하며 누적 합계 745포인트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위에는 서지은이 516포인트, 3위 송은아가 473포인트, 4위 정지효 459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경쟁자들과 제법 큰 포인트 격차를 벌리며 생애 첫 신인왕에 다가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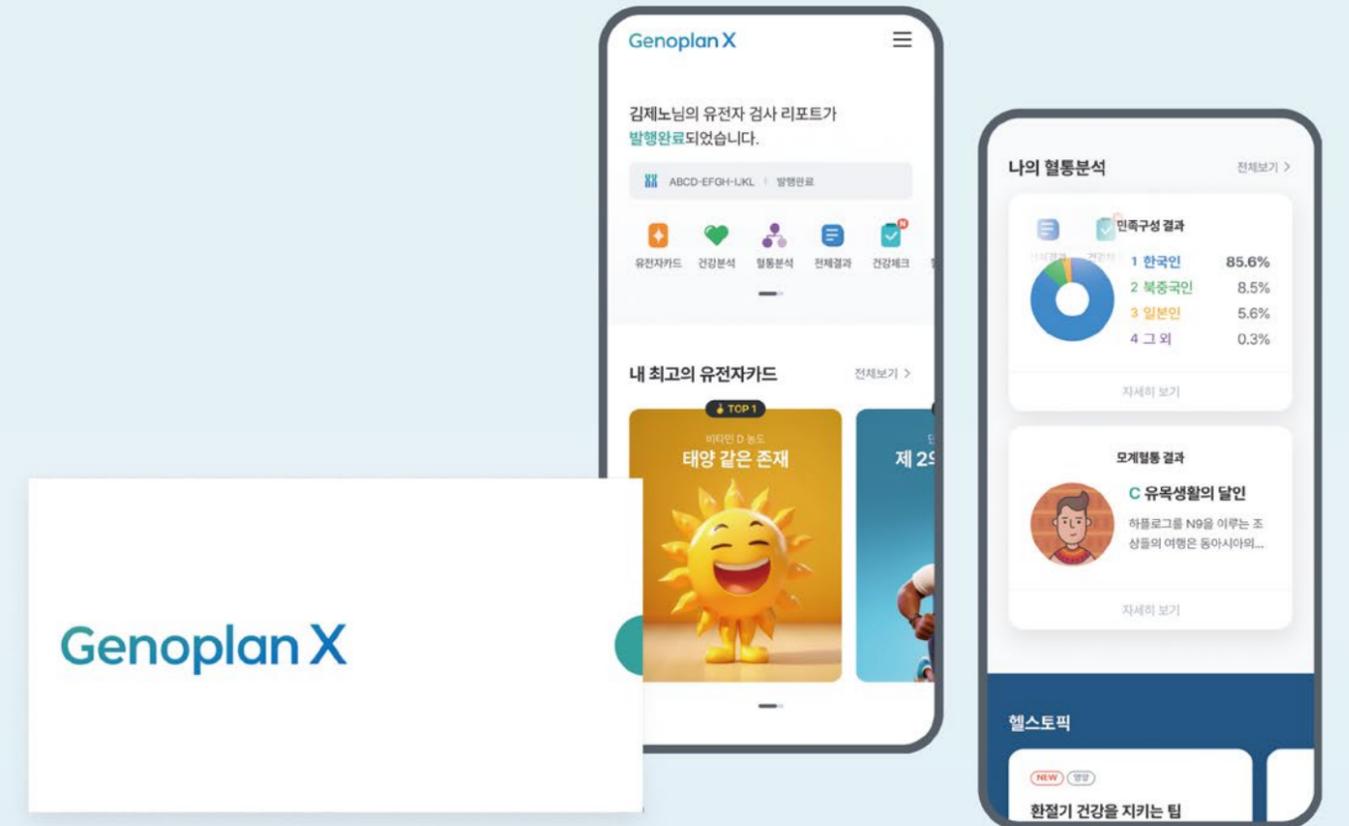
4.5

정윤지가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2승을 달성했다. 1라운드에서 코스레코드 타이기록인 8언더파 64타를 치며 공동 선두에 오른 이후 사흘 내내 선두를 놓지 않고 달성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그동안 약점으로 여겨졌던 퍼트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꾸준히 연습해온 정윤지는 이번 대회에서 달라진 실력을 보여주었다. 공동 선두로 나섰던 마지막 18번 홀에서 4.5m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었다.



유전자로 시작하는 건강관리

제노플랜엑스 유전자 검사



이런 분들에게 유전자검사를 추천합니다.

- 🍷 내 체질에 꼭 필요한 영양제는 무엇일까?
- 👴 어른이 되어서도 왜 계속 여드름이 생기는걸까?
- 🏊 어떤 운동이 나에게 잘 맞을까?
- 👴 할아버지가 탈모인데, 혹시 나도 탈모가 생길까?
- ☕ 낮에 유난히 졸린데 나는 저녁형 인간인걸까?
- ☕ 나는 커피를 많이 마셔도 괜찮은 체질일까?



제노플랜엑스
x.genoplan.co.kr

1,000,000,000

'제13회 티 캐리티 오픈'의 총상금이 1억 원 증액되어 10억 원으로 총상금을 확정하며 10억 원 이상 대회 대열에 합류했다. 이번 '티 캐리티 오픈'의 상금이 늘어나면서 2025시즌 KLPGA투어 총상금 규모는 약 328억 원이 되었다. 총상금 10억 원 대회에 합류한 '제13회 티 캐리티 오픈'은 지난 시즌 배소현이 153전 154기로 우승해 감동의 드라마를 써낸 대회였다. KLPGA투어의 대표 캐리티 대회로 자선기금 모금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최민경이 '2025 셸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최종라운드에서 홀인원을 기록했다. 이번 홀인원은 최민경의 KLPGA투어 첫 홀인원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최민경은 "홀인원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선물처럼 찾아왔다. 이번엔 부상까지 함께해 더욱 특별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부상으로는 KLPGA 공식 자동차 및 홀인원 파트너인 HS효성더클래스가 제공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E 200 AVANTGARDE'가 주어졌다. 최민경은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 15번 홀에서 9번 아이언으로 티샷해 홀인원을 성공시켰다. 이번 홀인원은 전날 대회 첫 홀인원을 최혜원이 기록한 데 이어 이번 대회 2호 홀인원이자 이번 시즌 KLPGA투어에서 나온 5호 홀인원이다.

259.7971

KLPGA투어에 새로운 장타 여왕이 탄생할까? 투어 2년 차인 이동은은 2024시즌 방신실, 윤이나에 이어 장타 3위에 올랐었다. 이번 시즌에는 현재까지 방신실 대신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 259.7971야드(약 237m)로 당당히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동은은 42번째 출전 대회였던 'DB그룹 제39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생애 첫 승리를 기록했다. 장타자답게 드라이버로 멀리 보내고 쇼트 아이언으로 그린을 공략하는 전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퍼트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우승에 성공할 수 있었다. ◆



국내 최고의 와인 서비스 회사

B2B 와인 선물의 선두 주자!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담당자 명함을 바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성기! 첫 우승 이후 꾸준히 상승세인 선수들

첫 우승은 선수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다.

지난 동계훈련의 결과가 증명됨과 동시에 오랜 시간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해온 결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시즌 소중한 첫 승을 거둔 이후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보았다.

글 · 신정희 | 사진 · 임한수



PROFILE | 김민주

생년월일 2002년 9월 28일 입회 연도 2020년 11월

iM금융오픈 2025 우승

덕신 EPC 챔피언십 공동 7위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5 공동 6위

202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공동 10위

'iM금융오픈 2025' 생애 첫 승

김민주

KLPGA투어 2025시즌 신설 대회인 'iM금융오픈 2025'에서 우승했는데요. 주변에서 축하 인사가 많았어요. 지인분들이 "네가 해낼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축하 인사를 많이 해주셨어요.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연락을 많이 받느라 저보다 더 바쁘셨어요(웃음). 최종라운드에서 초속 9m 강풍 속에서도 5언더파를 기록했는데, 이런 악조건에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나요?

그동안 바람이 많이 불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 성적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바람 때문에 멘털이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교과서 같은 말이긴 하지만, 날씨가 안 좋을수록 '샷'에만 더욱 집중해서 플레이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때보다 매 홀의 한 샷에만 집중하며 경기에 임했어요. 사실 경기를 할 때 생각이 많은 편인데 이번에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고 마음을 비우며 집중했고, 그게 잘 통했어요.

첫 우승임에도 차분하게 소감을 전했는데, 스피치 수업을 따로 들었다고 하던데요?

우승을 하게 되면 멋지고 침착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어서 스피치 수업을 받고 연습했어요. 마지막 홀을 끝내고 우승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평평 울었는데, 막상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저도 나중에 방송을 보니 신기할 정도였죠.

최종라운드 전반 9개 홀에서만 4타를 줄였고, 9번 홀에서는 티샷이 나무를 맞는 위기도 있었는데요. 당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9번 홀에서 티샷이 나무에 맞은 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어요. 9번 홀 이전까지 경기가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싶었거든요. 경기마다 고비가 한 번씩 찾아오는데 이 홀이 바로 고비구나, 하고 예감했죠. 파로 잘 마무리해보자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어프로치 샷이 운이 좋게도 홀에 들어가며 버디를 했어요. 정말 짜릿했던 순간이었어요.

이번 우승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이언샷이 좋았고, 저번 대회에서 퍼터를 바꾼 게 잘 맞았어요. 그동안 퍼트가 잘 되지 않아 퍼터를 바꾸면 도움이 될 것 같았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새로운 퍼터에 익숙해지기 위해 연습도 많이 하고 준비를 꾸준히 했어요.



시즌 초반부터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애 첫 우승도 하고, 성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니 주변에서 어떤 준비를 했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제 골프가 달라진 점은 크게 없다고 봐요. 전체적인 퍼포먼스 부분에서 안정감이 더 생겼을 뿐이죠. 그동안 꾸준히 노력했던 것들이 나온 성과라고 생각해요.

지난 동계훈련에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했나요?

2025시즌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지난 동계훈련에서 진짜 많은 훈련을 했어요. 연습량이 일단 많은 편이었는데요. 주로 샷이나 스윙 연습을 많이 했고, 퍼트 연습도 잠들기 전까지 계속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던 부분이 이번 시즌 시작하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개인 시간은 어떻게 보내나요?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라 교회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요즘에는 레고에 푹 빠졌어요. 레고를 구입해서 집에 가져오는 순간부터 벌써 행복해요. 레고를 만드는 내내 몰입하는 재미도 있고, 하나를 완성해내는 뿌듯함이 엄청 커요. 지난번에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오두막'을 완성했고, 지금은 '파리 노트르담'을 만들고 있어요. 한 번 레고를 조립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머니가 제발 그만하고 쉬라며 말릴 정도예요.

이번 시즌 목표를 들려준다면요.

올해 우승이 첫 번째 목표였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뤄서 목표를 수정했어요. 이제 메이저대회에서 우승을 해보고 싶어요. 기회가 올 때 우승을 한 번 더 할 수 있기를 바라구요. 시즌 초반에는 톱텐 안에 드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톱파이프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



드림투어 시즌 3승의 쾌거
황유나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3차전’ 최종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기록하며 시즌 두 번째 승리를 거두었어요. 비결이 무엇인가요?

이번 대회에서는 어프로치를 띄우기보다는 52도 웨지로 굴리는 전략을 세웠는데, 이 방법이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중장거리 퍼트 감각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당일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경기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최종라운드 때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큰 실수 없이 마무리하자’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경기에 임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날 어머니와 “날씨 때문에 경기가 중단되더라도 준비한 대로 하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고 다짐했어요. 경기 중에는 스코어를 최대한 지키는 데 집중하며 위기 상황에서는 잘 막아냈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버디를 많이 잡아내면서 우승할 수 있었죠.

바로 전주에 열렸던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2차전’에서는 4차 연장 끝에 준우승을 했는데요. 아쉬움이 컸을 것 같아요.

1라운드를 6연더파로 마치며 선두에 올랐지만, 2라운드에서는 티샷이 흔들려 타수를 줄이지 못했어요. 결국 연장까지 가게 됐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연장 상대였던 김민솔 선수가 잘해서 가져간 우승이니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이번 우승 인터뷰에서 티샷 보원을 위해 신경 썼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했나요?

드라이버샷을 할 때 거리를 더 내기 위해 스피드를 의식하다 보면, 다운스윙에서 좋지 않은 습관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코치님과 함께 교정하면서 안정적인 티샷을 구사할 수 있도록 훈련했어요.



PROFILE | 황유나

- 생년월일 2003년 10월 30일 입회 연도 2022년 5월
- KLPGA 2025 드림투어 인도네시아 여자오픈 우승
-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3차전 우승
- KLPGA 2025 휘닉스CC 드림투어 7차전 우승
- KLPGA 2025 무안CC·울포유 드림투어 2차전 공동 2위
-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6차전 공동 4위

이번 시즌을 준비하며 전지훈련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었고, 실제 경기에서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지난 비시즌 동안 체력 훈련을 고강도와 저강도, 러닝 등을 병행해 세분화해서 진행했어요.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훈련과 샷의 기본기를 다지는 데 집중했고요. 특히 다운스윙 부분을 보완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이 부분이 최근 경기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아직 부족한 점도 있지만, 계속 노력 중이에요.

‘KLPGA 2025 드림투어 인도네시아 여자오픈’에서 2차 연장 끝에 역전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개막전이자 해외에서 처음 열린 KLPGA 드림투어 대회라 더욱 의미 있었을 것 같아요.

해외 대회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시즌 첫 우승을 거둘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대회였어요. 동계훈련 기간 동안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과 함께 이뤄낸 결과라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세기P&C 이봉훈 회장님, 프로님, 트레이너 선생님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막전이 끝나고 나서 우승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회원이 되기 전까지 점프투어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었어요. 다른 선배들의 우승을 보면서 ‘나도 우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정한 노력에는 성과가 따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플레이에 최선을 다했고, 배운 대로 해야 할 것에만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연습했던 부분이 대회에서 잘 나왔던 것 같아 제 자신을 칭찬해주려고 했어요. 개막전 긴장감을 잘 이겨내 보상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시즌 3승 중 2승이 모두 연장 접전 끝에 탄생했어요. 긴장감이 상당했을 텐데요.

시즌 개막전인 인도네시아 대회의 연장전이 저에게 큰 경험이 되었어요. 마지막까지 집중하고 힘을 쏟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걸 배웠고, 이 경험이 국내 대회에서도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벌써 시즌 3승을 거두며 큰 성과를 이루셨는데요.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잡고 있나요?

상반기에 좋은 성적을 내면서 저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위치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더욱 긴장감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어요. 아직 많은 대회가 남아 있고, 목표도 높기 때문에 항상 같은 루틴을 유지하며 훈련하고 있어요. 결과에 너무 들뜨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고, 대회 중에는 긴장과 집중을 유지하는 편이에요. 부모님도 항상 옆에서 마음을 잘 잡아주시고요. 최종 목표는 정규투어에서 우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점프투어 시즌 2승 달성
이다빈

‘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2차전’에서 첫 승을 거두었는데요. 우승 소감이 어땠나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우승을 정말 하고 싶었지만, 막상 하고 나니 얼떨떨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승을 확정하고 나니 부담감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이 떠오르면서 울컥하기도 했어요.

‘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2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3차전에서 2위, 그리고 4차전에서 다시 한 번 정상에 오르며 최근 세 대회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두 번째 우승은 예상했나요?

최종라운드 16번 홀에서 버디 퍼트를 넣고 ‘오늘 잘하면 우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씨가 좋지 않아서 경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치려고 했어요. ‘이미 우승도 한 번 했고, 준우승도 했으니 지금도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시즌 2승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특별한 비결은 없지만, 전지훈련에서 샷 위주로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샷의 완성도도 좋아졌고, 퍼트감도 잘 유지되고 있어요. 잘 치는 날에도 절대 들뜨지 않으려고 해요. 엄마에게도 ‘오늘 잘 쳤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할 정도예요. 한 경기에서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멘탈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늘 노력해요.

퍼트 연습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훈련했는지 궁금해요.

원래 퍼트를 못하는 편은 아닌데요. 백제CC 그린이 워낙 까다로워서 더 집중해서 준비했어요. 매일 미션을 정해놓고 반복 훈련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1m 거리 퍼트를 하루에 100개, 2m 퍼트는 30개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훈련을 한 덕분에 다양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퍼트를 할 수 있었어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극복하나요?

최대한 생각을 비우려고 해요. 예전에 지인이 ‘경기가 잘 안 풀릴 때는 너무 몰입하면 머리만 더 복잡해진다. 그럴 땐 하늘 한번 보고, 땅을 한번 보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하늘 한번 쳐다보면 마음속 답답했던 것도 조금은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선수로서 본인의 강점과 보완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경기 중에 침착함을 잘 유지하는 편이라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불안감이 크고, 걱정이 많은 편인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하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롤모델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딱 정해진 롤모델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규투어를 볼 때 ‘이런 스타일은 나도 배워야겠다’ 싶은 선수가 있어요. 저랑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한 선수들인데, 방향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타수를 잃지 않는 플레이를 하는 이예원 선수나 서어진 선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요.

전지훈련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나요?

미국으로 약 50일간 전지훈련을 다녀왔어요. 매일 아침 러닝으로 체력 훈련을 하고, 샷과 퍼트 연습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훈련하는 동안 간식을 많이 먹어서 4kg 정도 살이 찘는 데요. 덕분에 비거리가 늘었다고요. (웃음) 비거리가 늘어서 그런지, 이제는 살을 빼기가 좀 아쉬워요.

연습 루틴은 어떻게 되세요? 연습량이 많은 편인가요?

보통 아침 7시부터 아카데미에 가서 오후 6시까지 연습을 하는데, 다른 선수들보다 연습량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집중력이 좋은 편이에요. 어드레스를 하려고 서는 순간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고 공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런 집중력은 경기 때 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첫 우승 당시 ‘시즌 2승이 목표’라고 했는데 벌써 이뤘어요. 이제 새로운 목표는 무엇인가요?

사실 시즌 2승은 막연한 목표였어요. 가능할까 싶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이뤄서 신기해요. 이제는 드림투어에 올라가 빠르게 우승하는 게 새로운 목표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규투어에서도 우승하고, 실력뿐 아니라 인성까지 갖춘 선수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꿈이에요. ◆



PROFILE | 이다빈

생년월일 2006년 7월 21일 입회 연도 2025년 4월
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2차전 우승
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4차전 우승
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3차전 2위

한국 선수의 해외 진출과 KLPGA의 국제화

KLPGA 선수들에게 해외 투어 경험은 자신의 보완할 점을 찾고 기량을 발전시키는 자양분이 된다. 또한 이러한 선수들의 다양한 경험은 KLPGA의 발전과 국제화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 있어서 2024년은 누가 뭐래도 윤이나의 해였다. 대상과 상금왕, 최저타수상까지 3개 부문을 휩쓸었다. 2022년 다른 대회도 아닌 한국여자오픈에서 벌어진 '오구(誤球) 플레이(자신의 것이 아닌 공을 치는 행위)'로 인한 징계에서 벗어난 뒤 화려한 부활을 알린 해였다.

한국 무대를 평정한 윤이나가 2025년을 맞아 더 높은 무대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도전 의사를 밝혔을 때 다들 격려해줬다. 윤이나도 미국 무대 진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매 대회 최선을 다한다면 우승이든 신인왕이든 타이틀도 오지 않을까 싶다"라며 "장기적으로 세계 1위,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싶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목표를 정하는 모습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아름답다. 윤이나의 소망도 그런 면에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미국 무대에 진출한 윤이나의 성적은 어떨까. 어렵지만 윤이나는 지금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데뷔전이었던 2월 파운더스컵에서 컷 탈락의 수모를 당했고 출전하는 대회마다 톱텐은 고사하고 10위권 근처에도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16위에 이어 최근 끝난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서 고진영과 함께 공동 14위에 올라 미국 무대 진출 후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윤이나 개인으로서는 만족할 리 없는 성적이었다.

윤이나가 미국 무대에서 고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비거리는 한국에서 2024년 257.95야드로 방신실에 이어 2위였다. 윤이나는 미국에서도 평균 275.21야드로 19위에 올라 결코 뒤처진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부족한 것은 그린 적중률이었다. 국내에서 77.64%로 3위였지만 미국에서는 68.52%로 77위에 불과했다.

드라이버샷을 잘 치더라도 그린 주변에 올리지 못하니 당연히 성적이 좋을 리 없다. 올 시즌 신인왕 경쟁에서도 치고 나오는 일본 선수와 달리 아직까지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LPGA 신인왕 포인트를 얻은 18명 중 10위에 그쳤다.

KLPGA와 LPGA는 상호보완적 관계

그렇다면 윤이나의 도전은 실패한 것일까? 윤이나는 국내 무대를 씹어 먹고 이제 더 큰 무대를 경험했을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 경쟁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아직 좌절하기엔 이르다. KLPGA는 내년부터 국내에서 열리는 LPGA투어 대회를 LPGA와 공동 주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과 같은 방식이다. 해외 투어에 다소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고 KLPGA투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LPGA투어가 국내에서 열린다면 최대한 협력해 국내 선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KLPGA와 LPGA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자골프의 발전을 이끌어왔다. KLPGA에서 성공을 거둔 뒤 LPGA에 진출해 성공한 사례는 너무도 많다. 국내 선수가 LPGA 무대에 진출해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 당장 윤이나에 이어 내년에는 황유민이 미국 무대 진출을 생각하고 있다. 비록 지금 윤이나가 고전하고 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계속하고 있다.

선수들의 해외 투어 경험과 KLPGA 국제화

최근 열린 US여자오픈에는 KLPGA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소현과 황유민, 김수지, 노승희, 마다숨, 유현조 등 6명의 선수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은 아주 혹독한 시험을 치렀다. 유현조(공동 36위)와 황유



민(공동 56위)은 1차 목표인 컷 통과를 이루며 메이저대회의 까다로운 코스 설계를 제대로 맞았다. 마다숨과 노승희, 배소현, 김수지는 156명 중 60명이 통과한 본선에 나가지 못했다. 배소현과 김수지는 초반부터 고전했고 마다숨과 노승희는 딱 1타가 모자라 아쉽게 컷 탈락했다.

이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좀 더 높은 수준의 선수들과 부딪혀 자신의 보완할 점을 찾고 기량을 발전시켜야겠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 점은 바로 선수들의 기량 발전에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국내 무대 흥행이 더 중요하다고 외면하기보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 격려해야 할 무대다. 배소현은 US여자오픈 대회 출전에 앞서 "모든 게 처음이다 보니 설레는 마음이 크다"라면서도 "30대라는 나이에 갇히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지난해 3승을 거두며 공동 다승왕에 오른 배소현이었지만 큰 무대에서 여러 선수와의 경쟁은 두렵고 설레기만 한다. 최근 국내 무대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박현경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2025시즌 메이저대회인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파스컵'에서 공동 8위에 올라 프로 데뷔 후 첫 일본 원정을 성공리에 마쳤다. 그는 일본에서 느낀 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해외 메이저대회에 다녀오면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한 단계 성장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며 "국내도 메이저대회 그린스피드가 빠르지만 국내와는 다른 면으로 상당히 빨라서 놀랐다. 그런 점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회 일정 등 여건이 허락한다면 일본 무대에 한 번 더 나가서 경험해보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다.

윤이나나 배소현, 황유민, 박현경 등의 사례를 보면 결국 다양한 경험이 선수의 발전은 물론 KLPGA의 발전과도 깊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KLPGA의 국제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

글쓴이 | 이재훈
(서울신문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B L U E

시원한 열정, 푸른 도전의 물결

2025년 여름의 정점에 접어든 지금, KLPGA의 필드 위에는 시원하고 강인한 블루의 기운이 감돈다. 선수들은 본격적인 시즌 중반을 지나며 더욱 단단해지고, 무더운 열기 속에서도 오히려 뜨거운 집중력으로 차가운 승부를 만들어간다.

이번 특집은 '블루'를 테마 컬러로 선정했다. 블루는 푸른 하늘과 깊은 바다처럼 시원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며, 냉정한 판단력과 뛰어난 집중력을 상징한다. 동시에, 깊은 푸른색은 성공과 능력, 신뢰의 색이기도 하다. 강인한 정신력과 침착한 플레이는 바로 이 블루 컬러에서 비롯된 이미지다.

뿐만 아니라 '이열치열'이라는 말처럼, 뜨거운 여름에도 시원한 블루의 기운은 되려 강한 에너지를 이끌어낸다. 여름의 푸른 하늘을 마주하며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과 도전을 엿볼 수 있다.

KLPGA 필드를 가득 메운 블루의 물결은 단지 색이 아닌, 선수들이 지닌 강인함과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성공을 향한 도약의 상징이 된다. 이 시원한 도전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라운 여름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

Cool Under Fire

As we reach the height of summer in 2025, the fields of the KLPGA are awash in the cool and powerful energy of blue. With the season well underway, players have grown stronger, more focused, and more composed—transforming the heat of competition into moments of intense clarity and fierce determination.

This edition's special theme color is blue. Just like the open sky or the deep ocean, blue brings a sense of calm and freshness. But beyond serenity, it also symbolizes sharp judgment, deep focus, and unwavering discipline. Darker shades of blue represent success, competence, and trust—qualities that mirror the mental resilience and steady play of KLPGA athletes.

And just as the Korean saying 'fight fire with fire' suggests, this cool hue channels powerful energy even in the scorching summer heat. As players gaze up at the blue summer sky, they find renewed resolve and fresh motivation to push forward.

The wave of blue flowing across KLPGA courses isn't just a color—it's a symbol of strength, potential, and a bold leap toward new victories. In this refreshing wave of challenge and passion, we're about to witness another unforgettable summer. ◆



한여름 무더위는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경기장의 선수들에게는 더욱 힘든 환경이다. 그러나 고지우는 여름이 되면 더욱 플레이가 살아나는 특별함을 지니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만큼 더욱 기대를 모으게 한다.

KO JIU



PROFILE | 고지우

생년월일 2002년 8월 16일
 입회 연도 2021년 4월
 2024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4 우승
 2025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 2위
 2025 제17회 두산 매치플레이 공동 5위
 2025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5 공동 6위

01

Special Theme Interview

더위가 나를 살린다 ‘여름이 나의 체질’ __ 고지우

한여름에 태어나 운명처럼 잘 맞는 여름 체질

6월, KPGA투어에서 펼쳐지는 경쟁이 더욱 뜨거워져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 돌입한다. 강렬한 햇볕, 더위와의 싸움 속에서 체력과 집중력이 선수들의 성적을 좌우한다. 하지만 어떤 선수에게는 이 계절이 오히려 최고의 무기가 되기도 한다. ‘여름 체질’이라는 별칭이 아깝지 않은 고지우는 여름 시즌이 다가올수록 더 강해진다.

“여름에 태어나서 그런지 정말 잘 맞아요. 몸이 더워질수록 공이 더 잘 맞고, 거리도 더 나가고요. 남들에겐 지옥 같은 날씨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편하고 집중도 더 잘돼요.”

올 시즌 고지우는 KPGA투어 4년 차를 맞아 초반부터 맹렬한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시즌 12개 대회에 출전해 준우승 1회, 토탈 7회를 기록하며 상금 순위 9위와 대상포인트 7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아직 우승은 없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꾸준함’이다. 많은 선수들이 체력 부담과 멘탈 기록에 시달리는 시즌 초반, 고지우는 누구보다 강한 집중력과 체력을 보여주며 존재감을 입증했다.

그 기세는 여름을 맞아 더욱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지우의 생애 첫 우승이었던 2023시즌 ‘맥클·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는 6월 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때 이뤄낸 결과였다. 두 번째 우승이었던 2024시즌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4’ 역시 7월 11일 한여름에 열렸다.

“6월 말부터 컨디션이 확실히 올라와요. 올해도 그때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우승을 노려볼 생각이예요. 처음 우승했던 ‘맥클·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가 또 열리기도 하고요. 좋은 기억이 있는 만큼 그 대회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저한 자기관리와 ‘고지우표’ 공격적인 플레이로 새 시즌 공략

고지우의 여름 강세에는 체질적인 요소뿐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도 한몫한다. 평소 식단부터 훈련까지 그 어떤 선수보다 엄격한 기준을 지키는 것으로 평평이 나 있다. 편식은 물론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은 거의 입에 대지 않으며, 라면은 1년에 한 번, 햄버거는 ‘정말 특별한 날’에만 먹는다. 술도 연 1회 이하로 제한할 만큼 자기관리에선 단연 독보적이다.

“어릴 때부터 체력적인 부분을 신경 썼던 게 지금 와서 큰 도움이 됐어요. 중학생 시절부터 가족들이 치킨, 피자 먹을 때도 저 혼자 샐러드를 챙겨 먹곤 했거든요. 그냥 본능적으로 몸에 좋은 걸 찾았어요.”

이러한 철저한 자기관리는 경기력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한다. 2025시즌을 준비하는 전지훈련 기간에는 샷 교정, 드라이버와 벙커샷 강화에 집중했고, 멘탈 코칭도 병행했다. 특히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인해 자주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지난 시즌과는 달리, 올해는 ‘실수도 받아들이는 여유’를 새롭게 배웠다.

“예전엔 실수 하나에도 쉽게 무너졌어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스스로를 갇아먹는 느낌이었죠. 올해는 ‘그냥 웃자,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경기장에 나가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좋은 흐름을 만들더라고요.”

이러한 변화는 경기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시즌 개막전이었던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는 1라운드와 4라운드에서 코스레코드를 타이 기록을 두 번이나 써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고, 최종라운드 17, 18번 홀 연속 버디로 박보

겸을 끝까지 추격해 아쉽게도 의미 있는 준우승을 거뒀다. “그 당시에는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많이 아쉬워요. 하루 정말 못 친 날도 있었는데, 다음 날 만회한 건 큰 자신감이 됐어요.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버디 폭격기’라는 별명처럼 공격적인 스타일이 장점인 고지우는 지난해에는 실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올해는 다시 본인의 스타일로 돌아왔다.

“공격적인 스타일이 저에게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걸 억제하려다 장점까지 사라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 식대로 하자’고 마음먹었어요.”

지금 이 순간, 고지우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조금씩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 더위에 강한 체질, 철저한 자기관리, 그리고 자기 수용의 태도까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예전에는 경기가 끝나도 계속 결과에 대해 생각하면서 잠도 잘 못 잤어요. 요즘엔 명상을 하고, 일기도 쓰고, 제 자신한테 칭찬도 해 줘요. 너무 몰아붙이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려고 해요.”

이제 여름이다. 고지우에게 가장 어울리는 계절이 돌아왔다. 본격적인 우승 사냥을 예고한 그녀의 한 방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



SEO UH JIN

서어진은 '여름에 강한 선수'로 통한다. 실제로 지난 2024시즌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6월부터 8월까지 3차례 톱텐에 진입했고, 특히 8월 열린 '더헤븐 마스터즈'에서는 연장전 끝에 공동 2위를 기록하며 눈길을 끌었다. 더위에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집중력이 더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름이면 더 빛나는
선수, 서어진

여름은 '기회', 그리고 '도전'

서어진은 여름철 경기력이 좋은 비결로 '자주, 조금씩 수분을 섭취하는 습관'을 꼽았다.

"많은 선수들이 더울 때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거나 얼음을 몸에 대곤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몸을 더 늘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자주, 소량씩 물을 섭취하고, 너무 차가운 건 피하려고 해요. 갑작스럽게 체온을 낮추면 오히려 컨디션이 떨어지더라고요."

햇빛을 최대한 피하는 것도 필수다. 항상 양산을 휴대하고, 경기 중 그늘을 찾아 움직인다. 체력 관리도 철저하다. 작년 여름에는 흑염소즙을 챙겨 먹었고 올해는 녹용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 여름엔 입맛이 없고, 억지로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식사를 하며 관리한다. 이런 섬세한 루틴이 쌓여 서어진을 여름에 더욱 강하게 만든다. 단순히 더위를 잘 견디는 체질 때문이 아니라, 더위를 이겨내는 자신만의 방식이 분명한 선수인 셈이다. "저는 여름이 좋아요. 땀도 많이 안 나고, 더위도 많이 타지 않아요. 여름은 저에게 집중력과 컨디션이 올라오는 시기죠." 2024시즌, 서어진은 8월에 열렸던 '더헤븐 마스터즈'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승부 끝에 공동 2위에 오르는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다. 특히 연장 1차전과 2차전에서 연속 두 홀 버디를 기록하며 배소현과 승부를 펼친 장면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실 그때 열사병 증세가 있어서 경기 끝나고 응급실에 다녀왔어요. 몸 상태는 정말 안 좋았는데, 이상하게 그런 날은 마음이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하는 생각이었는데, 집중이 더 잘 됐어요."

그 결과가 공동 2위라는 성적으로 돌아왔다. 한계를 넘어서면서 얻은 값진 보상이었다.

"정신력으로 버틴 경기였어요. 결과적으로 저에게 자신감을 준 경기이기도 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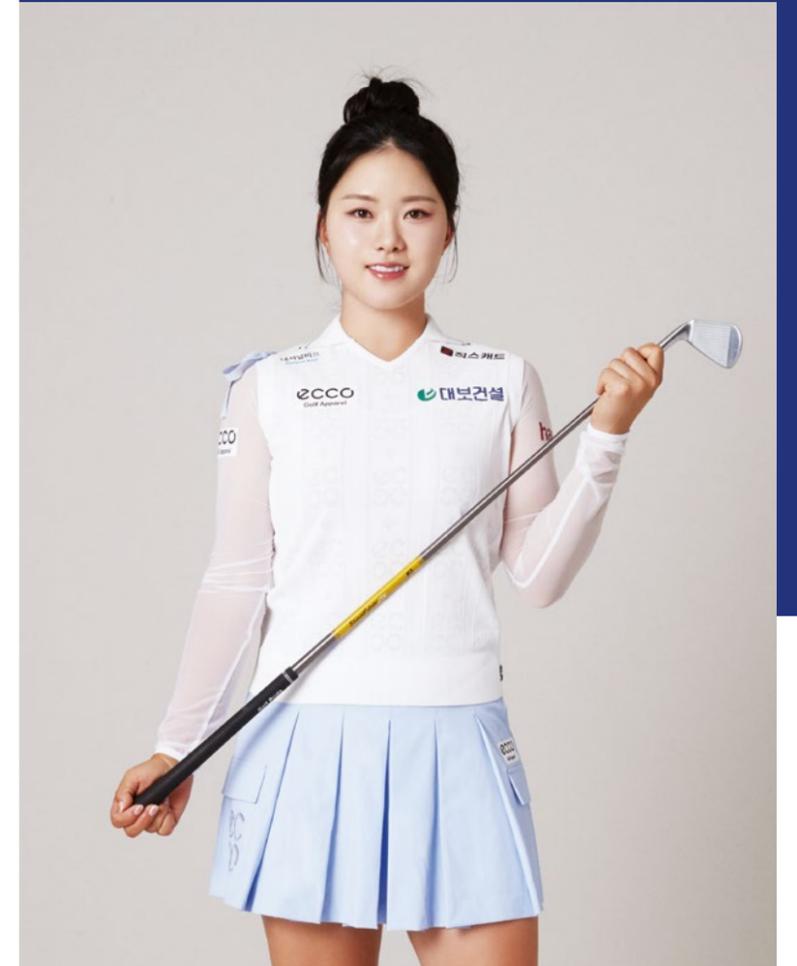
같은 해 'OK저축은행 웃맨 오픈'에서도 준우승을 기록하며 한 해에 두 번이나 우승 문턱을 넘었다. "그날도 욕심을 내려놓고, 당장 눈앞에 있는 한 샷에만 집중하자고 생각했어요. 결과는 흐름이 좋아서 따라왔고요. 그때 깨달았죠.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걸요."

올해도 '여름'을 기다리는 이유

2025년은 서어진의 KLPGA투어 4년 차 시즌이다. 작년보다 샷 감각도 좋아졌고, 코스 적응력도 훨씬 안정됐다.

"해마다 같은 코스에서 경기하다 보니 코스 공략이 편해졌어요. 시야도 넓어지고요. 초반엔 긴장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경기장에 가면 설레요. 성적보다는 플레이 그 자체가 재미있다는 생각이 커졌죠."

이제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 만큼 매 대회가 기대가 된다. "'더헤븐 마스터즈'는 아무래도 욕심이 나는 대회예요. 지난 해의 좋은 기억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매주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요. 매 대회가 기회라는 생각으로요."

이번 시즌을 준비하며 전지훈련도 단단히 했다. 웨지샷 강화를 위해 100m 안쪽 거리에서의 정교한 샷을 집중적으로 연습했고, 그린 주변 어프로치와 퍼트 완성도도 끌어올렸다.

서어진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과 골프장에 갔다. 골프에 흥미를 느끼며 시작했다. 아이스하키를 취미로 하던 어린 시절, 실내 연습장에서 하는 아이스하키보다 야외의 잔디밭에서 하는 골프의 매력이 훨씬 크게 다가왔다고 이야기한다. 선수로 본격적인 길을 걷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국가상비군, 국가대표 주장을 맡으며 국내 정상급 아마추어 선수로 인정받았다.

"그때는 한 팀으로 뭉쳐야 하는 분위기여서 주장을 맡아 보다 책임감 있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태극마크를 다는 건 운동선수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었죠."

그녀의 목표는 '기복 없는 선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첫 우승을 꼭 해내고 싶고, 그 다음에는 다승왕, 이 목표를 이루고 나면 JLPGA투어 진출도 꿈꾼다고 했다.

"늘 꾸준한 성적을 내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제 골프 인생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예요."

서어진은 말한다. 여름이 오면 자신이 더 강해진다고. 강해지기 위해 준비해온 시간들이 있었고, 그 준비의 무게만큼 스코어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더위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집중력, 그리고 담담한 태도 속에 숨겨진 단단함이 서어진을 여름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있다. ◆



PROFILE | 서어진

생년월일 2001년 11월 5일

입회 연도 2020년 6월

2024 더헤븐 마스터즈 공동 2위

2024 제11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5위

2024 OK저축은행 웃맨 오픈 공동 2위

2025 iM금융오픈 2025 11위

202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공동 14위

2025 제13회 티 챔피언 오픈 공동 13위

LIM JIN YEONG

더위도 이긴 집중력,
임진영의 새로운 도전

KLPGA투어에서 여름 시즌만 되면 유독 존재감을 드러내는 선수가 있다. 바로 임진영이다. 계절이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임진영이지만, 여름이면 확실히 기지개를 켜다.



PROFILE | 임진영

생년월일 2003년 7월 23일
입회 연도 2021년 10월
2024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 공동 7위
2024 제11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공동 10위
2024 제10회 교촌 1991 레이디스 오픈 공동 8위
2025 덕신EPC 챔피언십 2위

여름이면 더 뜨거워지는 임진영

2022시즌 KLPGA투어에 데뷔하고 2024시즌부터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임진영은 '여름에 강한 선수'라는 별칭이 무색하지 않은 성적을 기록 중이다. 2024시즌 8월 열렸던 '제13회 KG 레이디스 오픈'에서 공동 7위, 이어 열린 '제11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서는 공동 10위에 오르며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이미 2022시즌에도 8월 '대우위니아 MBN 여자오픈'에서 공동 6위를 기록하며 '여름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준 바 있다.

"시즌 초반에는 감을 찾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회를 거듭하면서 라운드도 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계속 연습하면서 데이터를 쌓아가다 보면 여름쯤엔 그 결과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사실 '덥고 힘든 여름에 성적이 왜 좋지?' 하고 스스로도 신기했는데, 그러고 보니 제 생일이 7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체질인가?' 하고 가볍게 넘긴 적도 있어요(웃음)."

덥고 습한 여름철은 선수들에게 체력적으로 가장 버거운 시기다. 하지만 임진영은 오히려 이 시기를 대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준비해왔다. 그 배경에는 철저한 체력관리와 식단 조절, 루틴이 있었다. "저는 땀도 많고, 더위에 지치는 편이에요. 2024시즌 '제11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때 정말 살인적인 더위였거든요. 그 경험이 너무 강

렬해서 올해는 체력 준비를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러닝과 웨이트를 꾸준히 병행했고, 자연스럽게 체중도 많이 줄었어요.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한 건 아닌데, 열심히 운동하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라운드 중에는 우산을 활용하고, 얼음주머니를 항상 지참하는 등 실질적인 대비도 철저하다. 무엇보다 가장 강조한 건 '수분 보충'. 단순한 팀 같지만 실제 경기를 할 때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한다. 경기 중에도 물을 자주 마시고 코스 안에서도 최대한 체온을 낮추며 컨디션을 조절한다고 밝혔다.

한 시즌을 치르며 매 대회 최선을 다하는 '한 경기 집중형'인 임진영은, 최근 여름철에 성적이 좋았다는 사실조차 뒤늦게 자각했다고 털어놨다.

"매 경기 집중해서 치다 보니 여름에 성적이 좋다는 걸 이번엔야 알았어요. 이렇게 성적을 되짚어보니까, '이번 여름도 기대해볼까?' 싶네요."

진짜 시즌은 지금부터, 상반기 아쉬움 털어낼 것

시즌 초반에는 흔들리는 감각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지훈련에서 공들였던 웨지와 퍼트가 실전에서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아 속상함이 컸다. 하지만,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5'와 '덕신EPC 챔피언십'을 거머쥐며 점차 감각을 되찾았다. 특히 '덕신EPC 챔피언십'의 준우승은 그녀의 훈련 성과를 체감한 계기였다.

"'덕신EPC 챔피언십'이 열렸던 킹스데일CC는 2021년 '정회원 선발전'에 출전해서 첫던 기억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퍼트가 특히 잘 됐고, 어디레슨만 서도 '이건 넣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있었죠."

또한 '제17회 두산 매치플레이' 2라운드에서는 배소현 선수를 상대로 팽팽한 승부 끝에 1홀 차 승리를 거두며 화제를 모았다. 당시에도 임진영은 침착한 공략과 집중력으로 승기를 가져왔다.

"훈련할 때 매주 매치플레이를 하는데, 승률이 좋아서 '매치플레이에 강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자신감이 있었고요. 첫날에는 최민경 선수에게 아쉽게 졌지만, 둘째 날엔 좀 더 집중해 경기했고, 마지막 16번 홀에서 6m 버디 퍼트로 승부를 뒤집을 수 있었어요."

그녀의 자신감은 단순히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다. 학생 때부터 이어온 일지 쓰기가 멘털 유지의 큰 기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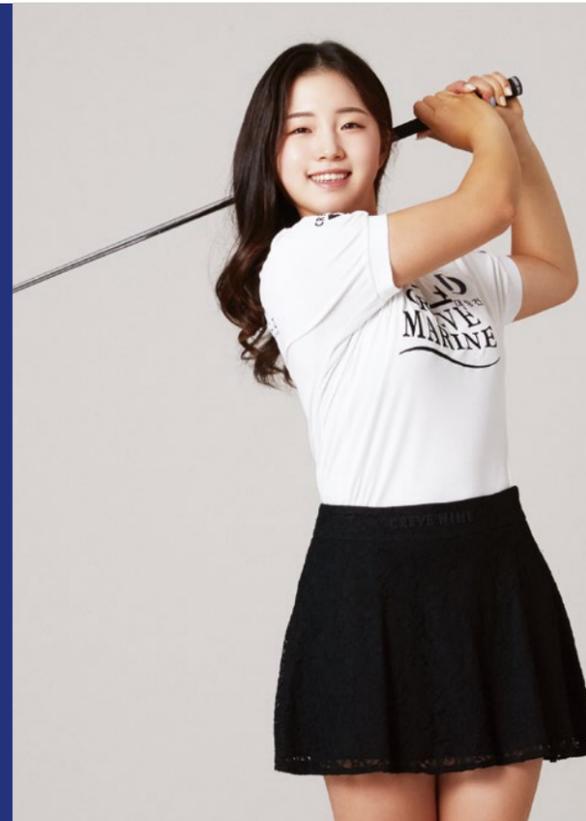
"경기 때 일지를 쓰면 미스 샷이나 좋은 샷이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는지 더 기억에 남아요. 매번 쓰진 않지만 상황을 잘 풀어나가기 위한 훈련의 일환이죠. 실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시즌이 끝난 후에는 음악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다. 지난해에는 좋아하는 밴드 'DAY6'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혼자 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콘서트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대회가 매주 있다 보니 못 갔거든요. 시즌 끝나고 훈련 일정을 체크해보니 태국 일정이 맞더라고요. 콘서트도 보고 여행도 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올해 임진영의 가장 큰 목표는 '정규투어 첫 우승'. 시즌 초 준우승이라는 값진 결과 덕분에 자신감도 붙었다. 중계를 보면서 트로피를 드는 상상이나 소감을 말하는 모습을 그려보기도 한다고 말한다. 누군가는 매주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만큼 조만간 첫 승의 순간을 맞이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한다.

여름은 체력과 집중력의 계절이다. 임진영은 땀과 훈련, 그리고 자기 믿음을 무기로 다시 한 번 더위를 이겨내려 한다. 이번 시즌, 그녀의 '여름 본능'은 또 한 번 발휘될 준비를 마쳤다. ◆



OVERCOME THE HEAT

선수들의 더위를 피하는 방법

가장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여름, 선수들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더운 날씨에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나만의 비법은 무엇인지 공개한다.



BANG SHIN SIL
방신실

여름에는 무엇보다 체온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햇빛이 강한 날씨에서는 금방 지치기 쉬운데요, 그래서 시원한 음료를 텀블러에 담아 들고 다니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얼음을 가득 넣은 텀블러에 물이나 이온음료를 담아 경기 중 틈틈이 마시고 있는데요, 갈증도 줄이고, 뜨거운 몸의 열기도 식혀주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좋아요. 무엇보다 텀블러를 이용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텀블러 덕분에 음료 휴대도 간편하고, 보냉도 잘 되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어 일석이조예요.



BAE SO HYUN
배소현

날씨가 무더운 여름에는 경기 중간에 얼음물을 마시며 더위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는 만큼 보양식을 챙겨 먹으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체력적으로 힘들 때는 녹용을 챙겨 먹고 있어요. 녹용을 먹으면 잠도 잘 오고, 기운도 나는 것 같아요. 한약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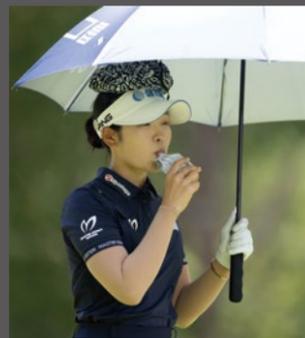
YOO HYUN JO
유현조

한창 더위가 심한 7~8월에 경기를 하면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큰데요. 여름철 날씨가 무더울 때는 경기에 나가기 전 꼭 포도당을 챙겨요. 경기 전에 포도당을 섭취하고 나면 지치지 않고 힘이 나는 기분이 들어요. 물도 틈틈이 챙겨 마시고 양우산으로 뜨거운 햇빛 차단도 잊지 않아요. 이번 여름에도 체력 관리에 힘쓸 예정입니다.



PARK HYUN KYUNG
박현경

더위가 점점 심해질수록 컨디션 조절에 힘써 경기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수분과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해주려고 해요. 경기 전후로 물을 조금씩이라도 자주 마시려고 합니다. 또한 더위가 심해지면 입맛도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영양제나 보양식도 평소보다 더 섭취하려고 해요. 이 외에도 골프장이 야외이다 보니 상당히 더운데요. 경기 중에도 얼음팩이나 양우산 등을 사용해 햇빛과 무더위로부터 보호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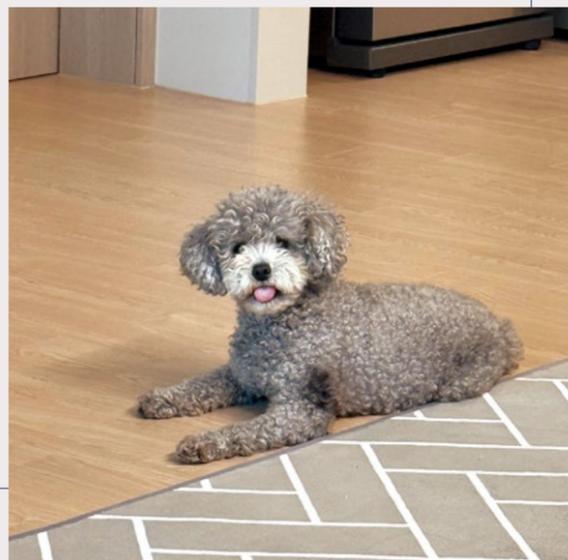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나만의 극복 노하우

경기를 하다 보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KLPGA 선수들은 이럴 때 어떻게 극복할까?

LEE GA YOUNG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본다. 기분이 무너지면서 경기의 흐름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경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빨리 고치기 위해 마음이 급해지기도 한다. 그럴 때는 리듬감을 떠올리며 급한 마음을 원래대로 돌려 놓으려고 한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존재를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나의 경우는 그런 존재가 바로 반려견 '천둥이'다. 천둥이를 떠올리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면서 다시 멘탈을 다잡을 수 있게 된다.

이가영



LEE YE WON

경기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잠시 환기의 시간을 가져본다. 물을 마시거나 간식을 먹다 보면 주위가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된다. 이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앞 홀의 실수했던 샷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남은 경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혹은 캐디와 함께 수다를 떨며 다른 생각을 하는 것도 좋다.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함께 간식을 먹다 보면 안 좋았던 기분도 서서히 풀린다.

이예원



MENTAL CARE!

황유민



HWANG YOO MIN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주로 캐디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극복하는 편이다. 경기가 끝난 후 어떤 부분에서 잘 풀리지 않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도 함께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캐디와의 사이도 더욱 돈독해지는 것 같다.

임희정



LIM HEE JEONG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요가를 하면서 푼다. 요가를 하며 몸을 스트레칭해주면 온몸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요가의 한 동작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낼 때 몸의 감각이 더 잘 살아난다. 요가를 마치고 난 뒤 명상을 하는 시간이 있다. 이때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분을 느낀다. 요가는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식이 된다. ◆

2025 KLPGA투어, 이렇게 바뀐다!

KLPGA의 새로운 변화는 새 시즌을 기대하게 만든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KLPGA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NEW CHANGE

2025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가 확 바뀐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규정 정비부터 베테랑 선수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까지, 투어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고됐다. 올해 골프 팬들이라면 주목할 만한 제도 개편의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본다.

01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선택과 기회의 폭을 넓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국내 메이저대회 의무 참가 규정'의 폐지다. 이전까지는 미국, 일본 등 해외 메이저대회와 일정이 겹치더라도 국내 메이저대회에 반드시 출전해야 했지만, 이제 선수들은 자신의 커리어에 맞는 대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선수들의 글로벌 무대 진출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무대에서의 경험은 선수 개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KLPGA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해외 메이저대회에서 거둔 성적도 이제는 국내 대상포인트에 반영된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나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메이저대회에서 상위권에 오르면, 국내 메이저대회와 동일한 수준의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게 된 것. 이로써 KLPGA의 대상포인트 제도는 국내외 활약을 모두 고려하는 입체적 평가 체계로 진화하게 됐다. 이와 함께 더 눈길을 끄는 변화는, 해외 메이저대회 성적에 따라 KLPGA 대상포인트가 부여된다는 점이다. 협회는 지난 4월부터 LPGA 및 JLPGA의 메이저대회에서 톱텐에 오른 경우, 국내 메이저대회와 동일한 대상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변화는 곧바로 효과를 드러냈다. 바로 박현경의 사례다. 지난 5월, 박현경은 일본 메이저대회인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샬롱파스컵'에 출전해 당당히 공동 8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 결과, KLPGA 위메이드 대상포인트 38점을 획득하며 누적 포인트를 115점으로 끌어올렸고, 대상포인트 순위도 11위에서 공동 7위로 상승했다.

02

시드권 제도 대폭 정비

오랜 시간 협회에 기여해온 선수들을 위한 제도적 배려도 눈에 띈다. 정규투어 은퇴 후 챔피언스투어에 진출하기까지 발생하는 5~6년간의 경력 공백을 해소하고, 선수들의 안정적인 커리어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시드권 제도 개편안이 2026시즌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는 KLPGA 'K-10클럽' 가입자(K-10: KLPGA 정규투어 10년 이상 연속 활동 선수) 또는 생애 누적 상금 25억 원 이상을 기록한 미활동 선수를 대상으로, KLPGA 이사회가 성적과 기여도 등을 평가해 최대 4명에게 다음 시즌 정규투어 시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챔피언스투어 상금왕(정회원에 한함)에게도 다음 1개의 정규투어 시드를 부여하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챔피언스투어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시니어 선수들에게도 다시 한 번 정규투어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의미 있는 변화다.

한편, 드림투어에서 정규투어로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은 기존 상금 랭킹 20위까지에서 15위까지로 조정된다. 이 개정안은 2026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2027시즌부터 적용된다.

03

KLPGA 무대의 세계화

KLPGA는 나아가 해외 투어 단체와 공동 주관 대회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 유관 단체 및 스폰서, 방송사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대회 개최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KLPGA투어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선수들에게 더 많은 국제 무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5시즌 KLPGA투어는 단순한 규정 변화 그 이상이다. 젊은 선수들에게는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중견 선수들에게는 안정적인 커리어 설계를 위한 배려를 담았다. 그리고 모든 선수들에게는 더 박진감 넘치는 무대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약속한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 KLPGA 2025 시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해볼 만하다.

04

빠른 플레이, 활기찬 투어를 위한 실행안도 마련

KLPGA는 투어의 박진감과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플레이 속도 개선안'도 추진한다. 플레이 속도가 느려지면 대회의 리듬이 끊기고, 관전의 재미도 반감될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아웃 오브 포지션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플레이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한 플레이 속도 자가 진단, 경기위원의 권한 강화, 경기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방안도 포함됐다. KLPGA는 이 같은 시스템이 정착되면 국내 투어의 경기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KLPGA투어와 함께 도전과 상생의 무대를 만든다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

올해 신설된 KLPGA 정규투어 'iM금융오픈'을 주최한 iM금융그룹의 황병우 회장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그룹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이끌어온 리더다.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그는 위축보다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KLPGA 선수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의 장을, 골프 팬들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스포츠가 주는 긍정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의미 있는 무대를 만들어냈다. 글·유희경 | 사진·임한수

Building a Platform for Challenge and Growth with the KLPGA Tour

Hwang Byung Woo, Chairman of iM Financial Group

올해 KLPGA 정규투어는 총 30개 대회에 총상금 약 325억 원, 평균 상금은 약 10억8000여만 원 규모로 펼쳐진다. 전년도보다 해외 개최 대회 수가 줄며 전체 대회 수와 총상금은 소폭 감소했지만, 국내 개최 대회 수는 29개로 유지됐고, 10억 원 이상의 고액 상금 대회는 26개로 늘어나며 전체 투어의 수준은 오히려 높아졌다. 이렇듯 시즌 평균 상금이 증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총상금이 증액된 기존 대회들과 함께 올 시즌 신설된 대회들의 영향도 크다.

올해 KLPGA투어 신설 대회는 총 3개. 특히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경북 구미 골프존카운티 선산에서 개최된 'iM금융오픈 2025'는 단순한 신설 대회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지역 골프 팬들에게는 KLPGA투어의 생생한 매력을 전했고, 대회장을 찾은 약 2만 명의 갤러리는 대구·경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한 선수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활력을 불어넣은 대회이기도 했다.

KLPGA투어 'iM금융오픈 2025'의 성공적인 개최는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의 경영철학과 결단에서 비롯된 결과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기업의 스포츠 마케팅은 점점 축소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황 회장은 위축보다 도전을 택했고, 스포츠가 주는 긍정의 힘을 믿으며 후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과 상생하며 함께 즐기는 대회를 만든다

iM뱅크(구 대구은행)는 1967년 대구·경북 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은행이다. 지난 2024년 5월에는 지방은행 최초로 시중은행으로 전환되었고, 사명도 올해 기존 DGB금융그룹에서 iM금융그룹으로 변경해 과감한 변화와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iM금융그룹은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힘써왔다. 불링, 유소년 축구, 배드민턴 등 스포츠 후원뿐 아니라 사회적기업·스타트업 대상 후원, 환경 보전 프로그램, 문화예술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KLPGA투어 'iM금융오픈 2025' 개최도 침체된 대구·경북 지역에 골프로 새로운 활기와 발전을 이끌고자 했던 황 회장의 뜻이 담긴 결과였다.

“골프로 새로운 활기와 발전을 이끌고 골프 팬과 선수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The 2025 KLPGA regular season will feature 30 tournaments with a combined purse of approximately KRW 32.5 billion, and an average prize fund of about KRW 1.08 billion. While the number of overseas events and total prize money have slightly decreased from last year, the number of domestic tournaments has remained steady at 29. Notably, the number of high-stakes events offering more than KRW 1 billion in prize money has increased to 26—accounting for 87% of the tour. These improvements are largely attributed to increased prize funds in existing tournaments and the addition of new events this season. Among the three newly introduced tournaments, the iM Financial Open, held from April 10 to 13 at Gumi Golfzon County Sunsan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stood out as more than just a new addition to the calendar. It gave local golf fan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excitement of the KLPGA Tour and brought nearly 20,000 spectators to the venue, offering a welcome boost to the local economy. For players, it meant more opportunities and fresh momentum.

The successful debut of the iM Financial Open was the result of the vision and leadership of Hwang Byung Woo, Chairman of iM Financial Group. While many companies have scaled back their sports marketing activities due to global economic uncertainty and declining consumer sentiment, Chairman Hwang chose challenge over retreat. His belief in the positive impact of sports and commitment to supporting the KLPGA made the tournament possible.

A Tournament that Reinvigorated a Region

iM Bank, formerly Daegu Bank, was established in 1967 as the first bank in the Daegu-Gyeongbuk region. In May 2024, it became the first regional bank to transition into a commercial bank, marking a bold new chapter

with its rebranding from DGB Financial Group to iM Financial Group. Rooted in Daegu and North Gyeongsang, iM Financial Group has consistently pursued shared growth with the local community through sponsorships in bowling, youth soccer, badminton, as well as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startups, environmental programs, and arts education initiatives.

The inaugural iM Financial Open was part of this mission—to bring new energy and growth to a region that has faced economic challenges. “We wanted to create a tournament that would bring joy to golf fans and players alike while revitalizing the Daegu-Gyeongbuk region,” said Chairman Hwang. “Hosting a KLPGA event gave local residents a rare chance to see elite competition up close and contributed to the local economy. With nearly 20,000 spectators at the venue in Gumi, we felt a deep sense of reward.”

Hwang envisioned the iM Financial Open not merely as a sports event, but as a festival for everyone to enjoy. From pre-tournament events and prize giveaways to interactive booths hosted by the group’s affiliates, the tournament created an inviting atmosphere. These efforts attracted not only local residents but also fans from other regions, driving growth in accommodation, dining, and tourism sectors.

The tournament’s trophy also captured attention. Designed in collaboration with SWNA’s Lee Suk Woo, the creative mind behind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medals, the trophy features a golf ball seemingly suspended above a hole—symbolizing both the essence of golf and the company’s philosophy. “Golf ends when the ball drops into the cup,” said Hwang. “This moment of fulfillment reflects our mission: turning imagination into reality—what we call the ‘Momentum of Imagination.’ Just as the sound of the ball sinking into the cup brings joy to players and fans, iM Financial seeks to transform bold ideas into tangible results.”

The trophy includes the name of the winning player, and this year’s inaugural champion was Kim Min Ju, who claimed her first career victory in her 95th tournament appearance. “We were thrilled to see Kim Min Ju achieve such a meaningful milestone,” said Hwang. “This tournament marks a new beginning for both our company and the players, and it’s incredibly rewarding to see our journey align with her dream.”

Golf as a Mirror of Leadership and Strategy

Chairman Hwang began playing golf in 2008. While his schedule rarely allows time for the



무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경기가 그동안 많이 침체돼 있었는데, 지역민들에게 인기 있는 KLPGA투어를 직접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대회장인 구미골프존카운티 선산이었는데, 2만여 명의 많은 갤러리들이 방문했다고 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황 회장은 iM금융오픈을 단순히 선수와 골프대회를 보는 것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잔치’처럼 즐기는 대회로 만들고자 했다. 대회 전부터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경품과 혜택을 주고, 현장에 설치된 각 계열사 부스에서는 갤러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민들은 물론 타 지역 골프 팬들까지 유입되면서 숙박, 외식,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를 받는다.

iM금융오픈은 우승 트로피도 눈길을 끌었다. 마치 홀컵 위에 골프공이 정지한 듯 떠 있는 작품 같은 트로피는 2018년 평창올림픽 메달 디자이너였던 SWNA 이석우 대표와의 협업으로 제작됐으며, 골프의 본질과 기업의 철학이 함께 담겨 있다.

황 회장은 “골프는 공이 마지막에 홀컵에 들어가야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처럼 하나의 목표를 끝까지 완수하려는 강한 의지와 iM금융그룹이 지향하는 ‘상상’이라는 키워드에서 확장해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Momentum of Imagination)’을 형상화했습니다. 공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홀컵에 들어가는 순간, 선수와 갤러리 모두가 느끼는 희열처럼 iM금융도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여정을 이어가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트로피 속 골프공에는 우승 선수의 이름이 새겨졌는데, 쟁쟁한 KLPGA 선수들의 경쟁을 뚫고 초대 챔피언으로 이름을 올린 선수는 95번째 대회 만에 첫 승리를 거둔 김민주였다. 황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 김민주 선수가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이라는 큰 꿈을 이뤄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 iM금융그룹은 이번 대회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알렸고, 그 시작이 선수의 꿈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느껴졌죠”라고 덧붙였다.

골프는 곧 경영이다

황 회장은 2008년에 처음 골프를 시작했다. 바쁜 비즈니스 때문에 자주 필드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80대 타수를 기록하는 실력자다. 이번 iM금융오픈을 통해서는 골프도, 경영도 한 수 배우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그동안 골프를 즐거운 게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iM금융오픈에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 골프가 곧 경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학적인 분석, 심리적인 컨트롤, 상황에 따른 전략적 대응까지 경영의 모든 요소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죠. 선수들은 거의 1년 내내 코스, 날씨 등 매번 달라지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단 한 번의 샷에 끝없이 집중합니다. 잠시 방심하면 공이 OB가 나듯, 우리도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타성에 젖으면 리스크를 키우게 되죠. 상황에 맞춰 클럽을 바꾸는 것처럼 사람과 전략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는 점, 실수가 나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 역시 경영과 똑같습니다.”

또 하나 황 회장이 경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통’이다. 황 회장은 소통을 ‘조직의 혈관’에 비유한다. 아무리 좋은 전략과 자원이 있어도, 흐름이 막히면 조직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이야말로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을 지속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이 말하는 ‘소통’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진정성 있는 관계에서 이뤄지는 교류다. 그는 “상하 관계로는 진짜 이야기를 듣기 어렵습니다. 친구처럼, 동료처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진짜 소통”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언제나 ‘회장’이라는 직함보다 사람 대 사람으로 먼저 다가가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경영철학은 내년 iM금융오픈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예정이다. 황 회장은 “골프를 즐기는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회”를 만들고자 한다. 프로 선수들의 경기를 관전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갤러리들도 스크린골프나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함께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대회를 구상 중이다. 앞으로도 iM금융오픈이 단순한 골프대회를 넘어 선수와 갤러리, 기업과 지역사회가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



course, he plays in the 80s—a respectable score by any standard. More than just a game, he sees golf as a mirror of leadership and management. “I used to see golf as a simple pastime,” he said. “But watching the players during the iM Financial Open, I realized golf encapsulates the very essence of business management. It’s rooted in analytics, mental focus, and strategic decision-making.”

Just as players must adapt to ever-changing courses, weather, and travel conditions, business leaders must remain agile amid evolving markets. “Golfers stay intensely focused for every single shot, even under extreme pressure. One moment of complacency can lead to an out-of-bounds shot—just like in business, where falling into routine can increase risk,” Hwang noted. “Changing clubs for different situations is akin to deploying the right team and strategy. And even after mistakes, players press on—just as we must in leadership.”

Equally central to his philosophy is communication, which Hwang likens to the bloodstream of an organization. “Even with the best strategies and resources, if communication breaks down, nothing works,” he explained. For Hwang, real communication must be horizontal and sincere—not top-down. “You can’t hear the truth if you approach people solely as their boss. True dialogue happens when we speak openly, like friends or colleagues.”

This people-first approach will be reflected in next year’s iM Financial Open. Hwang hopes to transform the event into an inclusive celebration of golf—where galleries can actively participate through screen golf booths and interactive programs. Rather than being passive spectators, attendees will become part of a dynamic exchange between players, fans, companies, and communities. Hwang envisions the tournament as a platform where all stakeholders are connected—openly, equally, and joyfully. ◆



THE GLORY OF
K-10

PROFILE | 박지영
 생년월일 1996년 3월 2일 입회 연도 2014년 5월
 2024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우승
 2024 제10회 교촌 1991 레이디스 오픈 우승
 2024 한화 클래식 2024 우승
 2025 크리스토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 공동 2위
 2025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5 공동 3위
 2025 DB그룹 제39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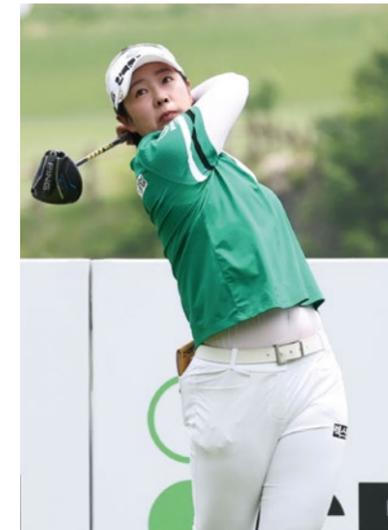
KLPGA K-10클럽 그 영광의 얼굴들
두 번째 주인공, 박지영

10년, 긴 시간 동안 KLPGA 정규투어에서 매년 상금 랭킹 60위 안에 들며 시드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K-10클럽'은 바로 그 '지옥의 시드전'을 10년 연속 통과한 선수들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이며, 2024년에는 박지영이 그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글·신정희 | 사진·KLPGA

꾸준함의 대명사 박지영의 'K-10' 달성

"10년 동안 정규투어에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활동했기에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생각해요. 10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더욱 열심히 해서 K-20클럽까지 노력해보고 싶어요." 박지영은 'K-10클럽' 수상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지난 2014년 프로 데뷔 이후 상금 랭킹 60위 안에 들며 정확히 10년 동안 시드를 유지했고, 이는 '꾸준함'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24시즌 초반 맹장 수술 때문에 여러 대회를 건너뛴 가운데서도 3승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꾸준한 운동과 훈련의 결과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지영은 선수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연습벌레'로 인정받을 정도로 성실한 선수로 통한다.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K-10'인 것이다.

지난 2016시즌 '제10회 S-OIL 챔피언십 인비테이셔널'에서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거둔 이후 2019시즌 KLPGA투어 개막전인 '효성 챔피언십 with SBS Golf'에서 두 번째 승리를 기록했다. 데뷔 8년 차였던 2022시즌까지는 통산 4승에 그쳤지만 2023시즌, 2024시즌 각각 3승을 거두었다. 2023시즌에는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 '에버콜라겐·더시에나 퀸즈크라운 2023',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2024시즌에는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제10회 교촌



1991 레이디스 오픈', '한화 클래식 2024'에서 3승을 완성했다. 특히 2024시즌에는 공동 다승왕을 차지했고, 시즌 상금 10억 원을 넘기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며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 2024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회였던 'KB금융 스타챔피언십'에서는 상금 2700만 원을 획득해 상금 10억1310만2717원을 기록하며 생애 처음으로 시즌 상금 10억 원을 넘어선 기념비적인 해가 되기도 했다.

박지영은 'K-10클럽'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로 '동료'를 이야기했다. 동료들과 함께 투어를 뛰면서 경쟁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경기를 즐기다 보니 어느덧 10년을 훌쩍 지나왔다는 의미다.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

가는 2025시즌. 이번 시즌에는 3승 이상을 거두는 것이 목표다. 2025시즌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상반기 성적 역시 좋은 편이다.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5'에서 공동 3위, '크리스토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2위를 차지했고, 'DB그룹 제39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5위를 차지하는 등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2025시즌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베트남 전지훈련에서 드라이버샷 비거리와 정확성을 모두 높이기 위해 훈련에 매진했다. 장타를 치면서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가 되고자 동계훈련 전부터 장타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스윙 교정을 했다. 루키 선수들과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만큼 체력관리를 열심히 해서 경기력 차이를 극복하겠다는 목표 아래 구슬땀을 흘렸다. 무엇보다 이번 시즌이 기대되는 이유다.

새로운 'K-20클럽'을 향하여

박지영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지난 10년을 걸어왔고, 이와 함께 통산 10승이라는 아름다운 결과를 동시에 달성했다.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언제나 꾸준한 성적으로 상위권에 오르는 선수로 남고 싶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 응원 부탁드립니다." ◆

It's New! 2025시즌 새롭게 경기가 열리는 골프장 소개

2025시즌이 화려하게 개막했다. 이번 시즌에는 새롭게 경기가 치러지는 골프장들이 선수들을 맞이하길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골프장들은 어떤 곳들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2025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개최되는 오로라골프&리조트

2025시즌 KLPGA투어에 새로운 대회가 열리게 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2025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이다. 구학산 자락에 위치한 오로라골프&리조트는 청정 자연을 배경으로 한 도전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코스로, 시즌 중반 흐름을 가늠할 중요한 경연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발 550m에 자리한 이 골프장은 백두대간 산세와 치악산의 스카이라인을 조망할 수 있는 드넓은 부지(약 26만 평, 86만㎡)에 조성되었으며, 대자연의 지형을 최대한 보존한 코스 설계로 골퍼들에게 색다른 라운드 경험을 선사한다. 전체 18홀, 총연장 6486m(7150야드)의 정규 코스는 레이크 코스(3229m, 파36)와 마운틴 코스(3257m, 파36)로 구성돼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 수려한 수경지와 산악 지형의 특색을 담아내, 라운드 내내 자연의 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게 한다.

자연 속 조화를 최우선 가치로 둔 오로라골프&리조트는 친환경적인 코스 유지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잔디 관리 역시 단순히 경기력 확보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골프장 운영을 위한 고민의 산물이다. 실개천과 계곡이 어우러진 페어웨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호수와 구릉은 플레이어의 전략적 사고를 자극하면서도 자연과 교감하는 듯한 정서적 만족감을 더한다.

페어웨이는 넓고 정교하게 관리되어 있으며, 부드럽고 탄력 있는 그린은 섬세한 쇼트게임을 요구한다.



한 타 한 타가 허투루 소비될 수 없는 환경에서 선수들은 보다 정밀한 코스 공략 능력을 시험받는다. 또한, 해발고도와 지형 특성상 바람의 방향과 세기 역시 수시로 변화해 다양한 기후 조건에 대한 적응력도 함께 필요로 한다. 오로라골프&리조트의 또 다른 매력은 라운드 후 이어지는 클럽하우스 경험이다. 개방감 있는 공간 구성과 품격 있는 인테리어, 자연 채광이 잘 어우러진 설계로 피로를 덜어주는 동시에 고급스러운 휴식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식음 서비스는 지역의 신선한 재료를 활용한 정갈한 메뉴들로 구성되어, 골프의 여운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자연과 골프의 조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가치를 내세우는 오로라골프&리조트.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대자연 속에서 웃음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곳은 골프의 예술성과 철학을 동시에 품고 있는 공간이다. 앞으로 펼쳐질 '2025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무대가 이곳에서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모인다.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이 열리는
몽베르CC**

사계절 내내 빼어난 자연경관과 고품격 라운드 경험으로 사랑받아온 몽베르 컨트리클럽 (Montvert Country Club)이 잔디 교체를 마무리하며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했다. 경기도 포천에 자리한 이곳은 서울에서 한 시간 남짓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백운계곡과 명성산, 국망봉 등으로 둘러싸인 청정 자연환경 덕분에 도심을 벗어난 듯한 여유를 선사하는 골프장으로 명성이 높다.

1999년 개장 이후 오랜 세월 명문 회원제로서의 품격을 지켜온 몽베르CC는 기존의 양잔디 코스를 중지(티프웨이419)로 전면 교체하며 한층 향상된 플레이 환경을 마련했다. 2024년 6월에는 북코스의 잔디 교체가 완료되었고, 2025년 4월에는 남코스까지 중지로 리뉴얼되면서 전 코스가 새로운 잔디 위에서 운영된다. 중지는 한국의 여름 기후에 강하고 사계절 푸른 색감을 유지할 수 있어 선수와 골퍼 모두에게 최적의 라운드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KLPGA 대회가 치러지는 코스답게 정밀한 볼 컨트롤과 안정적인 퍼트감을



뒷받침하는 잔디 품질은 시합뿐 아니라 일상 라운드에서도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코스 구성도 인상적이다. 몽베르CC는 북코스(OUT), 남코스(IN), 동코스(챔피언십 전용)로 이뤄진 27홀 골프장으로, 총연장이 1만554야드에 달한다. 각 코스는 지형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레이아웃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챔피언십 전용 코스는 KLPGA투어 공식 대회 개최지로 활용될 만큼 난이도와 전략성이 뛰어나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2020~2023시즌 ‘대우위니아 MBN 여자오픈’을 개최하며 명실상부한 대회 전용 코스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증명했다.

몽베르CC의 또 다른 강점은 자연과의 조화다. 골프장 이름처럼 ‘푸른 산’을 닮은 풍경이 곳곳에 펼쳐지고, 각 코스에서는 계절마다 변화하는 나무와 꽃, 계곡의 물소리까지 어우러져 진정한 ‘힐링 라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 잔디뿐 아니라 전반적인 코스 관리에서도 친환경 방식을 채택해 지속 가능한 골프장 운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돋보인다.

사계절 푸르른 중지 잔디, 전략적이면서도 플레이에 즐거움을 주는 코스 구성, 자연과 어우러진 감성적 풍광까지, 몽베르CC는 명문 골프장의 가치를 지키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절벽 위 드라마틱한 절경을 자랑하며 우측 벙커를 넘기는 과감한 공략과 투온 시도가 가능한 9번 홀, 20m 다운힐 아래 드넓은 호수와 그 위에 떠 있는 아일랜드에서 온 그린의 우수함을 느낄 수 있는 12번 홀, 광활한 웨이스트 벙커를 가운데 두고 긴 거리 때문에 정교한 플레이가 요구되는 난이도 최상의 14번 홀, 깊은 계곡 너머 능선 위에 올라앉은 그린 너머로 마주하는 산세가 압도적인 장관의 16번 홀까지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린 명품 골프 코스를 만날 수 있다. 여기에 아름다운 자연을 건축 일부로 활용해 승화시킨 클럽하우스의 모던한 건축미와 인테리어, 다채로운 아트 작품들과 이국적인 암석원, 그리고 360도 파노라마처럼 자연경관이 펼쳐지는 루프탑 산책로까지 프리미엄 골프장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준다.

성문안CC 클럽하우스는 지난해 '한국건축가협회 올해의 건축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서울경제 선정 '2024 한국 10대 골프장'에도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 ◆

'2025 셸트리온 퀸즈 마스터즈'가 열리는 성문안CC

이번 '2025 셸트리온 퀸즈 마스터즈'가 열리는 성문안CC의 '성문안' 단지는 HDC리조트가 운영하는 강원도 원주에 새로운 럭셔리 힐링&레저 복합 문화 공간이다. '성문안'은 총 83만 평에 달하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숙박과 웰니스, 트레킹, 골프, 식음, 예술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프리미엄 퍼블릭 골프 코스, 클럽하우스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성문안CC 코스는 6,651m에 달하는 긴 전장의 18홀 규모로 이루어졌고, 퍼트 그린뿐만 아니라 페어웨이 전체에 최고급 양잔디인 벤트그래스를 심었다. 잎의 너비가 가늘고 밀도가 높은 벤트그래스는 볼의 빠르기를 높일 수 있고, 마치 양탄자와 같은 질감으로 부드러운 샷감을 느낄 수 있는 고급 잔디 품종이다.

또한 웰링턴CC, 베어크리크GC 등 다수의 명문 코스를 설계한 로가이엔지 노준택 대표가 설계를 맡아 다양한 전략성과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홀을 완성했다.



선수로 성장하기까지, 한눈에 보는 방신실의 변천사

지난 4월에 열렸던 '빅센 ·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5'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상반기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방신실. 귀여움으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자.



후훗! 셀카 좀 찍을 줄 알죠!



5살 때 동물원에 가서 양을 보고 한껏 신났어요.



친구와의 패션 대결! 어느 쪽이 제일까요?(힌트는 오렌지색 스타킹!)



3살 무렵, 노란 수영복이 너무 귀엽죠?^^ 물놀이가 마냥 좋았어요.



골프채를 처음 잡아보았던 운명의 7살 때. 무거운 골프채로 힘겹게 스윙하는 모습.



형형색색 물고기들을 만나고 신이 난 모습.



장난기 가득한 표정 어떤가요? ㅎㅎ 카리스마 넘치죠?



아빠와 함께하는 게 제일 좋은 아빠 껌딱지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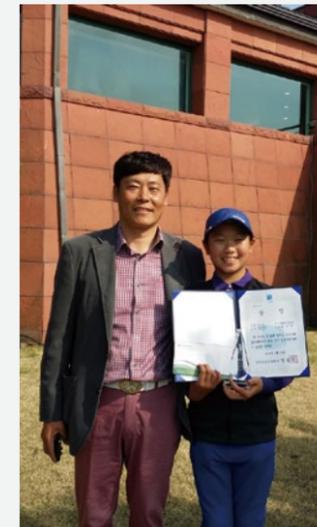
HER GROWTH STORY



초등학교 6학년 때 우승하고 두 팔 번쩍 세리머니 하는 모습.



11살 때 취미로 스케이트를 가끔 탔는데요. 자주 넘어졌던 건 안 비밀~



경기도 대회에서 입상한 기념으로 아빠와 한 컷



만세! 아빠와 골프 내기해서 이겼어요!



아마추어 우승을 차지했던 2022년 KB금융 스타챔피언십 경기 중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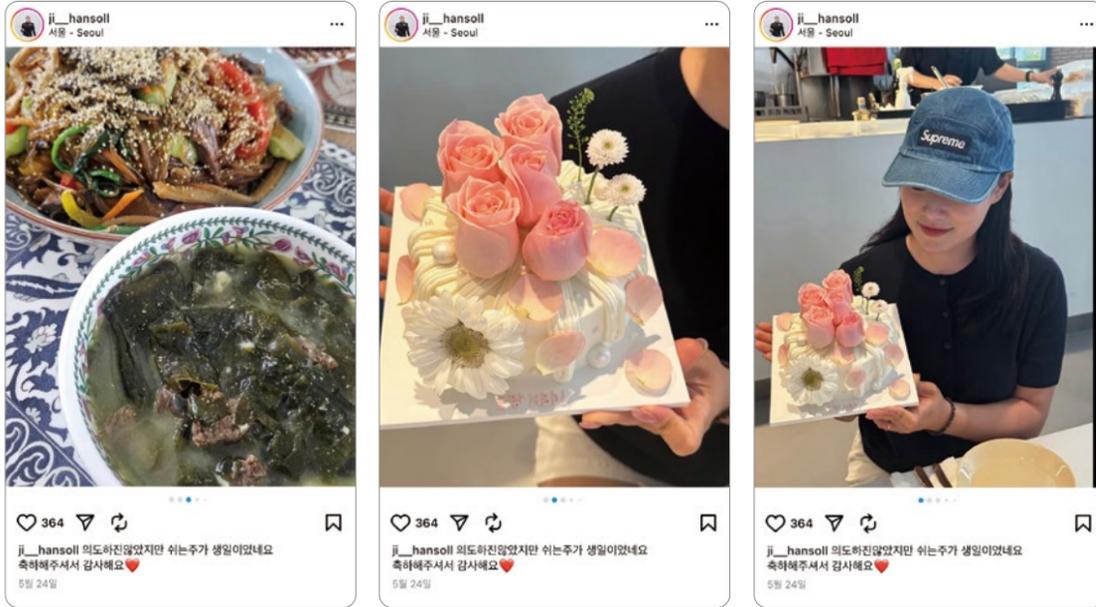
2023년 '제11회 더 채리티 오픈'에서 감격의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모습.

PLAYER'S SNS

필드 위가 아닌 일상생활 속 KPGA 선수들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자연스러운 선수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SNS를 들여다보자.

[지한솔]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즐거운 생일파티!

#5월 생일 #생일파티 #케이크



[홍정민] 팬의 정성 어린 선물을 인정한 홍정민.

#팬심 #초상화 #크리스토프앤씨 제47회 KPGA 챔피언십 우승



[이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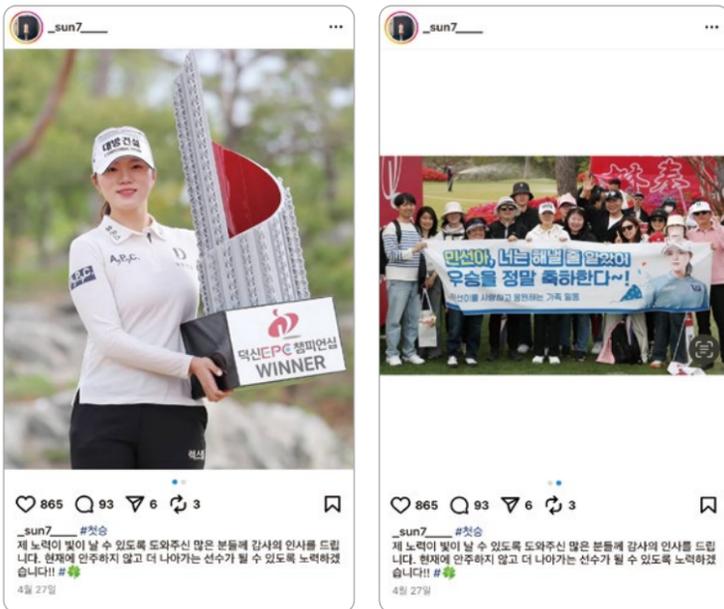
깜찍한 포즈, 발랄한 포즈 다 됩니다!

#브이 #상큼발랄 #스마일



[김민선] 우승의 기쁨을 이곳에 박제!

#KPGA #첫 승 #덕신EPC 챔피언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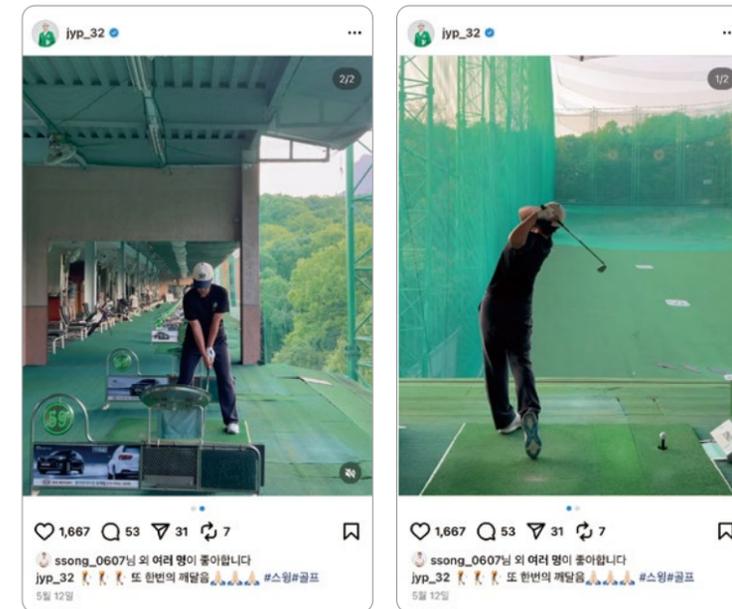
[정윤지] 이런 모습 처음이야! 치마 입고 샤랄라~

#생애 첫 치마 #여성여성 #변신



[박지영] 프로는 쉬지 않는다... 끊임없는 노력뿐.

#스윙 #골프 #깨달음 #연습



민인숙의 어드바이스

건강하게 투어생활 하는 노하우



2015시즌부터 챔피언스투어에서 활동하며 2016시즌 첫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2025시즌 챔피언스투어 개막전에서 다시 한 번 우승을 차지하며 챔피언스투어 강자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준 민인숙.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민인숙의 투어생활 노하우를 알아보았다.

2025시즌 'KLPGA 2025 챔피언스 클래식 1차전'에서 우승을 차지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셨어요? 시즌 개막전이라 더욱 의미가 컸을 것 같습니다.

시즌 개막전은 지난 동계훈련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플레이에 보완할 부분이 더 필요한지 혹은 그대로 시즌 내내 실력을 유지하면 되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막전에는 늘 불안한 마음이 따르는데요. 이번 경기를 계기로 불안함 없이 남은 시즌 경기를 하게 되어 다행이고요. 공식 경기인 만큼 순위가 매겨지는 자리인데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기쁩니다.

2019시즌 'KLPGA 챔피언스 클래식 2019 10차전' 이후 약 5년 6개월 만에 우승을 달성해 더욱 기쁨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우승을 예감하셨어요?

최근 몇 년 동안 별다른 훈련 없이 투어를 뛰었다면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지난 시즌들의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던 순간을 돌이켜 보면 한결같이 동계훈련의 연습량이 많았던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동계훈련에서 매우 단단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우승을 위해서 지난 전지훈련 때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을 하셨어요?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실천할지는 개인의 역량이라고 보는데요. 스윙은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밑바탕이 되는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가령 등산, 스쿼트 등의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아이언 샷감과 퍼트감이 좋아서 큰 타수를 잃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코스의 전장을 파악한 후 세컨드샷은 남은 거리에 맞는 아이언 위주로 연습량을 늘렸고, 퍼트의 경우 쇼트 퍼트 위주로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개막전 우승을 바탕으로 2025시즌을 순조롭게 출발하셨습니다. 이번 시즌 목표는 무엇인가요?

모든 선수들의 목표가 같다고 봅니다. 다승과 함께 상금왕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98년 KLPGA 정회원으로 입회하신 뒤 2015시즌부터 챔피언스투어에서 활동하고 2016년 첫 우승을 차지하셨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건재하게 투어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프로다. 그래서 더 많이 연습한다. 고로 나는 오래 존재할 수 있다.' 제가 늘 마음에 지니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연습할수록 선수로서 더 오래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시즌 인터뷰에서 대회 전후로 음악가들에게 심리적인 치유를 많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KLPGA 2019 삼척블랙다이아몬드 챔피언스 투어'에서 프레디 머큐리, 'KLPGA 2019 챔피언스 클래식 2019 10차전'에서는 힙합 가수 마미손과 윈슈타인을 꼽으셨어요. 요즘에도 좋아하는 뮤지션이 있으신가요?

인생은 한 편의 영화를 찍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영화라면 이번 편을 과연 어떻게 연출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보았어요. 그때 생각난 음악이 바로 영화 <록키>의 주제곡이에요. 이번 시즌 골프 열정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피고 싶었는데 이 음악이 바로 딱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동계훈련 때도 날씨가 무척 추웠지만 <록키> 음악을 들으며 운동장 트랙을 영화 주인공처럼 반복해서 뛰었어요.

건강하게 투어생활을 하기 위한 나만의 팁이 따로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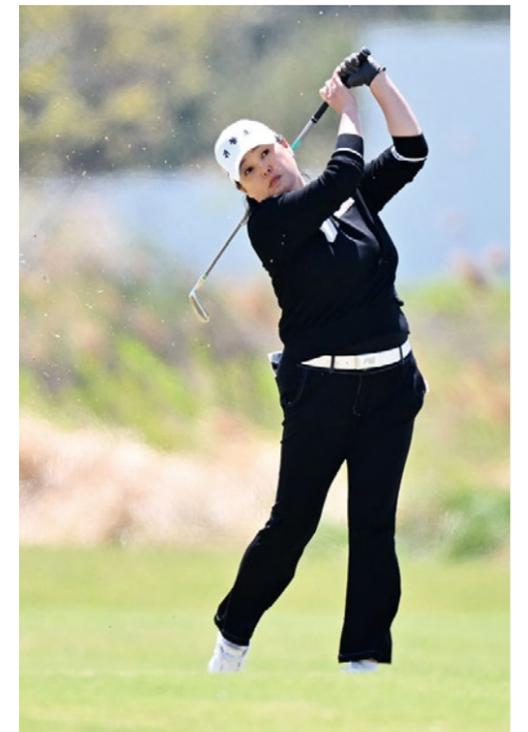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고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따르려고 합니다. 음료 역시 단백질이 많은 두유를 자주 섭취하고요. 잘 먹어야 운동 역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정신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거나, 성적으로 인해 방황을 하는 후배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건네고 싶으세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가장 좋은 삶이 될 것입니다. '지친다,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면 문제겠지요. 진심으로 즐길 수 있으면 아무리 힘든 훈련 속에서도 '극기'를 했다는 성취감이 생깁니다. 저도 처음부터 항상 즐겁지는 않았는데요. 훈련을 통해 깨달은 부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내면의 자신과 자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자기 자신만이 진정한 위로도 할 수 있고 격려도 하고, 나태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나를 제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경기가 잘 풀리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소하세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자기 주도적인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여기지 않고 좋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나쁜 생각들을 곱씹다 보면 기억에 계속 남게 되니까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 가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연습



을 합니다. 이런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오랫동안 투어생활을 지속하려면 투어가 끝나고 난 뒤의 시간도 잘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골프 외에 즐기고 있는 취미나 일상생활이 도움되기도 할까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골프에 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골프는 '내 삶에 녹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투어와 레슨을 병행하는 중인데요. 아마추어 골퍼들을 지도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알고 있던 것을 더 확실하게 다지거나 새롭게 배우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 골프에 도움이 되니 또 즐겁고요. 눈이 와서 빗자루로 쓸다가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리듬으로 쳐야 하는구나' 하고 영감을 받으니 일상생활도 즐거운 취미가 됩니다.

골프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있다면요?

골프로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골프라는 운동은 내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의 나와 마주하며 더 많이 대화하고, 포용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려고 합니다. 골프를 행복하게 하려면 내면의 나를 잘 알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



Three Rising Stars from Rwanda Take on the KLPGA Tour

On May 12, three eye-catching young athletes from Rwanda made headlines at the KLPGA 2025 Dasan Beache Golf & Resort Jump Tour with SBS Golf Qualifying Tournament. Queen Chelsea Nikaze (22), Batamuriza Aulerie (19), and Irakoze Sylvie (18) — all former standouts in basketball, cricket, and soccer — have traded their previous sports for golf clubs, stepping into a bold new chapter on the Korean stage. Traveling all the way from Africa to pursue their golfing dreams, the trio has begun a remarkable journey in Korea.

From Promising Athletes to Golfing Hopefuls

These three golfers were selected through the Rwanda Golf Sherone Project, a development initiative co-led by the Rwandan Ministry of Sports, the national golf federation, and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Launched in June 2023, the program aims to expand golf accessibility across Africa and Southeast Asia while discovering promising new talent. Chosen from a pool of around 80 young Rwandan athletes, Nikaze, Aulerie, and Sylvie have since trained under Kazuo Noda from Japan and Korea's own Coach Oh Lee-hwan.

르완다에서 온 스포츠 샛별 3인방의 KLPGA 도전기

머나먼 아프리카의 골프 불모지 르완다에서 골프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세 명의 유망주들이 찾아왔다. KLPGA 무대를 향한 세 선수의 첫걸음이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르완다의 스포츠 기대주, 골프로 방향을 틀다

세 선수는 르완다 체육부와 골프연맹,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르완다 골프 쉬어로즈 프로젝트'를 통해 골프로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골프 저변을 확대하고,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한 글로벌 육성 프로그램이다. 약 80명의 르완다 스포츠 인재 가운데 최종 선발된 이 세 명은 일본의 노다 카즈오 코치, 그리고 한국의 오이환 코치로부터 집중 훈련을 받고 있다.

골프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들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첫 라운드는 불과 지난해 10월, 그럼에도 지난 2월 나이지리아에서 열렸던 'TBB 레이디스 아마추어 오픈 2025'에서 이라코제 실비는 전체 450명 중 14위를 기록했고, 니카제 퀸 첼시와 바타무리자 아울리에는 각각 34위와 35위 가능성 입증했다. 특히 이라코제 실비는 자국에서 열린 '르완다 오픈'에서 우승까지 차지하며, 가장 먼저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점프투어 통해 KLPGA 무대 섰으면

선수 개개인의 장점도 뚜렷하다. 농구 선수 출신의 니카제는 "스윙 밸런스가 강점"이라며 자신감을 보였고, 오이환 코치는 "세 선수 중에서도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리에는 "롱게임보다는 쇼트게임에서 자신 있다"라고 했고, 실비는 "드라이버샷의 비거리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파워풀한 플레이를 예고했다.

이들은 점프투어 시드순위전을 목표로 그동안 강원도 춘천의 라테나 골프클럽에서 훈련을 해왔다. 르완다 국적 선수가 KLPGA 공식 무대에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코치는 "세 선수 모두 KLPGA 경기를 자주 챙기며 스타일 분석에 열심"이라며 "비록 당장의 성적보다 과정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 투어에서 활약할 기반은 충분하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선수들의 롤모델도 각기 다르다. 니카제는 "박성현 선수처럼 강하고 멋진 플레이를 펼치고 싶다"라고 밝혔고, 아울리에는 "황유민 선수의 쇼트게임을 자주 참고한다"라고 말했다. 실비는 "방신실 선수처럼 파워풀한 골퍼가 되고 싶다"라며 KLPGA 무대에 대한 열망을 숨기지 않았다.

최종 목표인 올림픽에 서는 그날까지!

세 선수의 단기 목표는 우선 점프투어 시드순위전을 통과해 KLPGA 점프투어(5~8차전)에 출전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정식 KLPGA I-Tour 자격 획득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미국 무대 진출과 올림픽 출전이라는 포부도 갖고 있다.

실비는 "KLPGA에서 경험을 쌓아 르완다를 대표해 2028년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고, 니카제와 아울리에도 "한국과 미국 양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입을 모았다.

골프 불모지로 알려진 르완다에서 날아온 세 명의 스포츠 유망주. 이들의 첫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이 모이고 있다. ◆



(좌측부터) 바타무리자 아울리에, 니카제 퀸 첼시, 이라코제 실비

Despite having picked up golf less than a year ago — their first round came in October 2024 — the players have shown rapid improvement. At the IBB Ladies Amateur Open 2025 held in Nigeria this past February, Sylvie placed 14th out of 450 competitors, while Nikaze and Aulerie finished 34th and 35th respectively. Sylvie also claimed victory at the Rwanda Open, marking her as an early standout among the trio.

Stepping into the KLPGA Spotlight

Each player brings a unique strength to the course. Nikaze, who previously played basketball, says her swing balance is her biggest weapon. Coach Oh agrees, noting that she has shown "the fastest growth among the three." Aulerie describes herself as more confident in her short game than her long game, while Sylvie is focused on increasing her driving distance — aiming to become a powerful presence on the course.

In preparation for the Jump Tour qualifiers, the three trained at La Denia Golf Club in Chuncheon, Gangwon Province. This marks the first time that Rwandan athletes have attempted to qualify for an official KLPGA event.

"They've been closely studying the KLPGA style by watching tournaments and analyzing players," said Coach Oh. "Although we're not focused on results right now, they already have the potential to compete on the Korean tour."

Their role models also vary: Nikaze looks up to Park Sung-hyun for her bold, commanding play. Aulerie admires Hwang Yoo-min's finesse around the green. Sylvie, meanwhile, hopes to emulate the powerful style of Bang Shin-sil.

Eyes on the Olympics

Their short-term goal is to pass the Jump Tour qualifiers and earn the right to compete in the 5th through 8th rounds of the KLPGA Jump Tour. Long-term, they dream of joining the I-Tour, moving on to the U.S. stage, and ultimately representing Rwanda at the Olympics. "My biggest dream is to compete in the 2028 Olympics as a golfer for Rwanda," said Sylvie. Nikaze and Aulerie echoed the sentiment, saying they hope to become players who can compete on both the Korean and American tours.

Though Rwanda has little history in golf, these three trailblazers are changing the narrative, one swing at a time. Their journey is just beginning, and the world will be watching. ◆



©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한국관광공사 이범수

골프장 주변 즐길 만한 곳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행의 즐거움은 놓칠 수 없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여행지에서 관광을 즐기며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해보자.

표선해수욕장

제주도에서 가장 넓은 백사장을 자랑하는 곳. 제주 동남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썰물 때는 동근 백사장이, 밀물 시에는 수심이 낮은 에메랄드빛 원형 호수처럼 보여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화트인 시아 덕분에 해마다 여름이면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표선해수욕장 인근에는 일출 명소로 유명한 당케포구가 있고, 당케포구에서 조금 더 걸으면 하얀 등대를 만날 수 있다. 바로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다. 푸른 바다와 하얀색의 등대가 조화를 이루며 포토 스폿으로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주소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개최지
사이프러스CC 주변-1박2일 코스

DAY 1

제주민속촌 표선해수욕장 당케포구 제주허브동산



신미민물장어

지난 1994년에 오픈해 지금까지 오랜 시간 사랑받는 장어 전문점. 제주도를 방문하면 관광지 맛집 대신 제주 토박이들에게 인정받는 찐 맛집을 찾아가보자. 실내에 들어서면 정겨운 분위기가 가득 넘친다. 오래전 사용하던 공중전화기부터 옛날 화폐들까지 곳곳에 진열된 오래된 물건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제 구경을 마쳤다면 본격적인 식사를 즐길 차례. 여름철 보양식의 대명사 장어구이는 서울의 유명 장어구이집에 비하면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인 편이다. 미리 초벌 구이 되어 나오는 장어는 불판에 살짝 데워 먹는데, 적당히 짭조름한 간장 양념과 쫄깃한 육질이 부드럽게 어우러진다. 한정식집 못지 않은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반찬들 역시 이 집의 내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장어구이 외에 늑간살구이도 추천할 만하다. 부드러운 육질의 소고기는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주소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73-3

전화번호 064-787-3737

DAY 2

머들정원 스누피가든 용눈이오름 제주레일바이크 비자림 신산포구



머들정원

남원읍 수망리에 위치한 '머들정원'은 김굴과수원이 있던 자리를 민간 정원으로 가꾼 곳이다. 머들은 제주 방언으로 '돌 무더기'를 뜻한다. 걸보기에는 평범한 카페 같지만, 카페 안에 있는 작은 문을 열고 뒤쪽으로 나가면 넓은 정원이 펼쳐진다. 수국과 난꽃, 팽나무, 동백나무 등 철마다 다양한 나무와 꽃들을 만날 수 있다. 사장님이 조경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을 살려 정성스럽게 가꾼 사계절 꽃과 수준급의 정원 풍경을 볼 수 있다. 별다른 입장료 없이 카페에서 음료를 즐기면 무료로 정원투어가 가능하다.

주소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641-34

전화번호 064-764-0811



스누피가든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스누피가든'은 만화 <피너츠>의 유명한 캐릭터 스누피를 주인공으로 꾸민 곳이다. 이름만 들으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이곳은 어른들도 즐길 만한 포인트가 많다. 1000여 평의 실내 테마 공간과 넓은 야외 정원으로 꾸며져 있고, 곳곳에 다양한 포토 스폿과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야외 가든에는 '찰리 브라운의 야구장', '라이너스의 모포의 숲'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자연 속에서 힐링을 즐기며 <피너츠> 캐릭터들과 인증샷을 남길 수 있다. 볼거리들이 풍부해 실내와 실외를 모두 돌아보려면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카페 공간도 있어 잠깐 쉬어 가기에 좋다.

주소 제주 제주시 구좌읍 금백초로 930

전화번호 064-903-1111



DAY 3

보롬왓 물영아리오름 비밀의숲 블루보틀제주



보롬왓

드라마 <도깨비>에서는 공유가 시간의 문을 통과한 뒤 메밀밭에 서서 “너와 함께 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라는 명대사를 남겼다. 바로 그 낭만적으로 펼쳐졌던 메밀꽃밭이 바로 보롬왓이었다는 사실. '보롬'은 제주어로 '바람', '왓'은 밭, 들판이라는 의미다.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넓은 들판을 메우는데, 7월에는 라벤더와 수국이 가득한 꽃밭이 펼쳐진다. 동화 속에 등장할 법한 깊은 숲길을 따라 걸으면 화려한 수국들이 보물처럼 등장해 이국적인 분위기에 절로 감탄하며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된다. 또 보롬왓 물결을 이루는 라벤더밭은 제주에서 가장 넓은 규모라고 하니 놓칠 수 없다.

위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2350-104
전화번호 010-7362-2345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한국관광공사 이범수

물영아리오름

물영아리는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뜻으로 물의 수호신이 산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이지만 호젓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수망리 종자성 생태 탐방로와 연결되어 있어 둘레길을 걸으며 산책하기에도 좋다. 오름을 오르면 소 떼가 유유히 노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라 더욱 귀한 모습이다. 이틀 앞에 '물'이 붙은 이유는 분화구에 고인 습지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분화구는 퇴적된 습지 퇴적층으로 그 깊이가 최대 10m에 이른다고 한다. 물영아리 습지는 2000년 전국 최초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2007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습지를 탐방하는 길은 여러 갈래의 숲길로 이루어져 시원한 나무 그늘이 맘을 식혀준다.

주소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수로 552

물영아리오름

비밀의숲

블루보틀제주

주소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2350-104
전화번호 010-7362-2345



블루보틀 제주 카페

블루보틀은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글랜드에서 처음 생긴 커피 브랜드다. 미국에서 스페셜티 커피 열풍을 이끈 브랜드 중 하나로, 한국에서는 2019년 성수동에 첫선을 보이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블루보틀 제주는 아름다운 오름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동네 제주 송당리에 자리 잡아 커피 한잔을 즐기며 여유를 맛보기에 적합하다. '제주'스러운 낮은 돌 담벼락과 제주의 대문 '정낭'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건물 외관이 특징적이다. 메뉴도 차별화되었다. 이곳에서만 마실 수 있는 제주 블렌드 음료와 제주 식재료를 이용한 디저트들을 맛보자.

주소 제주 제주시 구좌읍 번영로 2133-30

전화번호 1533-6906

'2025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개최지 오로라CC 주변-1박2일 코스

DAY 1

소금산 출렁다리 스톤크릭카페 뮤지엄산 한지박물관



소금산 출렁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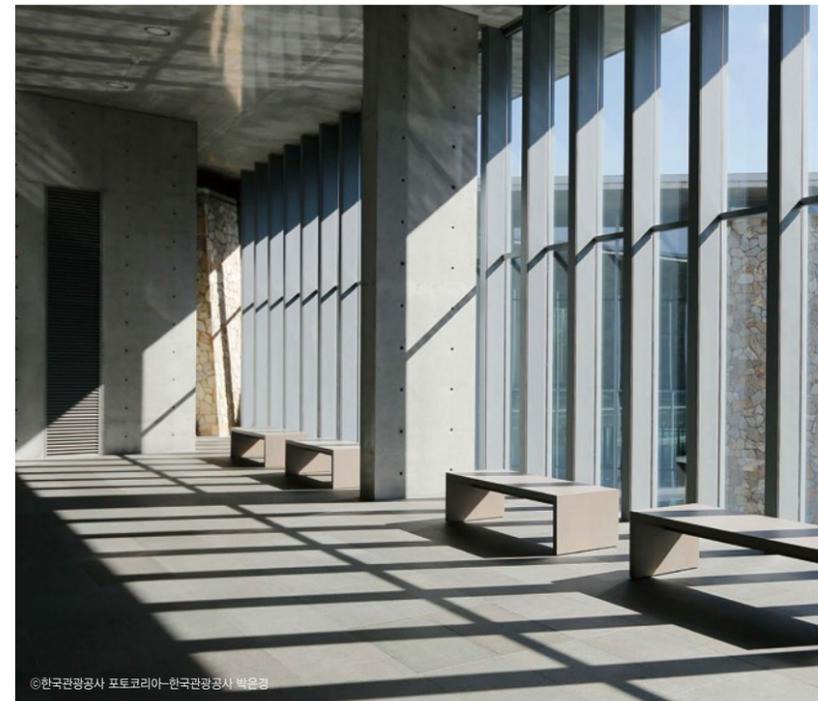
원주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바로 소금산 출렁다리다. 기암절벽과 강물이 어우러져 빼어난 풍광으로 조선시대 송강 정철이 '관동별곡'에 소개한 적이 있는 간현의 소금산 암벽봉우리를 연결해 만든 곳이다. 길이 200m, 높이 100m 무려 아파트 30층 규모 높이에서 발아래를 내려다보는 기분은 짜릿하다 못해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다. 출렁다리 아래로 모래와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은 이 무서움을 충분히 보상해준다. 지난 2월에는 소금산 그랜드 밸리 케이블카가 개통되면서 한 시간 넘게 걸어야 했던 길을 이제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6분 만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소금산 전체를 둘러보지 않아도 출렁다리를 구경하고 난 뒤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올 수 있어 간편하다.

주소 강원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317 소금산그랜드 밸리 통합센터

전화번호 033-749-4860

DAY 2

치악산 둘레길 미로예술중앙시장 구룡사



뮤지엄산

뮤지엄산은 한술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곳으로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해 더욱 유명해졌다. 건축물만 보아도 세계적인 건축가의 면모를 알 수 있다. 노출 콘크리트와 빛, 물 등 자연적인 요소를 끌어들이는 독창적인 방식의 건축물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움을 더해준다. 걸어서 돌아보는 데 약 2시간이 걸릴 정도로 규모가 꽤 크다. 웰컴센터에서 출발해 플라워가든, 워터가든, 뮤지엄 본관과 명상관, 제임스 터렐관까지 공간별로 개성이 넘친다. 터렐은 빛의 미술사라 불리는 설치미술가로, 전시실에는 그의 작품 4점이 있는데 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워터가든 한가운데에는 연못을 가로지르는 붉은 조각 작품이 있다. 알렉산더 리버만의 작품 '아크웨이(Archway)'다. 이곳을 배경으로 기념사진 남기는 것을 잊지 말자.

주소 강원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2길 260

전화번호 0507-1430-9001



육포 그 이상의 가치 향진축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고단백 영양간식 육포. 향진축산의 육포는 국내 대표적인 제품들을 생산하며 프리미엄 육포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최상급 원료육을 우리 입맛에 맞도록 가공해 다양한 육포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1999년 설립된 향진축산은 프리미엄 육포 생산 전문 기업으로 고품질 원육과 자체 개발한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업계에서 신뢰와 성장을 이어나고 있다. 고객이 한 조각의 육포에서도 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원료 선정부터 제조공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현재 원(元) 육포와 저키즈 육포, 채끝 스테이크 육포, 와규 육포, 육포 선물세트 등 다양한 육포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2500평 규모의 향진축산제2공장을 설립해 최첨단 제조설비를 갖췄고, HACCP 인증, 양념 주입장치 특허 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하며 한층 내실을 갖추고 있다.

대기업이 선택한 파트너

향진축산의 제품들은 대기업에서 선택할 정도로 품질에 있어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현재 CJ제일제당, 샘표, 대상, 동원 등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

들의 OEM 생산을 맡고 있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높은 납품 안정성으로 수준 높은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향진축산이라는 브랜드가 생소할 수 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육포 뒷면에 기입된 제조원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향진축산'이라는 이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육포 상품인 동원 상상육포, 샘표 질러육포, 청정원 사브작육포 등의 제조원을 확인하면 (주)향진축산제2공장이라는 이름을 꼭꼭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육포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팁

최근에는 육포가 간편간식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육포에도 새로운 트렌드가 일고 있다. 일반적인 육포가 아닌 고기를 구워 먹듯이 '구워 먹는 육포'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그냥 먹어도 충분히 맛있지만 불향을 더하고, 딱딱하게 구워낸 육포는 육



BEST OF BEST

채끝 스테이크 육포
채끝살은 소고기 중에서도 최상급 부위에 속한다.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귀한 채끝 부위로 만든 채끝 스테이크 육포는 고급스러움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육포의 선두주자다.

질이 더욱 부드러우면서도 풍미도 한층 살아나 맛있게 즐길 수 있다.

기호에 따라 참기름을 살짝 둘러 굽거나, 소스를 곁들여 먹어도 좋다. 가령 청양고추 간장마요 소스 혹은 와사비마요 소스와 함께 곁들이면 고소함과 감칠맛, 매콤한 풍미가 조화를 이루며 한층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향진축산에서는 구워 먹는 방식에 따라 채끝 스테이크 육포 등 프리미엄 제품도 선보이고 있다. 단순한 간식을 넘어 '굽는 즐거움'까지 담은 육포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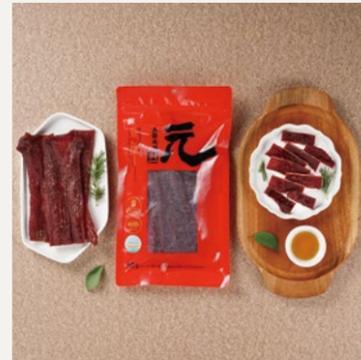
기술력과 차별화 포인트

1. 정밀 과학이 깃든 육포 향진축산의 육포는 양념이 고르게 스며드는 주입장치를 특허 받았을 정도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다. 또한 다단계 고온 열풍 건조 기술을 통해 균일한 맛과 육포 고유의 쫄

깃한 식감을 구현해낸다.

2. 단순한 간식 그 이상 육포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맛을 자랑하는 제품은 '채끝 스테이크 육포'다. 소한 마리에서 소량만 나오는 귀한 채끝 부위를 사용해 결이 곱고 부드러우며 육즙이 그대로 살아 있는 식감을 선사한다. 향진축산이 보유한 정밀 양념 주입 특허 기술과 다단계 열풍 건조 공정이 더해져 스테이크처럼 두툽한 고기 결 안에 양념이 고루 스며들어 씹을수록 감칠맛이 나는 게 특징이다. 채끝 스테이크 육포는 단순한 간식 그 이상의 요리라고 불릴 만하다. 최근 다이어트나 건강 식단에 많은 관심이 모이는 만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프리미엄 단백질 간식으로도 주목받는다. 고급스러운 패키지 디자인으로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이다. 운동 후 단백질을 보충하거나, 술안주, 간편간식으로도 손색없다. ◆

향진축산 BEST ITEM



원(元)육포

원육포는 한자로 ' 으뜸'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영어로는 'One(하나)'이라는 뜻을 지닌다. 향진축산의 원육포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브랜드로 가장 대중적으로 믿고 선택하는 제품이다.



인케이스 제품

인케이스 제품은 현재 이마트에서 인기 있는 제품으로 품질 보존을 위해 진공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다. 제품의 크기가 크고,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선물용으로도 사랑받는다.



저키즈(JERKIDS) 육포

저키즈 육포는 'Jerky For Kids'라는 뜻으로 어린이 영양간식으로 손색없는 제품이다. 오리지널, 치즈, 바비큐 세 가지 맛이 있으며, 특히 치즈와 바비큐 맛은 10~13g으로 개별 포장되어 매우 편리하다.



와규 육포

와규 육포는 살코기 사이에 있는 지방이 풍부해 부드러운 식감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육포 선물세트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 소중한 분들과 선물하기에 적합하다. 고급스러운 선물 포장으로 품격을 더했다.



치즈 육포

와인과 함께 곁들이기 좋은 안주용 육포. 치즈 애호가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아이들을 위한 고단백질 영양 간식으로도 그만이다.



나만의 와인 버틀러, 퍼플독

집에서 주말 저녁에 가볍게 와인을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와인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고, 와인을 사러 나가는 일이 번거롭다면 정기적으로 와인을 선정해 배송해주는 편리한 와인 큐레이션 서비스, 퍼플독을 기억해두자.



기호에 맞춘 나만의 와인 서비스, 퍼플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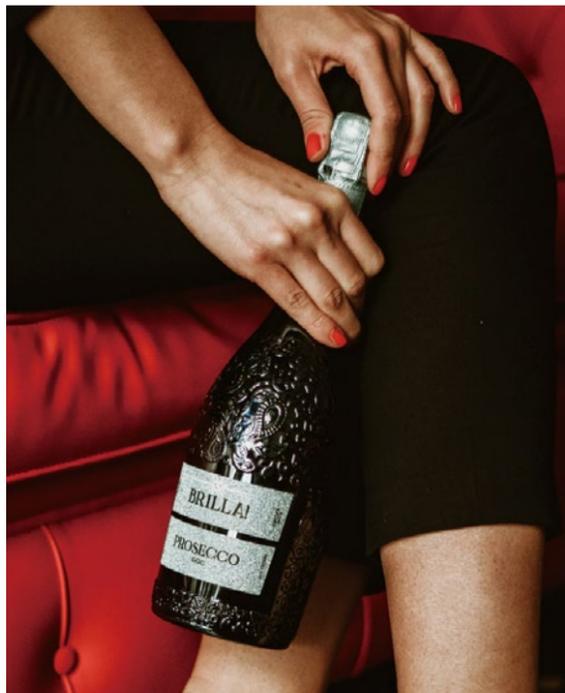
와인을 마시는 순간, 일상이 조금 더 우아해진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와인은 어렵고 낯선 존재다. '보디감', '산도', '테루아' 같은 생소한 용어에, 종류와 가격대는 또 얼마나 다양한지, 이런 고민 앞에서 누군가는 선택을 포기하고 만다. 이처럼 와인을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태어난 서비스가 있다. 퍼플독은 품격 있는 일상을 위한 '나만의 와인 버틀러'를 지향하며, 정기 구독 형태의 맞춤형 와인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퍼플(Purple)'은 고귀함을, '독(Dog)'은 충직함과 따뜻한 동반자를 의미한다. 이름처럼 퍼플독은 고객의 일상에 고급스러움과 따뜻한 취향을 함께 선사한다. 특히 AI 기반 취향 분석 시스템을 통해 와인의 당도, 도수, 보디감, 산미 등의 요소를 세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기호를 정밀하게 파악해 최적의 와인을 큐레이션한다. 단순히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취향을 읽고 제안하는 것, 그것이 퍼플독이 추구하는 본질이다.

와인을 풍성하게 즐기게 해주는 퍼플독의 와인 콘텐츠

퍼플독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와인에 대한 깊이 있는 콘텐츠다. 각 와인에 맞춘 상세한 설명서와 감각

적인 해설은 와인을 마시는 경험 자체를 보다 풍성하게 만든다. 마치 소믈리에가 곁에서 설명해주는 듯한 친절한 안내는 초보자에게는 유익하고, 마니아에게는 만족스러운 깊이를 전한다. 미국·유럽에서 검증된 구독 모델을 국내에 도입한 퍼플독은 자체 수입 라인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희소성과 품질을 모두 갖춘 와인을 직접 선별·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은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기업 고객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퍼플독은 다수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VIP 관리 및 임직원 복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단순한 와인 제공을 넘어 기업의 품격과 가치를 전달하는 '브랜드 앰배서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KPGA, 프로야구 등 스포츠 스폰서십을 확대하며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BRILLA!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스파클링 와인, 브릴라 프로세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제품은 KPGA VIP 라운지 협찬 와인으로 선정된 까사 비나콜라 보페르의 '브릴라 프로세코(Brilla Prosecco)'다.

1928년 설립된 보페르 가문이 3대째 운영하는 와이너리의 대표 스파클링 와인으로, 와이너리 소유의 포도밭에서만 포도를 수확해 생산하는 방식이 아닌, 이탈리아 각 지역의 품질 좋은 포도를 납품받아 직접 회사의 생산 시설에서 대규모로 와인을 양조하고 있다. 브릴라 프로세코는 이탈리아 베네토의 대표적인 스파클링 와인인 프로세코 와인이다. 프로세코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스파클링 와인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와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로세코는 와인을 양조하는 포도 재배 구역의 이름이자, 특정 포도 품종에 의해 정해진 지역명이다. 베네토 지방에서는 현재 프로세코 품종을 '글레라'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프로세코의 유명세를 빌려 타 지역이나 국가에서 프로세코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보호 조치다. 베네토 지역 프로세코 권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여성들을 위한 사랑스러운 와인

'브릴라 프로세코'는 신선한 버블감과 섬세한 산미, 흰 꽃과 시트러스의 향이 사랑스럽게 어우러진다. '반짝이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브릴라'라는 이름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버블과 밀집셀 킬러가 인상적이다. 가볍고 상쾌하게 마실 수 있어 여성 고객층에게 특히 사랑받으며, 피칸 너트나 치즈, 가벼운 애피타이저와의 페어링에서도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퍼플독의 와인 구독 서비스는 단순히 와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생활의 품격을 높이는 경험을 제안한다. 매달 나의 취향에 맞춰 도착하는 와인 한 병, 그 속에는 전문성과 정성, 그리고 나만을 위한 배려가 담겨 있다. 지금, 퍼플독과 함께 일상에 우아한 여유를 더해보자. ◆



켈피크루 3기, 상반기를 돌아보다

KLPGA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하고 응원하는 팬 크루, 켈피크루 3기가 올 시즌 상반기 활약을 마무리했다. KLPGA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 콘텐츠를 전한 크루들에게 상반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과 활동 소감을 들어보았다.

심혜진 @annie.golf



이번 상반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요? 5월에 열렸던 '제17회 두산 매치플레이'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KLPGA투어 경기 가운데 유일한 매치플레이 방식의 경기라 전투터 대가 컸어요.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 전 매치플레이에 대해 공부(?)까지 하고 갈 정도였어요. 매 홀 펼쳐지는 긴장감이 보는 사람마저 숨막히게 할 정도였는데요. 마지막 날 결승전을 관람했는데 이예원 선수의 우승 순간은 정말 짜릿했어요. 켈피크루 활동을 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요? KLPGA 팬이라면 꼭 켈피크루를 경험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켈피크루 담당자들이 잘 챙겨주셔서 매번 경기를 더 편하고 즐겁게 볼 수 있었어요. 가장 좋았던 점은 클럽하우스 출입이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일반 갤러리들은 클럽하우스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켈피크루는 클럽하우스 안에서 오기는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경기 중 휴식을 취할 수도 있어 정말 좋았어요. 또 갤러리 주차장이 아닌 발레 파킹 서비스나 클럽하우스 주차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했죠. 그 외에도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직접 켈피크루 활동을 하며 느껴보길 바라요.

김윤희 @terrific_yun



이번 상반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요? '제13회 E1 체리티 오픈'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단순한 골프 대회라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었어요. 특히 우승한 박현경 선수가 상급 전역을 기뻐한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죠. 스포츠 그 이상의 따뜻함을 느꼈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켈피크루 활동을 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요? 상반기 동안 갤러리로 가장 많은 대회를 관람한 해였던 것 같아요. 가까이서 선수들을 응원하고, 경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골프라는 스포츠를 더 깊이 이해하고 즐기게 되었고, 저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취미가 생긴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장우림 @forest_trainigg



이번 상반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요? 라데나 골프장에서 열린 '제17회 두산 매치플레이'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일반적인 스트로크 플레이와는 다른 형식의 매치플레이 방식이 신선했어요. 선수들도 평소와는 다른 전략과 집중력을 보여줘서 더 몰입하면서 관람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숨소리도 죽일 만큼 긴장감이 넘쳤고, 우승 후 팬들과 하나 되어 축하하는 현장 분위기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켈피크루 활동을 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요? 무엇보다 시즌권으로 직접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어요. 화면으로 보는 골프와 현장에서 느끼는 골프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현장에서의 긴장감, 선수들의 스윙 소리, 팬들의 응원까지 직접 느낄 수 있어서 골프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어요. 또 자신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을 수 있어 소중한 추억도 많이 쌓았어요.

김미진 @_mijin_



이번 상반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요? '202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이요. 곳은 날씨 속에서 열린 경기였는데도 선수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하며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악천후 속에서도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들을 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습니다. 켈피크루 활동을 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요? 개인 사정으로 많은 경기를 직접 관람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켈피크루로 활동하며 선수들의 경기를 보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게 되었어요. KLPGA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그 마음이 제 골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믿어요.

김선민 @sunminball



이번 상반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요? '2025 셉티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방실플 선수가 18홀 동안 10언더파를 기록했던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샷이 감탄스러웠고, 18홀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며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프로구나!" 싶었죠. 켈피크루 활동을 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요? KLPGA 대회를 다니며 느낀 건, 선수들뿐 아니라 그 무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많은 분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운영팀, 촬영팀, 갤러리까지 모두가 함께 만든 열정의 현장을 지켜보며 진한 감동을 느꼈어요. 또 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으며 골프에 대한 관심을 나누고 소통했던 시간이 가장 뜻깊었습니다.

켈피TV 가이드

KLPGA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재미! 게릴레이 인터뷰와 선수들의 MBTI를 알아보는 릴스, 우승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까지 켈피TV에서 지금 확인해보자.

[켈피티비]

01 2024시즌 큰 인기를 끌었던 게릴라 인터뷰가 2025시즌 재미를 담아 게릴레이 인터뷰로 찾아왔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이 다음 인터뷰 대상자를 지목하고 찾아가는, 오직 켈피TV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인터뷰!



게릴레이 인터뷰 1편, 2편



이구동성 게임 KLPGA 최고의 게임을 찾아라!?



몸으로 말해요 KLPGA 팀 대항전! 과연 승리팀은?!

[릴스 영상]

02 1 MBTI 모음 1, 2, 3편 1편: 'T' 안 좋다고 한 사람 누구? KLPGA에서는 T가 대체?! 2편: 'T' 다음은 'J'가 필요?! KLPGA 선수들 원픽 MBTI는?! 3편: KLPGA 선수들이 뽑은 골프 최적화 MBTI 골판왕은?!



02 켈피티비 우승자 픽터뷰 [인스타그램] 2025시즌 우승자에게 분야별 최강자가 누군지 묻다! 선수들의 대답이 궁금하다면?? GOGO~



'iM금융오픈 2025' 우승자 김민주 선수가 뽑은 분야별 최강자!



KLPGA투어 방실플 선수 켈피TV 픽터뷰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5' 우승자 방실플 선수가 뽑은 같이 플레이하고 싶은 선수는?



'덕신EPC 챔피언십' 우승자 김민선7 선수의 픽터뷰!



'202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시즌 2승을 달성한 이예원 선수가 뽑은 픽터뷰!

2025 K L P G A T O U R

SCHEDULE *정규투어

3
march

▶ 13~16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
일정: 3월 13~16일
장소: 블루캐니언
총상금: 80만 달러
우승자: 박보경

4
april

▶ 3~6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
일정: 4월 3~6일
장소: 동래베네스트
총상금: 12억 원
우승자: 이예원

▶ 10~13
NEW
iM금융오픈 2025
일정: 4월 10~13일
장소: 골프존카운티 선산
총상금: 10억 원
우승자: 김민주

▶ 18~20
넥센 ·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5
일정: 4월 18~20일
장소: 가야
총상금: 9억 원
우승자: 방신실

▶ 24~27
NEW
덕신EPC 챔피언십
일정: 4월 24~27일
장소: 킹스데일
총상금: 10억 원
우승자: 김민선7

5
may

▶ 1~4
★ 크리스에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
일정: 5월 1~4일
장소: 레이크우드
총상금: 13억 원
우승자: 홍정민

▶ 9~11
202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일정: 5월 9~11일
장소: 수원
총상금: 10억 원
우승자: 이예원

▶ 14~18
제17회 두산 매치플레이
일정: 5월 14~18일
장소: 라데나
총상금: 10억 원
우승자: 이예원

▶ 23~25
제13회 E1 채리티 오픈
일정: 5월 23~25일
장소: 페럼
총상금: 10억 원
우승자: 박현경

▶ 30~6/1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일정: 5월 30일~6월 1일
장소: 더스타휴
총상금: 10억 원
우승자: 정윤지

6
june

▶ 6~8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일정: 6월 6~8일
장소: 성문안
총상금: 12억 원
우승자: 이기영

▶ 12~15
★ DB그룹 제39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
일정: 6월 12~15일
장소: 레인보우힐스
총상금: 12억 원
우승자: 이동은

▶ 20~22
더해븐 마스터즈
일정: 6월 20~22일
장소: 더해븐
총상금: 10억 원
우승자: 노승희

▶ 27~29
맥콜 · 모나 용평 오픈 with
SBS Golf
일정: 6월 27~29일
장소: 버치힐
총상금: 10억 원

7
july

▶ 3~6
제15회 롯데오픈
일정: 7월 3~6일
장소: 베어즈베스트 청라
총상금: 12억 원

▶ 10~13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5
일정: 7월 10~13일
장소: 하이원
총상금: 10억 원

▶ 31~8/3
NEW
오로라월드 챔피언십
일정: 7월 31~8월 3일
장소: 오로라
총상금: 10억 원

8
august

▶ 7~10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즈
일정: 8월 7~10일
장소: 사이프러스
총상금: 10억 원

▶ 14~17
메디힐 · 한국일보
챔피언십
일정: 8월 14~17일
장소: 몽베르
총상금: 10억 원

▶ 21~24
BC카드 · 한경
레이디스컵 2025
일정: 8월 21~24일
장소: 포천힐스
총상금: 14억 원

▶ 29~31
제14회 KG 레이디스 오픈
일정: 8월 29~31일
장소: 씨닝포인트
총상금: 8억 원

9
september

▶ 4~7
★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일정: 9월 4~7일
장소: 블랙스토 이천
총상금: 12억 원

▶ 12~14
OK저축은행 웃맨 오픈
일정: 9월 12~14일
장소: 포천아도니스
총상금: 10억 원

▶ 18~21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일정: 9월 18~21일
장소: 베어즈베스트 청라
총상금: 15억 원

▶ 25~28
★ 제25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일정: 9월 25~28일
장소: 블루헤런
총상금: 15억 원

10
october

▶ 1~4
2025
동부건설 · 한국토지신탁
챔피언십
일정: 10월 1~4일
장소: 익산
총상금: 10억 원

▶ 16~19
상상인 · 한국 와우넷 오픈
2025
일정: 10월 16~19일
장소: 레이크우드
총상금: 12억 원

▶ 23~26
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일정: 10월 23~26일
장소: 미정
총상금: 미정

▶ 30~11/2
S-OIL 챔피언십 2025
일정: 10월 30일~11월 2일
장소: 엘리시안 제주
총상금: 10억 원

11
november

▶ 7~9
대보 하우스디 오픈
일정: 11월 7~9일
장소: 서원힐스
총상금: 10억 원

2025 K LPGA TOUR

SCHEDULE

드림투어 / 점프투어 / 챔피언스투어

D
DREAM TOUR

J
JUMP TOUR

C
CHAMPIONS TOUR

01 JANUARY

24~26 **D** **우승자: 황유나**
KLPGA 2025 드림투어 인도네시아 여자오픈
장소: 디마이 인다 골프

02 FEBRUARY

12~14 **D** **우승자: 김기영**
KLPGA 2025 드림투어 필리핀 레이디스 마스터즈
장소: 더 컨트리 클럽

04 APRIL	05 MAY	06 JUNE	07 JULY	08 AUGUST	09 SEPTEMBER	10 OCTOBER
<p>7~8 D 우승자: 김민솔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 장소: 군산 / 총상금: 7천만 원</p> <p>15~16 D 우승자: 김민솔 KLPGA 2025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2차전 장소: 무안 / 총상금: 7천만 원</p> <p>15~16 J 우승자: 송지윤(S) KLPGA 2025 백제CC · 삼대인 흥삼불 점프투어 1차전 장소: 백제 / 총상금: 3천만 원</p> <p>21~22 D 우승자: 황유나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3차전 장소: 군산 / 총상금: 7천만 원</p> <p>21~22 J 우승자: 이다빈(B) KLPGA 2025 백제CC · 삼대인 흥삼불 점프투어 2차전 장소: 백제 / 총상금: 3천만 원</p> <p>23~24 J 우승자: 김재린(S) KLPGA 2025 백제CC · 삼대인 흥삼불 점프투어 3차전 장소: 백제 / 총상금: 3천만 원</p> <p>24~25 C 우승자: 민인숙 KLPGA 2025 챔피언스 클래식 1차전 장소: 군산 / 총상금: 7천만 원</p> <p>28~29 D 우승자: 정영화 KLPGA 2025 휘닉스CC 드림투어 4차전 장소: 휘닉스 / 총상금: 7천만 원</p> <p>29~30 J 우승자: 이다빈(B) KLPGA 2025 백제CC · 삼대인 흥삼불 점프투어 4차전 장소: 백제 / 총상금: 3천만 원</p>	<p>7~8 D 우승자: 김지수 KLPGA 2025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5차전 장소: 무안 / 총상금: 7천만 원</p> <p>12~13 C 우승자: 우선화 KLPGA 2025 챔피언스 클래식 2차전 장소: 군산 / 총상금: 7천만 원</p> <p>19~20 J 우승자: 강민진 0610(A) KLPGA 2025 다산베아체 골프앤리조트 점프투어 with SBS골프 5차전 장소: 다산베아체 / 총상금: 3천만 원</p> <p>26~27 J 우승자: 황보민(S) KLPGA 2025 다산베아체 골프앤리조트 점프투어 with SBS골프 6차전 장소: 다산베아체 / 총상금: 3천만 원</p> <p>26~28 D 우승자: 안재희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6차전 장소: 군산 / 총상금: 1억 원</p>	<p>2~3 J 우승자: 조하리(S) KLPGA 2025 다산베아체 골프앤리조트 점프투어 with SBS골프 7차전 장소: 다산베아체 / 총상금: 3천만 원</p> <p>9~10 D 우승자: 황유나 KLPGA 2025 휘닉스CC 드림투어 7차전 장소: 휘닉스 / 총상금: 7천만 원</p> <p>9~10 J 우승자: 문서영(S) KLPGA 2025 다산베아체 골프앤리조트 점프투어 with SBS골프 8차전 장소: 다산베아체 / 총상금: 3천만 원</p> <p>24~25 D 우승자: 김민솔 KLPGA 2025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8차전 장소: 무안 / 총상금: 7천만 원</p>	<p>8~10 D KLPGA 2025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9차전 장소: 무안 / 총상금: 1억 원</p> <p>14~15 D KLPGA 2025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 · 세기P&C 드림투어 with SBS골프 10차전 장소: 유니아일랜드 / 총상금: 7천만 원</p> <p>15~16 J KLPGA 2025 솔라고 점프투어 9차전 장소: 솔라고 / 총상금: 3천만 원</p> <p>22~23 D KLPGA 2025 휘닉스CC 드림투어 11차전 장소: 휘닉스 / 총상금: 7천만 원</p> <p>22~23 J KLPGA 2025 솔라고 점프투어 10차전 장소: 솔라고 / 총상금: 3천만 원</p> <p>29~30 C KLPGA 2025 삼발라 골프앤리조트 · SBS골프 챔피언스 클래식 3차전 장소: 삼발라 / 총상금: 7천만 원</p> <p>29~30 J KLPGA 2025 솔라고 점프투어 11차전 장소: 솔라고 / 총상금: 3천만 원</p>	<p>5~6 J KLPGA 2025 솔라고 점프투어 12차전 장소: 솔라고 / 총상금: 3천만 원</p> <p>11~12 D KLPGA 2025 유니아일랜드 골프앤스파 리조트 · 세기P&C 드림투어 with SBS골프 12차전 장소: 유니아일랜드 / 총상금: 7천만 원</p> <p>25~26 D KLPGA 2025 모나크CC · 000 드림투어 13차전 장소: 모나크 / 총상금: 7천만 원</p> <p>26~27 C KLPGA 2025 삼발라 골프앤리조트 · SBS골프 챔피언스 클래식 4차전 장소: 삼발라 / 총상금: 7천만 원</p>	<p>8~9 C KLPGA 2025 챔피언스 클래식 5차전 장소: 군산 / 총상금: 1억 6천만 원</p> <p>15~16 D KLPGA 2025 스카이뷰CC 세기P&C 드림투어 with SBS골프 15차전 장소: 스카이뷰CC / 총상금: 1억 원</p> <p>15~16 J KLPGA 2024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5차전 장소: 그랜드 / 총상금: 3천만 원</p> <p>17~18 J KLPGA 2024 그랜드 · 삼대인 점프투어 16차전 장소: 그랜드 / 총상금: 3천만 원</p> <p>22~23 D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6차전 장소: 군산CC / 총상금: 7천만 원</p> <p>22~23 C KLPGA 2025 SBS골프 챔피언스 투어 6차전 장소: 미정 / 총상금: 7천만 원</p> <p>29~30 D 만수정 KLPGA 2025 드림투어 17차전 장소: 휘닉스 / 총상금: 7천만 원</p> <p>29~30 C KLPGA 2025 SBS골프 챔피언스 투어 7차전 장소: 미정 / 총상금: 7천만 원</p>	<p>13~14 C KLPGA 2025 SBS골프 챔피언스 투어 8차전 장소: 미정 / 총상금: 7천만 원</p> <p>13~14 D KLPGA 2025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18차전 장소: 무안CC / 총상금: 7천만 원</p> <p>20~22 D KLPGA 파마리서치 리주란 드림투어 왕중왕전 2025 장소: 휘닉스 / 총상금: 2억 원</p>



2025 K-RANKING [25주 차]



1

LEE YE WON

이예원

랭킹 포인트 **9.9241**
 합계 포인트 **535.90**
 출전 대회 수 **54**

2

YOON INA

윤이나

랭킹 포인트 **7.9294**
 합계 포인트 **277.53**
 출전 대회 수 **25**



5

YOO HYUN JO

유현조

랭킹 포인트 **7.3140**
 합계 포인트 **299.87**
 출전 대회 수 **41**



8

RO SEUNG HUI

노승희

랭킹 포인트 **6.3735**
 합계 포인트 **382.41**
 출전 대회 수 **60**



3

HWANG YOU MIN

황유민

랭킹 포인트 **7.6184**
 합계 포인트 **365.68**
 출전 대회 수 **48**



6

PARK HYUN KYUNG

박현경

랭킹 포인트 **7.2115**
 합계 포인트 **403.84**
 출전 대회 수 **56**



4

PARK JI YOUNG

박지영

랭킹 포인트 **7.5485**
 합계 포인트 **400.07**
 출전 대회 수 **53**



7

KIM SU JI

김수지

랭킹 포인트 **7.1921**
 합계 포인트 **359.61**
 출전 대회 수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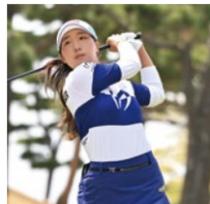


10

LEE DONG EUN

이동은

랭킹 포인트 **6.0370**
 합계 포인트 **307.89**
 출전 대회 수 **51**



2025시즌 투어 주요 순위

※ '더헤븐 마스터즈' 종료 기준

상금 순위

1		이예원	807,317,865
2		홍정민	593,260,000
3		이동은	532,040,833
4		이가영	430,999,667
5		노승희	401,873,087

신인상 포인트

1		김시현	745
2		정지효	547
3		서지은	516
4		송은아	473
5		한아름	351

※ 'KLPGA 2025 무안CC · 올포유 드림투어 8차전' 기준

드림투어 상금 순위

1		황유나	48,771,667
2		김민솔	39,952,167
3		고지원	24,936,833
4		김지수	23,093,222
5		안재희	21,300,778

WEMADE 대상포인트

1		이예원	344
2		박현경	269
3		이동은	248
4		홍정민	226
5		유현조	222

평균 타수

1		이예원	70.0294
2		이동은	70.1053
3		방신실	70.1875
4		박현경	70.3846
5		유현조	70.3889

※ 'KLPGA 2025 챔피언스 클래식 2차전' 기준

챔피언스투어 상금 순위

1		최혜정	21,000,000
2		우선화	17,750,000
3		민인숙	15,725,000
4		이실비아	11,200,000
5		조형진(S)	7,225,000

해외 교습가 초청 세미나 'Coaching with Pressure & Forces'



지난 5월 7일 청담동에 위치한 클럽디 청담 2층에서 2025년 주최단체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KLPGA 은퇴 선수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Coaching with Pressure & Forces'가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조 플레커(Joe Plecker)는 2024, 2025 PGA Education Conference 연사 및 PGA 겸임 교원으로 활동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Class A 강의, 각종 골프 브랜드 세미나 활동(타이틀리스트, 스윙카탈리스트) 등 최신 레슨 트렌드를 다양하게 전달하며 유익한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회원들이 레슨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인 교육도 진행했다. 지면반력 이론교육과 함께 레슨 현장에서 활용하기 좋은 티칭법과 실습까지 병행해 강의는 물론 교육효과까지 더했다. 이번에 참가한 회원들은 내용이 실용적이고 매우 유익했다는 평을 남겼다. 이번 세미나에 참가한 강사 조 플레커는 "티칭 연구를 이렇게 한국에서 함께 나눌 수 있어 큰 영광"이라면서 "KLPGA의 전문성과 열정이 큰 영감을 주었고, 활기차고 수준 높은 골프 커뮤니티와 교류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에서 골프 꿈나무 육성과 유소년 선수 저변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KLPGA 엘리트 유소년 골프 멘토링'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KLPGA 엘리트 유소년 골프 멘토링'은 지난 5월 17일(토)과 18일(일) 경기도 용인시 싸남포인트 컨트리클럽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초등부(4~6학년) 39명과 중등부(1~3학년) 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유소년 선수들의 입소식을 시작으로 퍼트, 어프로치 등 원포인트 레슨을 받았고, 멘토 선수들과 함께 팀을 구성해 필드에서 직접 실전 감각을 익혔다. 또한 참여한 선수들 대상으로 KLPGA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의 멘토링 프로그램도 열렸다. KLPGA투어 우승 경험이 있는 송가은과 유효주를 비롯해 2025시즌 드림투어 우승자인 황유나, 김기영, 김지수 등 총 26명의 선수들이 멘토로 참여해 유소년 선수들에게 노하우와 경험을 알려주었다. 한편 KLPGA의 '엘리트 유소년 골프 멘토링'은 그동안 수많은 유망주들을 발굴하며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예원, 김민별, 방신실 등이 현재 KLPGA투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2025년 KLPGA 엘리트 유소년 골프 멘토링'



위메이드 대상포인트 우수 선수

우승의 기쁨도 크지만, 또 하나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위메이드 대상포인트 월간 MVP로 선정되는 것이다. 'KLPGA 위메이드 대상포인트'에서 월간 우수 선수로 선정되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3
MARCH

3월 우수 선수
박보겸

박보겸은 3월 열린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 개막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위메이드 대상포인트 70점을 한 번에 획득했고, 덕분에 3월 월간 MVP로 선정되었다. 시즌 첫 대회부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대상 레이스에 일찍이 발을 들인 뒤, 중순 기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4
APRIL

4월 우수 선수
방신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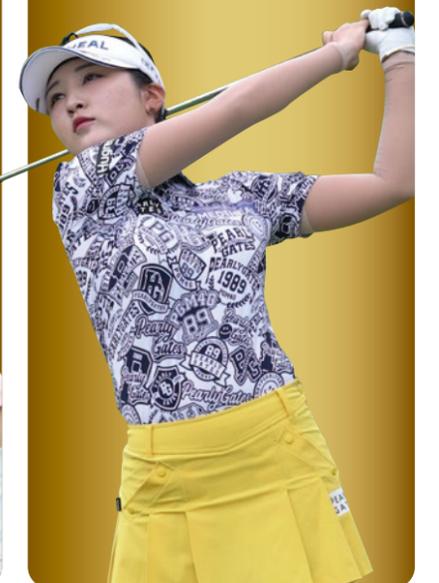
4월의 주인공은 장타 여왕 방신실이다.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2025' 우승으로 60점을 획득한 데 이어, 4월 내내 열린 4개 대회에서 모두 톱텐에 진입하며 월간 누적 149점을 달성하며 4월 MVP 자리에 올랐다.



5
MAY

5월 우수 선수
이예원

5월에는 이예원이 압도적인 활약을 보였다. '202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과 '제17회 두산 매치플레이'에서 연속 우승하며, 엄청난 포인트를 쌓았다. 특히 5월 한 달간 열린 5개 대회 중 4회 톱텐에 진입하며 누적 211포인트를 확보, 단연 월간 최고 자리에 올랐다.



KLPGA TOUR NEWS

KLPGA & MEMBER'S / 2025. SUMMER

DREAM TOUR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
김민술,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군산 컨트리클럽(파72/6510야드)의 부안(OUT), 남원(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1차전'에서 김민술(19, 두산건설 We've)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술은 "지난주에 정규투어를 뛰고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있어서 최대한 차근차근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노력했다. 경기력이 좋아서 만족스러웠는데, 이렇게 첫 우승까지 하게 돼 더욱 기쁘다"라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KLPGA 2025 무안CC·울포유 드림투어 2차전'
김민술, 4차 연장 끝에 드림투어 2개 대회 연속 우승!

전라남도 무안에 위치한 무안 컨트리클럽(파72/6562야드)의 서A(OUT), 서B(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무안CC·울포유 드림투어 2차전'에서 김민술(19, 두산건설 We've)이 4차 연장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김민술은 "시즌 초반에 생각지도 못한 연속 우승이 나와서 얼떨떨하면서도 정말 행복하다. 감기 기운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도 이번 대회에서는 퍼트가 잘 따라줘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한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3차전'
황유나, 드림투어 시즌 2승 달성!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군산 컨트리클럽(파72/6510야드)의 부안(OUT), 남원(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군산CC 드림투어 3차전(총상금 7000만 원, 우승상금 1050만 원)'에서 황유나(22)가 드림투어 시즌 2승을 차지했다. 황유나는 "지난주 'KLPGA 2025 무안CC·울포유 드림투어 2차전'에서 4차 연장 끝에 아쉽게 준우승을 해 많이 속상했지만, 그 아쉬움을 바로 다음 대회에서 우승으로 만회하게 되어 기쁘다. 지난 대회에서 티샷이 흔들렸는데 아쉬웠던 티샷을 보완하기 위해 안정화에 집중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KLPGA 2025 휘닉스CC 드림투어 4차전'
정영화, 프로 데뷔 이후 첫 우승!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휘닉스 컨트리클럽(파72/6361야드)의 마운틴(OUT), 레이크(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휘닉스CC 드림투어 4차전(총상금 7000만 원, 우승상금 1050만 원)'에서 정영화(20)가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했다. 정영화는 "예상하지 못한 우승이라 아직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입을 뗀 뒤 "이번 대회에서는 아이언샷이 원하는 대로 잘 들어 많은 버디 찬스를 만들 수 있었고, 퍼트도 잘 따라줘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며 우승 소감을 전했다.



'KLPGA 2025 무안CC·울포유 드림투어 5차전'
김지수, 우승과 함께 드림투어 통산 3승 달성!

전라남도 무안에 위치한 무안 컨트리클럽(파72/6420야드)의 남A(OUT), 남B(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무안CC·울포유 드림투어 5차전(총상금 7000만 원, 우승상금 1050만 원)'에서 김지수(31)가 우승했다. 김지수는 "사실 마지막 홀까지 내가 선두인지 몰랐는데, 18번 홀에 있는 카메라 감독님과 피디님이 알려줘서 우승인 줄 알게 됐다. 생각보다 일찍 우승해서 얼떨떨하지만 정말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JUMP TOUR



'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점프투어 1차전' 송지윤 생애 첫 우승!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 컨트리클럽(파72/6525야드)의 웅진(OUT), 사비(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점프투어 1차전(총상금 3000만 원, 우승상금 450만 원)'에서 연장 접전 끝에 송지윤(19)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송지윤은 "연장까지 가면서 떨렸지만, 내 플레이에만 집중하려 노력했다"라고 입을 열어 "우승을 확정하고 얼떨떨해서 기쁨을 제대로 만끽 못했다. 조금 지나니까 정말 기쁘고 좋다. 프로턴 하고 첫 대회에서 우승해서 더욱 행복하다"는 우승 소감을 전했다.



'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점프투어 2차전' 이다빈B 우승!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 컨트리클럽(파72/6525야드)의 웅진(OUT), 사비(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점프투어 2차전(총상금 3000만 원, 우승상금 450만 원)'에서 이다빈B(19)가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다빈은 "예상치 못한 우승이라 얼떨떨하다. 우승이 확정된 후, 지난해 프로 무대에 합류하고 부담감에 힘들었던 시절이 생각나 울컥하기도 했지만, 목표로 했던 우승을 해내서 기분 좋다"라는 우승 소감을 전했다.



'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점프투어 3차전' 김재린, 생애 첫 점프투어 우승!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 컨트리클럽(파72/6525야드)의 웅진(OUT), 사비(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점프투어 3차전(총상금 3000만 원, 우승상금 450만 원)'에서 김재린(19)이 생애 첫 점프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김재린은 "지난 대회까지 내 경기력에 만족하지 못해 이번 대회에서는 마음을 새로 다잡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다. 부족했던 쇼트 퍼트는 집중적으로 보완했고, 드라이브샷 실수도 교정을 통해 좋아지며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지금까지의 노력을 우승으로 보상받는 것 같아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점프투어 4차전' 이다빈B, 시즌 2승 달성!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 컨트리클럽(파72/6525야드)의 웅진(OUT), 사비(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점프투어 4차전(총상금 3000만 원, 우승상금 450만 원)'에서 이다빈B(19)가 우승하며 시즌 2승을 달성했다. 이다빈B는 우승 소감으로 "처음 우승했을 때 인터뷰에서 '시즌 2승이 목표'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가능할까 의심도 들었다. 그래도 자신감을 갖고 이번 대회에서 한번 해보자고 다짐했는데, 이렇게 이뤄 정말 기쁘다. 오늘은 특히 퍼트가 잘 떨어줘서 경기를 잘 풀어가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CHAMPIONS TOUR

2025 챔피언스



'KLPGA 2025 챔피언스 클래식 1차전' 민인숙, 챔피언스투어 통산 6승 달성!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군산 컨트리클럽(파72/5967야드)의 전주(OUT), 익산(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챔피언스 클래식 1차전(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1500만 원)'에서 민인숙(52)이 챔피언스투어 통산 6승을 차지했다. 민인숙은 "최근 몇 년 동안 별다른 훈련 없이 투어를 뛰었는데, 올 시즌을 앞두고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으로 다시 훈련을 열심히 했다"리면서 "이렇게 바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2025 챔피언스



'KLPGA 2025 챔피언스 클래식 2차전' 우선화, 입회 11년 만에 첫 우승!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군산 컨트리클럽(파72/5967야드)의 전주(OUT), 익산(IN)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챔피언스 클래식 2차전(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1500만 원)'에서 우선화(46)가 입회 11년 만에 첫 우승을 이뤘다. 우선화는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간절히 바라왔던 우승이라 정말 행복하다. 대회마다 조금씩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온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다"라고 박찬우승 소감을 전했다.



KLPGA 2025 투어프로 및 루키 세미나 성료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KLPGA)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5 투어프로 세미나와 루키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3월 26일(수)에 열린 KLPGA 2025 투어프로 세미나에는 2025시즌 정규투어 시드권자와 시드순위 50위 이내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128명의 선수가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규투어 규정과 주요 경기 룰 설명을 비롯해, 응급처치와 도핑 방지 교육, 미디어 대응 및 인터뷰 스킬 강의 등 투어 프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KLPGA WEMADE

박현경, JLPGA 메이저대회 출전해 'KLPGA 위메이드 대상포인트' 획득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KLPGA 투어에서 활동 중인 박현경(25, 미디어)이 일본에서 열린 JLPGA 메이저대회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샬롱파스컵'에 출전해 토포에 들며, KLPGA 위메이드 대상포인트를 획득했다. KLPGA는 지난 4월, '글로벌 전략 가속화'를 위한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KLPGA투어 활동 선수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USLPGA 및 JLPGA 메이저대회에 참가해 상위 성적(10위 이내)을 거둘 경우, 해당 순위에 대해 국내 메이저대회와 동일한 대상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해당 규정이 시행된 후, KLPGA 선수가 해외 메이저대회 성과를 통해 국내 공식 포인트를 획득한 첫 사례다.



2025 KLPGA 켈피크루 3기 발대식 열려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이하 KLPGA)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KLPGA 빌딩에서 '2025 KLPGA 켈피크루 3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번 켈피크루 3기에 선정된 5명은 모두 새로운 얼굴로 구성됐다. 유명 TV 프로그램 <나는 솔로> 23기 영숙으로 출연해 골프에 대한 애정을 밝혔던 김미진 씨를 비롯해 김선민, 김윤희, 심혜진, 장우림 씨(이상 가나다순)로 구성됐다. 켈피크루 3기의 활동기간은 발대식이 진행된 3월 28일부터 상반기 마지막 대회 '2025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의 최종라운드인 8월 31일(일)까지다.



KLPGA,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위해 기부금 2000만 원 전달

5월 8일(목),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KLPGA빌딩에서 경남·경북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자선기금 2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부는 지난 3월 22일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진행됐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규정 개정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이하 KLPGA)는 3월 31일(월), 서울 강동구 KLPGA 빌딩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5 KLPGA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김상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KLPGA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으로 '글로벌 전략 가속화'를 제시했으며, KLPGA 이사회는 이에 발맞춰 핵심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해외 대회와 국내 메이저대회의 일정이 중복될 경우, 국내 메이저대회 출전을 의무화했던 기존 규정을 폐지해 선수가 선택권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선수들은 국제 경험을 쌓을 기회가 확대되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KLPGA 투어 활동 선수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USLPGA 및 JLPGA 메이저대회에 참가해 상위 성적을 거둘 경우, 해당 순위에 대해 국내 메이저대회와 동일한 대상포인트를 부여하기로 했다. 해외 대회에서의 성과가 KLPGA의 공식 대상포인트 기록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외 활약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준으로 대상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KLPGA, '제13회 티 캐리티 오픈' 상금 1억 원 증액 발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제13회 티 캐리티 오픈'의 총상금을 1억 원 증액했다. 이로써 티 캐리티 오픈은 총상금이 9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정돼 10억 원 이상 대회 대열에 합류했다.



'202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서 '행복미(米) 밥차' 운영, 쌀 소비 촉진 앞장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NH투자증권(대표 윤병운)이 주최하는 '2025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농협경제지주(대표 박서홍)와 함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행복미(米) 밥차' 행사를 진행했다. 행복미 밥차는 5번 홀 티잉 그라운드 인근에서 운영되며, 본 대회 기간 동안 선수와 캐디에게 밥 영양샌드, 유부초밥, 무스비 등 쌀 간편식과 식혜, 국산 바나나 등으로 구성된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 아울러 이번 대회 5번 홀에서 선수들이 버디를 기록할 경우, 버디 1회당 쌀 100kg을 적립해 대회 종료 후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쌀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뜻깊은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선수들의 플레이에 따뜻한 의미를 더했다.



농협경제지주와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업무협약식 가져

4월 30일(수),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KLPGA빌딩에서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아침밥 먹기 운동과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KLPGA 회원 사은품과 각종 행사 기념품에도 우리 농산물을 적극 활용해 일상 속 소비 확대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정규투어 2회와 챔피언스투어 2회에 걸쳐 쌀과 쌀 가공식품 및 농산물 소비 촉진 활동을 다양하게 펼칠 예정이다.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개최 확정 및 'OK저축은행 뒀맨 오픈' 상금 2억 원 증액 발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는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의 개최가 확정됐고, 'OK저축은행 뒀맨 오픈'은 총상금 2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먼저, 6월 6일(금)부터 사흘간 열린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성문안에서 총상금 12억 원을 놓고 펼쳐졌다. 또한, 지난해 8억 원으로 열린 OK저축은행 뒀맨 오픈은 2억 원 증액된 10억 원으로 총상금을 확정하며 10억 원 이상 대회 대열에 합류했다. OK저축은행 뒀맨 오픈의 상금 증액으로 2025시즌 KLPGA투어는 총상금 약 327억 원, 평균상금 약 10억9000만 원 규모로 열리게 됐고, 10억 원 이상의 대회는 30개 대회 중 27개로 늘어나면서 전체 대회 중 무려 90%를 차지하게 됐다.



'KLPGA 2025 휘닉스CC 드림투어' 개최 조인식 가져

3월 27일(목),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이하 KLPGA)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KLPGA빌딩에서 휘닉스 중앙평창(대표이사 전영기)와 함께 'KLPGA 2025 휘닉스CC 드림투어'의 개최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번 조인식으로 휘닉스중앙평창(후)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KLPGA 드림투어를 개최하게 됐다.

전설과 함께 출발한 KLPGA 챔피언십, 역대 우승자가 직접 출전 선수 소개 나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2025시즌 KLPGA투어 첫 메이저대회 '크리스토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처음으로 역대 우승자들이 티잉 그라운드 선 선수를 직접 소개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KLPGA투어에서는 첫 번째 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선수의 이름과 소속이 소개된 뒤 첫 티샷이 시작됐다. 2라운드에서는 특별히 KLPGA 챔피언십의 역대 우승자들이 직접 출전 선수들의 이름을 소개하며 경기의 시작을 함께했다.



KLPGA, 'KLPGA 2025 스카이뷰CC' 세기P&C 드림투어 with SBS골프' 개최 조인식 가져

5월 14일(수),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KLPGA빌딩에서 'KLPGA 2025 스카이뷰CC 세기P&C 드림투어 with SBS골프'의 개최 조인식을 진행했다. 스카이뷰 컨트리클럽(회장 우승희), 세기P&C(회장 이봉훈), 그리고 SBS골프(대표 이상근)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KLPGA 2025 스카이뷰CC 세기P&C 드림투어 with SBS골프'는 드림투어 15차전으로 펼쳐진다. 총상금은 1억 원이며, 대회는 9월 15일(월)부터 16일(화)까지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진행된다.



KLPGA, '크리스에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 출전하는 엄마 골퍼에게 숙소 제공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크리스에프앤씨 제47회 KLPGA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엄마 골퍼'들에게 숙소를 제공했다. KLPGA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출산 후에도 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엄마 골퍼' 안선주(38, 만수정)와 박주영(35, 동부건설)에게 경기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회장 인근 숙소를 제공하고, 주차 공간도 추가로 지원했다.



'2024 에픽 KLPGA 트레이딩 카드' 출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국내 최초 여자골프를 테마로 한 트레이딩 카드인 '2024 에픽 KLPGA 트레이딩 카드'를 공식 출시했다. KLPGA는 트레이딩 카드 전문 기업 ㈜하비코리아(이하 하비코리아)와 공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KLPGA 선수들의 사진이 담긴 트레이딩 카드를 출시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7월 선발매한 바 있다. 2024 KLPGA 제16대 홍보모델 선수를 테마로 한 2024 에픽 KLPGA 포토 카드가 KLPGA 팬들의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이번에 공식 출시되는 카드에는 2024시즌 KLPGA투어에서 활약한 약 110여 명 선수들이 등장한다.



KLPGA 구단 랭킹 신설, 구단 경쟁으로 투어 흥미 요소 더한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소속 선수의 성적으로 구단 간 순위 대결을 펼치는 '구단 랭킹'을 새롭게 도입한다. 구단 랭킹은 소속 선수의 대회별 성적을 기반으로 구단의 순위를 매기는 시스템으로 KLPGA 정규투어와 드림투어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정규투어나 드림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 1명 이상을 메인 스폰서로 후원하는 모든 구단이 구단랭킹에 참여할 수 있다. 구단랭킹은 구단 대표 선수 2명의 '팀 베스트 스코어' 방식으로 운영한다. 대표 선수는 대회별로 구단 내에서 K-랭킹이 높은 선수 2명이 자동으로 선정되며, 구단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소속 선수가 1명일 경우 해당 선수의 성적이 구단 성적으로 반영된다. 각 대회가 종료되면 구단 성적이 'K-랭킹 배점표'를 기준으로 한 랭킹 포인트로 환산돼 시즌 누적 순위에 반영된다.

KLPGA, 각종 제도 정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추진

KLPGA가 정규투어 시드권 부여 기준을 신설해 오랜 기간 협회에 기여한 선수들에게 정규투어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K-10클럽 가입자' 또는 '생애 누적 상금 25억 원 이상자' 중 미활동자를 대상으로 매년 이사회에서 성적, 협회 기여도,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명 이내의 선수에게 다음 1개 시즌 정규투어 시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챔피언스투어 상금 랭킹 1위(재단, 정회원에 한함)에게 다음 1개 시즌 정규투어 시드권을 부여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신설된 정규투어 시드권 부여 기준은 2026시즌부터 시행된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더욱 박진감 넘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분과 위원회와 선수분과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플레이 속도 개선 실행안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KLPGA 선수들과 세계적인 선수들이 경쟁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 대회 공동주관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KLPGA, 위메이드와 'KLPGA 대스포인트' 파트너십 재계약 체결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는 ㈜위메이드와 KLPGA 대스포인트 명칭 사용 및 후원에 관한 파트너십을 이어간다. 이번 재계약을 통해 KLPGA 대스포인트의 공식 명칭은 계속해서 'KLPGA 위메이드 대스포인트'로 사용되며, 위메이드는 해당 명칭에 대한 파트너로서 배타적 권리를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KLPGA투어 중계 방송을 비롯해 공식 웹사이트, 모바일 앱, 각종 미디어 및 온라인 콘텐츠에서 해당 명칭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대회장 내 집합 광고와 순위 보드를 통한 로고 노출 혜택도 제공된다. 위메이드는 선수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2025시즌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선정되는 '월간 우수선수' 8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80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며, 시즌 종료 후 개최되는 대상 시상식에서는 대상 수상자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HANGJIN JERKY

품질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육포전문제조업체

항진육포의 이야기는 인스타그램 [HANGJINBEEFJERKY](https://www.instagram.com/hangjinbeefjerky)에서 계속됩니다.

스마트 스토어 www.smartstore.com/hangjinjerky

[회원맞춤형교육 공지문]

□ 외국어교육 과정

가. 파고다어학원

구분	내용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남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6-6, 7 파고다 어학원(T.02-2051-4000) 종로점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56-6(T.02-2274-4000) 신촌점 : 서울시 서대문구 청천동 20-41 아남인베스텔 3층(T.02-717-4000) 부산점 : 부산시 진구 부전2동 232-2(T.051-802-4001)
지원내용 · 비용	<p>총 90% 교육비 할인 (매달 1강좌 파고다어학원 70%할인 + 추가 협회지원 20% 할인 = 총 90% 할인 및 자부담 10%만 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료 50만원 이상 강좌의 경우 * 50만원 기준으로 70% 금액 할인(ex: 50만원에서 70% 할인받아 35만원 결제) * 50만원 이상일 경우, 차액 결제(ex: 수강료 70만원일 경우, 할인 받은 금액 + 20만원 차액 결제) * 기타 할인&쿠폰 중복 할인 불가
신청방법	각 지점별 등록처 직접 방문 신청(회원증 지참 필수) / 지점별 강좌 홈페이지 참고(www.pagoda21.com)
문의	지점별 학원으로 문의
기타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강이 적발될 경우 : 지원 영구 중단 ※ 대리인 :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나. 파고다인강

구분	내용
장소	파고다인강(파고다스타) (www.pagodastar.com)
지원내용 · 비용	<p>매달 온라인 파고다인강 1강좌 50% 할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 수강 과목 : GRE, 점수보장반, 환급반, 중국어강사양성과정, 원데이클래스, 챗린지, 온라인라이트클래스 제외 * 교재 증정 및 응시료 환급 제외 * 기타 할인&쿠폰 중복 할인 불가
신청방법	이메일(pagodastar@pagoda21.com) 또는 팩스(02-533-8066)(KLPGA 회원증 사본, 신분증 사본, 할인신청서 제출) * 할인신청서 [KLPGA 홈페이지 → 정보센터 → 회원혜택(교육서비스) → 파고다어학원 참조]
문의	파고다어학원(02-6907-2489)
기타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강이 적발될 경우 : 지원 영구 중단 (온라인, 오프라인) ※ 대리인 :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다. 전화외국어 / 화상외국어 교육

구분	내용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외국어 : 1회 10분 / 주 2~3회 • 화상외국어 : 1회 20분 / 주 2회
비용	협회 지원
과목	투어프로 골프영어, 레슨프로 골프영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I-Tour회원)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외국어 : 80명 • 화상외국어 : 10명
신청방법	매년 3, 6, 9, 12월에 신청자 모집 [KLPGA 홈페이지 → KLPGA 뉴스 공지 참조] https://www.npagodatalk.com/w/klpga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3월(4월~6월 교육), 6월(7월~9월 교육), 9월(10월~12월 교육), 12월(1월~3월 교육)
기타사항	본인이 아닌 대리인 수강이 적발될 경우 : 지원 영구 중단 (온라인, 오프라인) ※ 대리인 : 가족, 친인척, 친구 등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 인문소양과정

구분	내용	
주제	리더스포럼	수지향(수요일에 만나는 지혜의 향연)
내용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의 트렌드 특강으로 정부기관, 대기업 핵심인재 등 700여 명 참가	역사, 예술, 철학 등 분야별 최고의 석학들을 통해 삶의 성장과 해안을 얻는 특강
일정	07/09(수), 08/13(수), 09/17(수) 06:40 ~ 09:00 (조찬식사 제공)	07/09(수), 09/03(수), 09/17(수), 06:40 ~ 09:00 (조찬식사 제공)
장소	아모리스 역삼(논현로 508, GS타워 1층)	노보텔 엠베서더 2F 샴페인홀
비용/인원	협회 지원 / 선착순 22명	협회 지원 / 선착순 11명
신청	https://edu.klpga.co.kr/main.do 로그인(협회 홈페이지 ID/PW 동일) 후 개별 신청	

□ 문화교양과정

구분	내용	
주제	전국 34개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일정	가을학기(09월~11월) → 07월 ~ 08월 모집	겨울학기(12월~02월) → 10월 ~ 11월 모집
비용	학기당 1개 과정 수강료 지원(15만원 이하 정기강좌에 한함 / 재료비 및 교재비 본인 부담)	
내용	라이프스타일, 건강/뷰티, 공예, 어학/인문, 음악/악기, 미술, 쿠킹, 육아, 교양 등	
신청방법	https://culture.lotteshopping.com/index.do 통해서 수강 과정 선택 각 지점별 등록처 직접 방문 신청(회원증 지참 필수) *당해 학기 과정 교육 취소 후 타 과정 재등록 불가	

* 문의 : KLPGA 사무국 서상덕 차장(02-560-4416 / sangduk.suh@googlemail.com),
유현규 과장(02-560-4427 / andy@klpga.com), 서재영 사원(02-560-4443 / jaewaa@klpga.com)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 후 무단 불참 시 1년간 교육 지원 중단

회비 미납으로 인한 제명자 KLPGA 회원 복원 불가 안내

2021년도 KLPGA 제5차 이사회('21.09.03.)에서 장기 미납으로 인한 제명자 KLPGA 회원복원 불가 관련하여 의결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관련 규정]

구분	제2장(회원)	제2장(회원)
KLPGA 정관	<p>제2장(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조(회원의 의무) 2항 <p>본 회가 정한 일정의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제2장(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회원의 제명) <p>본 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에,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p>
KLPGA 상벌분과 위원회 규정	<p>제3장(징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징계기준) 제5항(제명) 가. 회원 관련 <p>2) 회원 중 2회(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비를 미납한 경우 3) 협회에 납부 및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납부 및 지급 기간을 기산하여 1년간 내지 않았을 경우</p>	
회비 미납으로 인한 제명자 KLPGA 회원 복원 처리	2023년 1월 1일부터 회원 복원 불가	근거 2021년 KLPGA 제5차 이사회(2021.09.03)

* 문의사항 : KLPGA 사무국 박인섭(02-560-4423)

2025 Member's Service

01 골프장

● 우리드리조트제주(주)

혜택 ① 4인 1팀 기준, KLPGA 회원 1인만 적용
② 1인 그린피 면제, 동반자 인터넷 요금이 적용
문의 064-766-7731
주소 제주 서귀포시 산록남로 2914

● 센추리21 CC

혜택 KLPGA 정회원 그린피 할인: 95,000원(주중)
※4인 1팀 기준, KLPGA 회원 1인 혜택 적용.
단, 센추리 21 CC 회원 동반 시 상기 할인 혜택은 제공되지 않음.
문의 033-733-1000
주소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구말길 193

● 리앤리 컨트리클럽

혜택 KLPGA 회원 1명 + 동반자 3명(4인 1팀 기준) 내장 시, 30,000원 할인(주중만 가능, 주말은 불가)
문의 031-580-9000
주소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청계로 702-24

● 베어크리크 포천

혜택 ① 정회원 : 4인 1팀 내장 시, 최대 2명 그린피 50% 할인 ② 준회원 : 4인 1팀 내장 시, 최대 2명 그린피 20% 할인(단, 베어크리크GC 인터넷 유료회원 가입 必)
※ 주말 / 공휴일은 할인 불가
문의 1899-0115
주소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달인동로 35

● 서원힐스

혜택 ① 4인 1팀 내장 시, KLPGA 회원 1인 그린피 50% 할인(KLPGA 회원 2명 이상이어도 KLPGA 회원 1명에게만 적용)② 서원 프렌즈로 자동 가입 후 타석 및 숯게임장 할인 - KLPGA 회원 : 50% 할인
③ 연습장 입점 아카데미 소속 선수 중 KLPGA 정회원 또는 준회원 입회(승격)한 자의 한하여 라운드, 연습장, 숯 게임장 무료.
- KLPGA 정회원 : 2개월
- KLPGA 준회원 : 1개월
※ 단, 그린피 할인 행사보다 제휴요금이 낮을 경우 할인행사 요금 적용
문의 031-941-0025, 031-940-9400
주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산48-1

● 대영힐스 CC

혜택 4인 1팀 기준, 주중에 한하여 KLPGA 회원에 한해 그린피 50% 할인

(1팀당, 1명 할인 적용)

문의 043-850-8601~3(예약실)
주소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성성두담길 114

● 마른뉴데이 CC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할인 혜택 주중 : 165,000원 주말 : 225,000원
문의 041-623-5500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복면 남인5길 74

● 롯데스카이힐 부여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KLPGA 회원에 한해 그린피 할인 - 주중 : 50% 할인 - 주말 : 30% 할인
문의 041-939-1701~4
주소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35-1

● 드비차골프클럽

혜택 주중 그린피 140,000원(1부에 한함)
문의 055-736-3000
주소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573

● 문경 GC

혜택 4인 1팀 기준, 주중에 한하여 KLPGA 회원 1인만 적용
- KLPGA 정회원 : 그린피 면제
- KLPGA 준회원 : 그린피 50% 할인
문의 054-550-5000
주소 경북 문경시 문경골프장길 240

● 블루윈 상주 골프리조트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4인 1팀 기준, 주중에 한하여 KLPGA 회원 1인만 50% 할인
문의 1899-1888
주소 경북 상주시 모서면 화현3길 127

● 캐슬렉스 제주 CC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그린피 할인 - 주중 : 70,000원, 주말 : 90,000원
문의 064-793-6600
주소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1241

● 해비지 CC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주중에 한하여 그린피 10% 할인
문의 064-766-6200
주소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산 30번지

● 코랄오션리조트 사이판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① KLPGA 회원 MRI 호텔 투숙 시, 코럴 오션 골프장 그린피 할인- FIT 가격 기준 40% 할인(성수기)~50% 할인(비수기)
※ MRI 그룹 : 코럴 오션 리조트, 캔싱턴 호텔 사이판, PIC 리조트 사이판 ② 동반 플레이어가 3인 이상 코럴 오션 골프장 예약하는 경우, KLPGA 회원 본인에 한해 18홀 금액으로 무제한 플레이
※ 상기 혜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 070-5168-4913
주소 P.O. Box 501160, Saipan, Northern Mariana Islands

● 가야CC

혜택 정/준회원 그린피 할인(일, 주말/공휴일에 적용) 정회원 67,000원, 준회원 80,000원(비회원 3인 동반 시)
문의 055-337-0091
주소 경남 김해시 인제로 502

● 대구CC

혜택 정회원 그린피 할인 ① 대구, 경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KLPGA 정회원에게 한하여 평일 1/2부에 적용(60,000원)
② 주말은 비회원 정상요금으로 세금만 제외함
③ 타지역 정회원의 경우, 세금만 제외함
문의 053-859-5277
주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일연로 718-42

● 보성CC

혜택 정회원 그린피 할인 ① 평일, 주말(토/일요일), 공휴일 본인 1인 운영요금에서 2만원 할인(KLPGA 회원증 또는 증명서류 확인 후 본인 1인 프린트 결제 시 현장적용)
② 선결제 및 패키지 예약 건 이용 불가
③ 온라인 예약 및 전화예약 후 현장결제 적용으로만 가능
문의 061-804-1000
주소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3길 338

● 페림CC

혜택 지난해 KLPGA 상금순위 시드 60위 이내 선수에 한하여 1인 그린피 면제(주중에 한함)
문의 031-887-7001
주소 경기 여주시 점동면 점동로 181

● 정산CC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10만원(주중 1부에 한함)
문의 055-320-0121

주소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637번길 299-194

● 클럽디 거창

혜택 4인 1팀 방문 시, 프로 1인에 한하여 주중 50%, 주말 20% 할인
문의 055-945-6060
주소 경남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398

● 클럽디 금강

혜택 4인 1팀 방문 시, 프로 1인에 한하여 주중 50%, 주말 20% 할인
문의 063-720-7777
주소 전북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130

● 클럽디 보은

혜택 4인 1팀 방문 시, 프로 1인에 한하여 주중 50%, 주말 20% 할인
문의 043-540-8888
주소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송중초로 386

● 해라CC

혜택 4인 1팀 방문 시, 프로 그린피 1인 면제(주중에 한함)
문의 051-973-7400
주소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로306번길 77

● 파인힐스CC

혜택 비회원 3인 동반 시, 프로 1인(정회원 50% / 준회원 30%) 그린피 할인(주중에 한함)
문의 061-750-9000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송광사길 99

● 스키아일랜드 제주

혜택 정상가의 20~50% 할인
문의 064-731-2000
주소 제주 서귀포시 상예로 530
스키아일랜드제주

● 블루윈 용인

혜택 KLPGA 회원(본인) 그린피 50% 할인
※ 주중 내장팀에 한함
문의 1899-1888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사로 1534번길 40

02 골프연습장

● 백야드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① KLPGA 무료(쇼트게임(55분),1회) ② 동반(레스입장 시, 동반객은 정상요금
문의 031-620-1106

KLPGA 회원을 위한 혜택

KLPGA 회원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소개합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문의 KLPGA 사무국 차지해 과장 (02-560-4426 chajh@klpga.com) ※ 회원혜택 이용 시 KLPGA 회원임을 증명해야 함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131, B1

● J.NOVUM GOLF STUDIO

혜택 ① KLPGA 회원 트랙맨 스튜디오 클럽디 커브 20% 할인(주류 및 음료 제외)
문의 02-6403-7717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39 B1~3F

● TGX 골프아카데미

혜택 아카데미/스튜디오 골프타석 할인
① 일일권 50% 할인
- 아카데미(16,500원/주중, 15,000원/주말)
- 스튜디오(25,000원 / 주중, 주말)
② 정기권 30% 할인
③ 쿠폰 20% 할인
문의 02-6490-9455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몰 B2

● 골프플래닛

혜택 ① 타석/스투이어 사용 : 무료
② 기어스 스윙데이터 : 연 1회 무료
③ 피트니스/필라테스 : 50% 할인
④ 피팅분석 : 연 2회 무료
⑤ YOUTUBE 촬영 대관 : 연1회 제공
문의 02-553-5550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7길 17, B1

● 갤러웨이 아웃도어 퍼포먼스센터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 퍼트상담(55,000원) 후 연습장 1시간 무료 이용 * 연습장 이용 : 22,000원 / 1시간(드라이빙레인지, 퍼트그린, 벙커)
문의 031-631-4643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64 갤러웨이골프 이천 아웃도어 퍼포먼스센터(사우스 스프링스CC 내)

● 클럽디청담

혜택 프로 개인 연습 시, 타석비 50% 할인 / 클럽디 커브 20% 할인(주류 및 음료 제외)
문의 02-6403-7717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39 B1~3F

● 숯게임힐스

문의 0507-1436-2122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408-30

03 골프용품

● 폴스윙 코리아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폴스윙 키트 레스패키지 - 구성 : 폴스윙키트+아이패드+Onform 1년 구독 - 가격 : 8,190,000원(100만원 할인)
문의 폴스윙 코리아(02-555-4653)
폴스윙코리아 인스타그램 DM발송
주소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39, 3층

● 미즈노

혜택 드라이버, 우드, 하이브리드, 아이언 40~50%, 웨지, 퍼터 50%, 스탠드백, 골프화 60%, 골프장갑, 볼 70% 할인 적용
※ 단, 제품별 연간 구매 수량 제한 있음.
주소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76, 13층

● 3P 골프

혜택 골프그림 세척다울 '채다카', 골프밸런스 연습용 패드 '실스텝' 등 홈페이지 전 상품 50% 할인
문의 02-333-3840(영점에 실장)
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9, 1102호

● 범양글러브

혜택 프로골퍼 전용 특가물 - 최대 80%

※ 단, 상품별 할인율은 상이할 수 있음
문의 02-714-4403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7가 184-4, 605호

● 보이스캐디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보이스캐디 거리측정기 약 40% 할인
문의 1577-2862
주소 서울 서초구 매향로16, 4층

● 타미카퍼

혜택 타미카퍼 전 품목 30% 할인
※ 단, 정상 소비자가 대비
※ 연간 개인 한도 200만원
문의 070-4277-3134
주소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15길 26, 201호

● REVO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30% 할인
문의 02-571-1800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길 70, 4층

● SR30

혜택 KLPGA 전체 회원 대상 SR30 통용형 클럽 50% 할인
※ 단, 회원 인당 2회까지 20대 가능
문의 062-671-5447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매향로 49번길 34

● SYNLAWN(골프잔디)

혜택 프라이빗 골프연습장 무료 컨설팅
① 스튜디오(퍼트, 타석 등) 구성 인조잔디(타석, 퍼트, 러프) 10% 할인
※ 총 30혜베 이상 추가 5% 할인
※ 총 50혜베 이상 추가 10% 할인
문의 010-7196-4838
주소 서울 강남구 선릉로 138길 18, 1~2층

● SIDAS

혜택 시다스 맞춤 인솔 40% 할인 / 자세평가 : 무료
문의 010-8205-1797

● 카카오vx

혜택 KLPGA 회원 대상 FA, TR 장비 할인 프로모션 / 연습장비 구매 시 할인 혜택
문의 010-8498-1549(영업지원팀 류창민 / 문자로 요청)

● 듀발

혜택 듀발 골프화(인솔) 40% 할인 / 듀발 인솔(개인맞춤) 50% 할인 / 발 검사, 신발평가 무료
문의 02-555-2626(전화예약 후 방문)
주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벨로드롬 b20)

04 골프의류

● 까스텔바작

혜택 KLPGA 회원 대상 전 품목 30% 할인 (1인 1회 한도 100만원)
※ 마일리지 적립 불가, 기타 할인 및 판촉행사 금액권 중복적용 불가
문의 02-3498-0401

● 데산트골프, 르꼬고골프, 먼싱웨어

혜택 데산트코리아 공식 온라인몰 골프브랜드(데산트 골프, 르꼬고 골프, 먼싱웨어) 30% 할인(이월상품 제외)
※ 연간 소비자가 300만원 이내 (매년, 1월 1일에 사용금액 갱신됨)

● 레노마골프

혜택 KLPGA 회원 대상 신상품 30% 할인
※ 정상 소비자가격(TAG 부착 가격) 한함

SERVICE INFORMATION



우리드리조트제주(주)
혜택 ① 4인 1팀 기준, KLPGA 회원 1인만 적용 ② 1인 그린피 면제, 동반자 인터넷 요금이 적용
문의 064-766-7731
주소 제주 서귀포시 산록남로 2914



골프플래닛
혜택 ① 타석/스투이어 사용 : 무료
② 기어스 스윙데이터 : 연 1회 무료
③ 피트니스/필라테스 : 50% 할인
④ 피팅분석 : 연 2회 무료
⑤ YOUTUBE 촬영 대관 : 연 1회 제공
문의 02-553-5550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로 7길 17, B1

※ 연 500만원/1인 한도 ※ 주요도시 정상대리점에서만 가능, 상설대리점 제외
문의 02-2211-6921(오자원 주임)

● **바이스골프**

혜택 전 품목 30% 할인 ※ 전국 바이스골프 오픈라인 정상매장 (온라인몰, 아웃렛 제외)에 한함 ※ 연간 한도: 정회원 - 1000만원, 준회원-700만원, 티칭회원-500만원(TGA가격 기준)
문의 1833-4354

● **아디다스골프(골프존마켓 입구정점)**

혜택 전 품목 30% 할인
문의 02-516-4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72

● **어뉴골프**

혜택 전 품목 30% 할인(신규가입 및 프로모션 할인 중복불가)
※ 전국 어뉴골프 오픈라인 정상매장(온라인몰, 아웃렛 제외)
※ 연간 한도: 정회원 - 1000만원, 준회원-700만원, 티칭회원-500만원(TAG가격 기준)
문의 1833-4354
홈페이지 <https://www.anewgolf.com/>

● **어퍼스트롬**

혜택 ① 어퍼스트롬 골프라인 70%, 캐주얼라인 50% 할인(한도 : 1인당 500만원/월) ② 스킵피그 판매가의 20%할인 제공, 정가의 최대 85%할인
문의 070-7733-9002

● **롤비스트**

혜택 신상품 30% 할인(TGA가격 기준) (한도 : 1인당 100만원/월)
※상품권, 할인권 중복 사용 불가
문의 02-3456-9196

● **매드캐토스 컨트리클럽**

혜택 공식 온라인 사이트 30%할인(소비자가 기준) / 매드캐토스 온라인 사이트 회원 가입 → 구매하기 최종단계 할인코드 입력
주소 서울 강남 압구정로 10길 5

05 숙박

●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레지던스**

혜택 KLPGA 회원 특별가 제공 (205,000원 ~ 405,000원)
문의 02-3425-8000
주소서울 중구 을지로 238

● **신라스테이 서울**

혜택 숙박요금 37~74% 할인
문의 02-2230-0700(예약문의)
주소 ① 삼성: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06
② 서초: 서울 서초구 효령로 427
③ 역삼: 서울 강남구 언주로 517

● **센베리호텔(여주)**

혜택 ① 객실: 13만원~22만원
② 조식패키지: 16만원~25만원
③ 워터파크패키지: 16만원~26만원
④ 풀패키지: 20만원~30만원
문의 02-3660-3007
주소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 **라마다 용인호텔**

혜택 ① 숙박: 자사 홈페이지 예약(최저가)의 10% 할인
② 레스토랑: 석식 (성인) 7만원 / (아동)3만7천원,
조식: (성인)2만4천원/(아동)1만6천원
문의 031-8097-6500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356-6

● **호텔 원티드**

혜택 최대 64% 할인 제공 (65,000원 ~ 250,000원/조식포함)
문의 032-585-8900
주소 인천 서구 북항로 32번길 20

● **오크밸리 리조트**

혜택 정가의 30~40% 할인 (15만원~31만원/계절별 가격 상이)
문의 1588-7676(1번)
주소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2길 58

● **웰리힐리파크**

혜택 ① 숙박: 정가의 40% 할인 등 특별할인 제공 ② 워터플레이 시즌패스: 정가의 36~38% 할인 제공
문의 1544-8833(ARS 1번)
주소 강원 횡성군 둔내면 고원로 451

● **호텔탑스텐 강릉**

혜택 ① 숙박: 디럭스패밀리더블: (일~목) 11만원 / (금) 13만원 / (토~일,공휴일) 18만원
② 조식: 10% 할인 (중복할인 불가/ 본인 포함 최대 4인)
문의 033-530-4800
주소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화로 455-34

● **씨마크호텔**

혜택 프리미엄 디럭스, 이그제큐티브룸 3~48% 할인(사전 전화문의 필수)
※ 2인 조식: 객실료 포함
문의 033-650-7000
주소 강원 강릉시 해안로 406번길 2

● **신라스테이 서부산**

혜택 숙박요금 37~74% 할인

(90,000원 ~ 240,000원)
문의 02-2230-0700(예약문의)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 **더그루브**

혜택 최대 44~55% 할인 제공 (69,000원 ~ 220,000원)
문의 063-464-0505
주소 전북 군산시 소룡1길 55

● **라한호텔 전주**

혜택 숙박요금 37~74% 할인 (95,000원 ~ 207,000원)
문의 02-2230-0700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85

●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혜택 숙박요금 37~74% 할인 (100,000원 ~ 200,000원)
문의 02-2230-0700
주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1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호텔세종**

혜택 KLPGA 회원 특별가 제공 (120,000원 ~ 505,000원)
문의 043-330-3300
주소 세종시 도움1로 7

● **청풍리조트**

혜택 KLPGA 회원 특별 할인(25~60%) 제공
문의 043-640-7000
주소 충북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1798

● **호텔락희**

혜택 KLPGA 회원 특별할인가 제공 - 스탠더드 더블: 85,000원 - 디럭스 더블: 100,000원 - 디럭스 패밀리: 110,000원
문의 043-909-5000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88-126

● **ICC호텔**

혜택 호텔 객실 이용 시, 20%할인
문의 042-866-5001
주소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55

● **라한셀렉트 경주**

혜택 특별 할인가(13만원~35만원) 제공
문의 1644-8005
주소 경북 경주시 보문로338

● **아이스퀘어호텔**

혜택 ① 숙박: 디럭스(더블/트윈)143,000원 (61%할인) ② 조식: 21,300원(15%할인)
문의 055-344-5000
주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60

● **기린발리조트**

혜택 KLPGA 회원 특별 할인가 제공 (주중 70%, 주말 65%, 성수기 60%)
문의 064-805-3007
주소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427-1

● **서귀포 JS호텔**

혜택 ① 숙박: KLPGA 회원 특별가 - 스탠다드: 55,000~65,000원 - 디럭스 트윈: 66,000~76,000원 - 디럭스 패밀리: 77,000~87,000원
② 조식: 성인 15,000원/아동 10,000원
문의 064-802-3002
주소 제주 서귀포시 법환동 745-5

● **루체빌**

혜택 KLPGA 회원 특별가(8만원~10만원)
문의 064-805-0115
주소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산록남로 786

● **토스카나 호텔**

혜택 ① KLPGA 회원 특별가 제공 (200,000원 ~ 460,000원)
② 조식: (성인)25,200원(아동)16,100원
문의 064-735-7000
주소 제주 서귀포시 용흥로 66번길 158-7

●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

혜택 특별 할인가(11만원~20만원) 제공
문의 1644-8005
주소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875

● **라온호텔앤리조트**

혜택 KLPGA 회원 특별가 제공 (56,000원~150,000원)
문의 064-796-7730
주소 제주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7

● **신라스테이 구로**

혜택 객실타입 및 예약일자에 따른 특별가 제공
문의 02-2230-0700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흥대로 596

● **그랜드하얏트제주**

혜택 객실타입 및 예약일자에 따른 특별가 제공
문의 064-907-1234
주소 제주 제주시 노연로12, 그랜드 하얏트 제주

● **롯데시티호텔제주**

혜택 스탠다드 패밀리 트윈 5~30% 할인
대표문의 1577-0360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83

● **롯데호텔제주**

혜택 디럭스가든 패밀리트윈 8~20% 할인 / 롯데호텔제주 온수풀 해운 무료
문의 1577-0360
주소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72번길 35

● **훈데르트 바서**

혜택 객실: 온라인 판매가의 10% 할인 / 부대시설: 훈데르트바서파크 20% 할인 / 케이크리 카페: 음료 20% 할인
문의 064-766-6000
주소 제주 제주시 우도면 우도해안길 32-12

06 의료

[안과]

● **김안과병원**

혜택 ① 스마일 라식: 40만원 감액
② 유피라섹: 50% 할인
③ 비급여 수술비/안과 검사비 등: 30% 할인
문의 1577-2639
주소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136

● **하늘안과의원**

혜택 KLPGA 회원 안과 시술 우대
① 안중합검진: 30여 가지 첨단 안 정밀검사 무료
② 시력교정 수술비 혜택 제공
③ 라식, 라섹 책임보증서 발급 / 평생 관리 보장 서비스
④ ONE-DAY 라식/라섹
⑤ 시력교정 시술 최대 49% 할인
문의 02-573-9779

● **강남 베스트성모안과**

혜택 ① 베이직 라식/라섹: 120만원 → 59만원
② 양막 라식/라섹: 160만원 → 79만원
③ 올레이저 라식/라섹: 200만원 → 89만원
④ 미모 라섹: 220만원 → 99만원
⑤ 아베드로 엑스트라 라섹: 300만원 → 담당자 문의

● **강남 베스트성모안과**

혜택 ① 베이직 라식/라섹: 120만원 → 59만원
② 양막 라식/라섹: 160만원 → 79만원
③ 올레이저 라식/라섹: 200만원 → 89만원
④ 미모 라섹: 220만원 → 99만원
⑤ 아베드로 엑스트라 라섹: 300만원 → 담당자 문의

문의 02-6271-1000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 송촌빌딩 14층(역삼역 6번 출구)

● **서울 I 부산 밝은 세상안과**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시력교정 우대 혜택 최대 40% 할인
문의 02-3443-0880(서울), 061-805-1100(부산)
주소 ①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23 한양타운 2, 6, 7층(서울)
②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로74 아이온시티빌딩 8, 9, 10, 11층(부산)

● **강남밝은미소안과**

혜택 라식, 라섹 무료검진 / 라식, 라섹 등 시력 교정술 할인 / 노인 백내장 검진: 1만원 이내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08, 3층

[치과]

● **서울미소진치과**

혜택 KLPGA 회원 비급여진료 할인
① 치아교정 20% 할인, 치아미백 20% 할인
② 충치치료(레진/인, 온레이, 크라운) 20% 할인
③ 내비게이션 디오 임플란트 20% 할인
④ 오스텀 임플란트 20% 할인
⑤ SIC외산 임플란트 10% 할인
※ 방문해주시는 KLPGA회원분들께 맞춤형 구강 관리방법을 안내해드리며 맞춤형 구강 관리용품을 증정해드립니다.
문의 02-515-2875

● **오늘치과**

혜택 KLPGA 회원, 직계가족 및 임직원 대상
① 비거리 항상 마우스가드 20% 할인
② 하루완성 섀텍 라미네이트 20% 할인
③ 하루완성 충치치료 20% 할인
④ 비밀치아교정,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10% 할인
⑤ 치아미백, 턱관절치료, 임플랜트치료 10% 할인
주소 서울 7호선 상봉역 4번출구, 상봉동113-1
문의 02-6956-7528

● **오늘치과**

혜택 KLPGA 회원, 직계가족 및 임직원 대상
① 비거리 항상 마우스가드 20% 할인
② 하루완성 섀텍 라미네이트 20% 할인
③ 하루완성 충치치료 20% 할인
④ 비밀치아교정,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10% 할인
⑤ 치아미백, 턱관절치료, 임플랜트치료 10% 할인
주소 서울 7호선 상봉역 4번출구, 상봉동113-1
문의 02-6956-7528

● **길튼 치과**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비급여진료 할인
① 치아교정 20% 할인 - 오스텀 임플란트 20% 할인
② 투명교정 20% 할인 - 보톡스 20% 할인
③ 충치치료(레진, 크라운) 20% 할인
④ 라미네이트 20% 할인 - 치아미백 30% 할인
문의 02-585-8050 / 카톡 ID: 길튼치과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34, 1층

● **화이트e치과**

혜택 화이트e치과 전 지점 동일 우대 할인 적용
① 비급여 검사 및 치료비용 10~49% 할인
② 치아 특화 치아용품 증정
③ 임플란트 진행 시 특별우대
전문의료의 협진을 통한 맞춤 Total 문의 010-5360-6850 (김영진 경영기획 본부장)
주소 강남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37, 7층
영등포점: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2길 1, 9~10층
해운대점: 부산 해운대구 좌동로 93, 3층
서면점: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4, 5층
남포점: 부산 중구 비포관장로 34, 2층

● **스마일글로벌 치과의원**

혜택 KLPGA 회원 비급여진료 할인
① 치아교정 20% 할인, 치아미백 20% 할인
② 충치치료(레진/인, 온레이, 크라운) 20% 할인
③ 내비게이션 디오 임플란트 20% 할인
④ 오스텀 임플란트 20% 할인
⑤ SIC외산 임플란트 10% 할인
※ 방문해주시는 KLPGA회원분들께 맞춤형 구강 관리방법을 안내해드리며 맞춤형 구강 관리용품을 증정해드립니다.
문의 02-515-2875

● **스마일글로벌 치과의원**

혜택 KLPGA 회원 VIP 우대
① 치아교정 (특수교정, 비발치교정, 비수술교정, 단기 얇니교정) 30% 특별할인
② 치아미백 50% 할인
③ 심미 (얇니 무삭제 비니어) 20% 할인
④ 임플란트 (스웨덴 아스트라) 특별 우대 할인
※ 서울대, 연세대, UCLA NYU 출신 보드전문의료들의 협진을 통한 맞춤 Total Care
예약문의 010-7561-2119
주소 서울 강남구 선릉로94길 12 세운타워 11층

● **이스턴 치과의원**

혜택 구강검진 및 상담, 치료 및 사후 관리, 진료 및 수술비용 할인

문의 02-553-2804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9-3 광진빌딩 402 이스턴 치과의원

[재활, 척추, 관절, 한의원, 피부과]

● **단골병원**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① 외래진료(비급여) 15% 할인
② 물리치료(도수제외) 15% 할인
③ 입원(상급 병실료) 30% 할인
④ 시술(도수 제외) 15% 할인
문의 051-582-0100
주소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29

● **더본병원**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할인 제공
① 비급여 검사 및 치료 비용 20% 할인 - 척추, 관절/통증치료(체외충격파, 도수치료, 주사치료)
② MRI 검사 비용 33% 할인
문의 02-587-2299
주소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67(사당동)

● **더정형외과**

혜택 KLPGA 회원 및 직계 가족 대상 검사 및 치료 비용 할인
① 비급여 검사 및 치료비용 20% 할인
② 골프특화 치료비용 20% 할인(체외충격파, 도수치료, 주사치료)
문의 02-6969-9077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92길 29 도일빌딩 4~6층

● **새로운병원**

혜택 KLPGA 임직원, 전체 회원 및 직계가족 대상 의료 혜택 제공 - MRI 20% 할인 2) 비급여 진료비 10% 할인 (재료대 제외)
문의 010-9197-6757(예약문의)

● **한맘플러스병원**

혜택 ① 회원 본인 및 직계가족 비급여 30% 할인(정규투어 선수 50% 할인)
② 회원 추천 시 일반인 비급여 10% 할인(정규투어 선수 20% 할인)
③ 골프 메디컬 피트니스 무료 이용
※ 비급여: 도수치료, 충격파치료, 인대강화

SERVICE INFORMATION

	<p>노보텔 엠베서더 호텔&레지던스</p> <p>혜택 KLPGA 회원 특별가 제공 (205,000원 ~ 405,000원) 문의 02-3425-8000 주소서울 중구 을지로 238</p>		<p>김안과병원</p> <p>혜택 ① 스마일 라식: 40만원 감액 ② 유피라섹: 50% 할인 ③ 비급여 수술비/안과 검사비 등: 30% 할인 문의 1577-2639 주소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136</p>
---	--	---	---

등 주사치료, 만성통증 스크램블러치료 등
문의 02-3452-9912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527
그린메디칼빌딩 1~4층

● **광고상생H정형외과**
혜택 KLPGA 회원 비급여 항목 20% 할인(도수치료&체외충격파 포함)
문의 031-217-5000
주소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2층

● **용인연세프라이밍원**
혜택 KLPGA 회원 및 가족 비급여 10% 할인
① 척추, 관절 ② 통증치료(체외충격파, 도수치료, 주사치료) ③ 내과, 검진센터
문의 1588-7542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5

● **연피부과의원**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할인 제공 - 피부 레이저, 미백, 탄력, 항노화치료 20% 할인
문의 02-415-3274
주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5층

● **원광려한의원**
혜택 KLPGA 전체 회원(20% 할인) 및 직계가족(15%) 의료혜택
- 원내 모든 비급여 치료 20% 할인
- 일반 치료 시 파스 증정 및 물리치료, 테이핑, 약침 무료
문의 064-744-1075
주소 제주시 1100로 3334, 동현빌딩 2층

[종합검진]
● **솔병원**
혜택 ① 비급여 검사 및 치료 비용 20% 감액
② 스포츠재활 및 골프피트니스 프로그램 20% 감액
③ 골프 특화 스포츠의학검진 50% 감액 (본원만 해당)
④ MRI 검사 비용 50% 감액(당해연도 정규/드림/점프/챔피언스 출전선수 (본원만 해당))
문의 ① 솔병원(강서 본원) : 02-2064-7575, www.sol-hospital.co.kr
② 시흥솔병원 : 031-314-7582, www.korearm.com
③ 위례솔재활의학과의원 : 031-8023-5757, www.solrehab.co.kr
④ 용인 연세솔재활의학과의원 : 031-339-2111, 혜택 별도문의

● **서울베스트검진센터**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특별 혜택 제공
① 종합검진 우대 할인 제공
② 여성 암 특화 검진 제공

③ 독감예방 접종 할인 제공
④ 3차 의료기관 전자 차트 진료 연계
문의 02-2135-1357
주소 서울시 중구 다산로46길 17, 2층

● **서울메디케어**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혜택 제공 ① 종합검진 : 300,000원
② 정밀검진 : 500,000원
문의 박강민 과장(02-709-6783)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6(공덕동475)

● **국립암센터**
혜택 KLPGA 회원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전용 검진 패키지 이용(정상가 대비 10% 할인)
※ 대장내시경 시행 시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 용종의 크기와 관계없이 당일 대장용종시술이 가능
※ 국가암(공단) 검진 대상자의 경우 KLPGA 검진과 병행 가능(중복되는 항목 제외하여 감면 효과 있음)
문의 031-920-1212

● **한신메디피아**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할인 제공
① 종합검진 300,000원
② 정밀 종합검진 500,000원
③ 암 발병 의심 시 PET-CT 무료 촬영
④ 입원치료 필요 시 본원 협력병원으로 우선 조치
⑤ 건강검진 후 정기적인 관리 제공
문의 한지훈 과장(1588-1541)
주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94
한신공영빌딩 2층, 3층

● **참좋은 그레이스병원**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할인 제공
① 종합검진 프로그램 약 60% 할인
② 하이푸(HIFU) 시술 10% 할인
문의 031-901-4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073

● **메디스캔 의원**
혜택 KLPGA 회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추가 검사, 예방접종 패키지 20~30% 할인
문의 064-801-5100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에이플러스에셋타워 20층

● **서울아산병원**
혜택 KLPGA 회원 및 직계가족 대상 우대 제휴 프로그램 제공
- 건강검진 후 유소견 시 외래 진료 예약 지원
- 건강검진 고객을 위한 특성화된 맞춤형 외래진료
- 스포츠건강의학센터 연계 지원

문의 02-3010-5000
● **세브란스 헬스 체크업**
혜택 KLPGA 회원(배우자 및 직계가족 포함) 대상 세브란스체크업 검진비 30% 할인 (선택검사 포함)
- 신속한 상담 및 예약을 위한 전담 직원 배치
- 추가 진료 필요 시 우선진료(Fast Track)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연계 진료 제공
- 희망 고객에 한하여 검진 후 영상기록 무료 제공(CD)
문의 1588-7757
주소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남대문로5가 84-11) 연세세브란스빌딩 4, 5층

● **명지내과**
혜택 KLPGA 회원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혜택 제공
① 비급여 검사 및 검진 50% 할인
② 골프특화 치료비용(체외충격파,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 50% 할인)
문의 김영진 실장(010-5360-6850)
주소 부산시 강서구 명차국제2로 29 성광타워 3~4층

● **차병원&차움**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KLPGA 회원 제휴프로그램 우대 할인가 제공
문의 02-3015-5500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42(차움)

[트레이닝센터]
● **닥터골프**
혜택 ① SFMA(선택적 움직임 평가), CSM(등속성 근기능 검사), TPI 골프기능검사 : 월 1회 무료
② 분석장비(TRACKMAN, V1 pro, SAM PUTT, K-VEST, Fligt Scope) : 월 1회 무료
③ 라운지, 스파, 스크린연습, 세미나: 월 1회 무료
※KLPGA 공식대회 참가선수는 준비 기간부터 대회종료까지 무제한 이용
문의 051-710-8006
주소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29

● **닥터핏24**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① 피트니스클럽(비회원제) 50%할인
② SFMA(선택적 움직임 평가), CSM(등속성 근기능 검사) - 월 1회 무료
③ GX(Group Exercise) 룸 무료 ④ TPI 골기능검사 월 1회 무료
⑤ 재활운동 슬링 월 1회 무료
※ KLPGA 공식대회 참가 선수의 경우, 준비기간부터 대회종료까지 무제한 이용 가능
문의 051-582-0100
주소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29

07 교육
● **파고다 어학원**
혜택 파고다어학원 및 파고다인강 각 月 1과목 수강료 할인
문의 강남(02-2051-4000), 종로 (02-2274-4000), 신촌 (02-717-4000), 부산서면 (051-797-4000), 파고다인강 고객센터(02-6907-2489)
● **한국능률협회(회원인문소양교육)**
혜택 KLPGA 회원 아카데미 무료 교육
문의 02-3274-9200

● **KLPGA 회원전로서비스(인·적성/직무능력검사)**
혜택 KLPGA 전 회원 무료(검사비 + 해설비)
① 검사방법 : 온라인으로 개별 신청 후 검사 진행 ② 검사시간 : 총 110분(인·적성 검사 298문항, 직무능력 검사 70문항)
③ 검사결과 : 1주일 내로 개별 이메일 발송(KMA에서 전달), KMA로 연락 시 결과 해석 및 개별 상담 가능
④ 참가신청 - KLPGA 홈페이지 정보센터 → 회원혜택 → 교육서비스에서 공지 확인 후 교육 담당자에게 별도 신청
- 개별적으로 검사 아이디 및 비밀번호 발급
- 홈페이지 검사사이트 링크(klpga.kma.or.kr) 접속 → 발급받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검사 진행
문의 02-560-4424 / lsjd@klpga.com

08 기타
●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혜택 KLPGA 프렌즈카드 가입 시 KLPGA 회원 상시 10% 할인(정상상품, 일부 제외)
- 신규 발급 시 5만원 상당 할인권 증정 - 상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문의 02-3449-4449 카드신청 | 명품관 방문 or QR카드
주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43번지

● **롯데렌터카**
혜택 KLPGA 회원 본인 및 가족 렌터카 할인 - 장기 렌터카 표준가 대비 최대 2~6% 추가 할인
- 단기 렌터카 30% 할인(제주의 경우 기간별 대여료 차등됨)
문의 010-5329-1129(장혁순 대리) / 1588-1230(고객센터)
위치 전국 롯데렌터카 지점

● **보보리스 네트웍**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헤어, 메이크업 할인(회원 40%, 회원 가족 30%, 회원 지인 30%) ※ 메이크업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 지정 시에 한하여

할인혜택 가능 (지정할 경우 할인 불가)
문의 02-549-3030
주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1-23 보보리스

● **뽀모리엔**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회원 할인가 제공
모리엔 헤어샴푸, 헤어토닉 제품 35% 할인
문의 051-929-6916 / 051-9733-9733
주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567-48

● **엠시씨바이오**
혜택 KLPGA 회원 제품 구매 시 전제품 정가의 25% 할인
문의 02-464-3377
주소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2길 6

● **몬도델비노**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와인 제품 최대 30% 할인 혜택 제공
문의 1566-4494 / 010-5500-0876
주소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417호(자곡동)

● **백제홍삼 주식회사 삼대인**
혜택 KLPGA 회원 및 직계가족 대상 삼대인 홍삼 전 제품 할인 (달임 제품 제외)
홈페이지 온라인 구매 30% 할인 전화 주문, 오프라인 구매 25% 할인
※이벤트 할인으로 추후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신정회계법인**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제반 회계 및 세무 서비스 수수료 20% 할인
문의 010-3230-9676 / shkim@sjcpa.co.kr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02 에임하이타워 6층

● **헤츠**
혜택 KLPGA 회원 대상 프리미엄 웨딩 40% 할인 / 회원 및 가족, 지인 대상 헤어,메이크업 시술 할인 (회원 50%, 가족 40%, 지인 30%)

문의 010-4626-3473(송진주 원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88
한나빌딩5층 HETZ

● **와이드모바일**
혜택 ① 전 국가 15%, 도시락 USIM ESIM 5% 할인
② 보조배터리 무료제공
문의 1566-9070

● **키자니아**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대상 키자니아 서울 입장권 30~40% 할인혜택 제공
문의 1544-5110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 **YJ케어라이프**
혜택 유벨라 반신욕기 45% 할인
문의 010-4089-8454(김권기 담당자)
주소 서울시 광진구 관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3층

● **비율**
혜택 KLPGA 회원 대상 이용요금 50% 할인, 회원 가족 대상 이용요금 30% 할인 제공
※ 기장추가 별도 계산
문의 010-9971-9141(명상 원장)
주소 강남구 도산대로78길 6

● **세계골프역사박물관**
혜택 KLPGA 회원 당사자 및 동반 1인 관람료 무료 (관람료 5,000원)
※ 일요일, 국경공휴일 휴관
문의 02-2192-3005

● **도넛킹**
혜택 본점 방문 시 오리지널 글레이즈+아메리카노 세트 증정
문의 010-7443-1282(박은수 프로)
주소 제주시 구남로6길 25

● **케어바이미**
혜택 ① 골프케어 연 1회 무료 - 3D 피부 정밀 분석 후 개인의 피부상태에 맞는 케어 진행

② 관리 등록하시는 분들께 첫 방문 시 30% 할인
③ 프로그램 이용 시 10% 할인 제공 (물광테라피, 콜라겐테라피, 비타민테라피)
문의 010-7666-7697(김지은 실장)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6
현익빌딩 15층

● **제주 퍼시픽랜드**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및 회원가족 대상
- 상그릴라 요트(60분) 40%(성인) 할인
- 비바제트보트(15분) 40% 할인
- 잠수제트 20% 할인
- 마린스테이지공연 30%(성인) 인
- 엘라리노뷔페 10% 할인
※ 성인 기준 할인율이며, 자세한 내용은 문의 전화 확인
문의 1544-2988

● **강남심리치료센터**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회원 할인가 제공
- 심리치료적 골프멘탈 클리닉 20%~30% 할인
- 심리 워크숍/심리 캠프 프로그램 참여 20% 할인
문의 이조이 프로 (010-7206-9155 / 031-657-0975)
주소 ① 서울본점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06, 광명빌딩 4층 ② 평택비전점 :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22번길 40, 배다리정원 4층

● **시너텍(EMP 엠플)**
혜택 KLPGA 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혜택 제공
- EMP 신제품 출시 اولین 멀티밤/센세럼/트리블세럼 출시 기념 프로모션
※ 멀티밤 소비자가 : 59,000원
※ 센세럼 소비자가 : 39,000원
※ 트리블세럼 소비자가 : 79,000원 (소비자가 28,000원 상당)
-세트가격 소비자가 : 177,000원 → 50% 할인/88,000원 진행
※ 구매감사 고객 명의 1만원 기부 진행

문의 010-5419-9709(김현정 이사)
주소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353, 414호 JK루체스타

● **골프튜디오**
혜택 KLPGA 회원(정회원, 준회원, 티칭회원) 온라인 스토어 할인
① 골프튜디오 공식 온라인 스토어 GRAB-ITY BALANCE 제품군 30% 할인(의류 제품 제외)
② 해당 제품 : GRAB-ITY BALANCE™ PRO, BASIC, FLIPFLOP / 이상 3개
③ 구입 한도 : 3개 제품 합산 연간 1,200,000원 내
※ 해당 혜택은 온라인 스토어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오프라인 매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의 skaut410@wagti.com

● **LG라이프케어**
혜택 LG계열사(LG전자, LG생활건강, LG아센트 등) 제품 및 생필품, 건강, 여행, 스포츠, 문화 등 라이프 콘텐츠 제공 및 할인
● **윤지선멘탈클리닉**
혜택 원데이 골프멘탈코칭 10% 할인 / 골프멘탈 기본 및 심화 코칭 20% 할인
문의 010-4251-4241

● **세종문화회관**
혜택 개별 구매 : 세종문화회관 시즌 공연 10~40% 할인 / 단체 구매 : 공연별 최대 할인율 제공
문의 02-399-1059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 **스미스앤레더**
혜택 오프라인 매장 전 제품 상시 20% 할인
문의 010-8844-5650
주소 현대백화점 여의도/ 판교/ 목동/ 대구/ 천호/ 부천/ 가로수/ 충청/ 킨텍스

SERVICE INFORMATION

KLPGA 회원 전용 복지물 이용방법 안내

1. KLPGA FIT(KLPGA 회원전용어플) 로그인
2. 메인화면 하단의 THE 특별한 혜택 - 라이프케어 복지물 배너 선택

빈 칸 을 채 워 라 QUIZ EVENT

〈KPGA 멤버스〉 여름호에 실린 선수 인터뷰를 읽고 아래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맞춰주세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선수의 사인볼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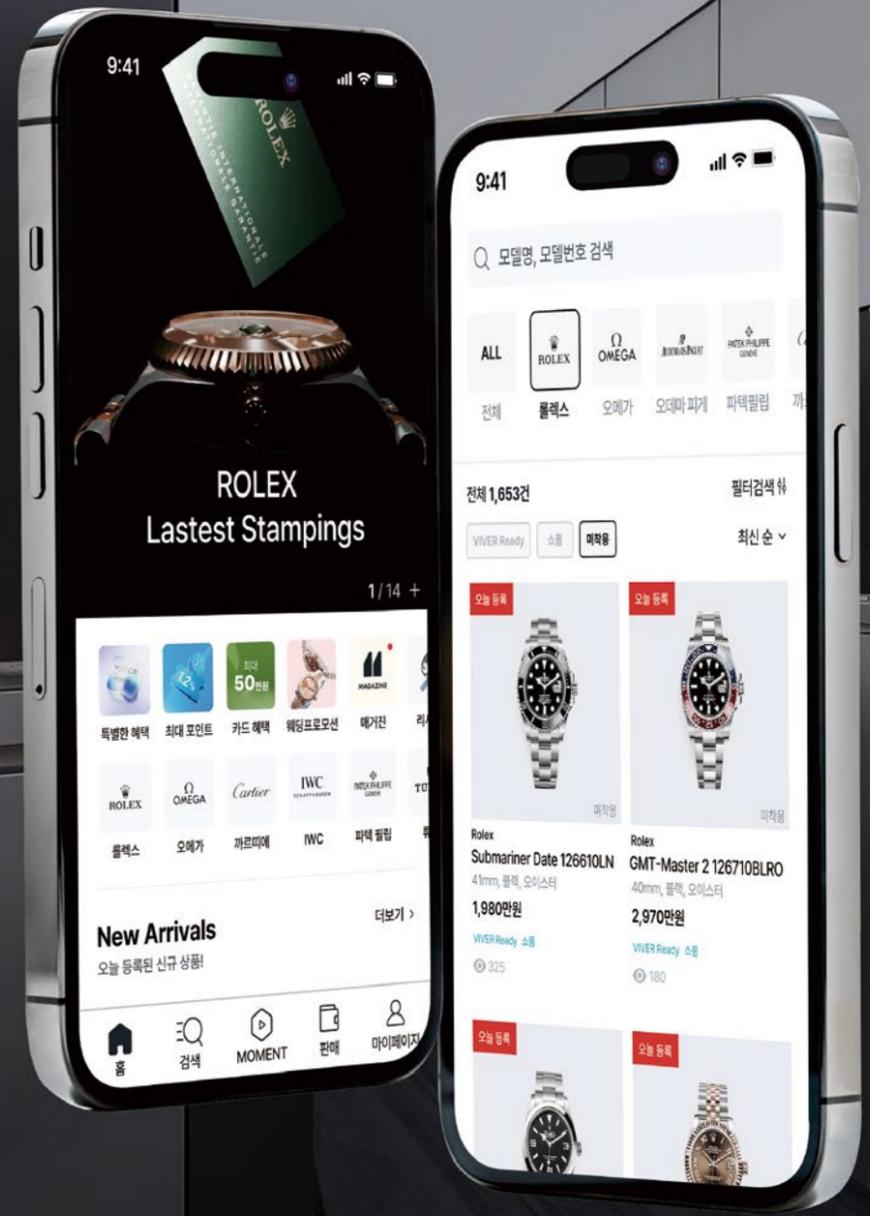
홍정민은 이번 시즌 전지훈련에서 쇼트게임보다
 ○○ ○○에 방점을 뒀다.

※힌트 : 7페이지

- 이벤트 기간** 2025년 7월 7일(월) ~ 7월 13일(일)
- 이벤트 참여 방법** ① KPGA 인스타그램 팔로우 ②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댓글 달기
- 당첨자 발표 및 당첨자** 2025년 7월 16일(수) / 3명(개별 안내)


[instagram.com/klpgatour](https://www.instagram.com/klpgatour)

믿을 수 있는 명품 시계 거래의 시작 VIVER



VIVER AI 렌즈로 명품시계를 검색해 보세요!



No.1 명품 시계 거래 온·오프라인 플랫폼 VIVER
 롤렉스, 까르띠에, 오메가는 물론 오데마 피게, 파텍 필립, 바세론 콘스탄틴까지 19개 브랜드의 4천여 개 모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감정/진단 시스템과 차별화된 고객 케어 서비스를 경험해 보세요.
 VIVER SHOWROOM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57길 24, 1층 | 고객센터 1555-7079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HS효성더클래스 시승 신청하기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HS효성더클래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HS효성더클래스는 전 세계 관심 높은 전기차와 더불어 자동차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으며 항상 고객님께 최고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자동차를 넘어 Premium Lifestyle Provider로 고객님의 품격에 맞는 최상의 퍼스트클래스 서비스와 고객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해 나아갈 것입니다.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HS효성더클래스

공식 전시장 • 강남대로 02) 575-7500 • 송파 02) 3434-4000 • 구리 031) 579-0900 • 스타필드 하남 031) 8072-8900 • 분당 정자 031) 786-6000 • 안양 평촌 031) 689-8900
• 용인 수지 031) 5183-9200 • 동탄 031) 880-0200 • 천안 041) 620-7000 • 청주 043) 820-9000

인증 중고차 • 하남 02) 3443-1999 • 죽전 031) 786-6171 • 천안 041) 555-5070

서비스 센터 • 방배 02) 3489-3300 • 송파 02) 2152-3333 • 서초 02) 3488-2400 • 도곡 02) 575-7340 • 신사 02) 540-7900 • 안양 평촌 031) 596-2600 • 죽전 031) 786-6100
• 용인 수지 031) 290-3700 • 구리 031) 579-0970 • 동탄 031) 880-0288 • 하남 02) 3433-1900 • 천안 041) 620-7070 • 청주 043) 299-9090 • 청주오송 043) 820-9090

※ 위 사진으로 소개된 차량은 'E-Class' 입니다.